

4 2 (2010 3 · 4)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2호 (2010년 3·4월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Contents

3 March 2010

① 주차_03.01-03.07

- | | | |
|--------------|-------|----------|
| 1. 대내 ——— 6 | 가. 정치 | 나. 경제 |
| | 다. 군사 | 라. 사회·문화 |
| 2. 대외 ——— 12 | | |
| 3. 대남 ——— 13 | | |

② 주차_03.08-03.14

- | | | |
|--------------|-------|-------------|
| 1. 대내 ——— 18 | 가. 정치 | 나. 경제 |
| | 다. 군사 | 라. 사회·문화 |
| 2. 대외 ——— 24 | | |
|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
| 3. 대남 ——— 26 | | |

③ 주차_03.15-03.21

- | | | |
|--------------|-------|-------------|
| 1. 대내 ——— 30 | 가. 정치 | 나. 경제 |
| | 다. 군사 | 라. 사회·문화 |
| 2. 대외 ——— 36 | | |
|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
| 3. 대남 ——— 39 | | |

④ 주차_03.22-03.28

- | | | |
|--------------|-------|-------------|
| 1. 대내 ——— 42 | 가. 정치 | 나. 경제 |
| | 다. 군사 | 라. 사회·문화 |
| 2. 대외 ——— 49 | | |
|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
| 3. 대남 ——— 51 | | |

⑤ 주차_03.29-03.31

- | | | |
|--------------|-------|-------------|
| 1. 대내 ——— 54 | 가. 정치 | 나. 경제 |
| | 다. 군사 | 라. 사회·문화 |
| 2. 대외 ——— 56 | | |
|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
| 3. 대남 ——— 57 | | |

인쇄: 2010년 5월 발행: 2010년 5월
발행처: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편집인: 북한연구센터 편집간사: 정재운·최재령 연구원
등록: 제2-02361호(97.4.23) 주소: (142-728)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900-4300 / (직통) 901-2525 / (팩스밀리) 901-2544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디자인·인쇄: 두일디자인 2285-0936
<비매품>

4 April 2010

① 주차_04.01-04.04

- | | | |
|--------------|----------|-------------|
| 1. 대내 ——— 62 | 가. 정치 | 나. 경제 |
| | 다. 사회·문화 | |
| 2. 대외 ——— 66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
| 3. 대남 ——— 67 | | |

④ 주차_04.19-04.25

- | | | |
|---------------|-------|-------------|
| 1. 대내 ——— 100 | 가. 정치 | 나. 경제 |
| | 다. 군사 | 라. 사회·문화 |
| 2. 대외 ——— 107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
| 3. 대남 ——— 109 | | |

② 주차_04.05-04.11

- | | | |
|--------------|-------|-------------|
| 1. 대내 ——— 70 | 가. 정치 | 나. 경제 |
| | 다. 군사 | 라. 사회·문화 |
| 2. 대외 ——— 77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
| 3. 대남 ——— 79 | | |

⑤ 주차_04.26-04.30

- | | | |
|---------------|-------|----------|
| 1. 대내 ——— 114 | 가. 정치 | 나. 경제 |
| | 다. 군사 | 라. 사회·문화 |
| 2. 대외 ——— 121 | 가. | |
| 3. 대남 ——— 123 | | |

③ 주차_04.12-04.18

- | | | |
|--------------|----------|-------|
| 1. 대내 ——— 84 | 가. 정치 | 나. 경제 |
| | 다. 사회·문화 | |
| 2. 대외 ——— 93 | | |
| 3. 대남 ——— 95 | | |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UNIFICATION 월간
북한동향
Review

03.01-03.07

3월
1주차

1. 대내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군사
- 라. 사회·문화

2. 대외

- 가. 일반

3. 대남

1 대내

가. 정치

● 北공안기관, 국경탈북자 가족·화교 단속 강화(3/2, 좋은벗들)

-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방첩기관)와 인민보안성(경찰)이 함경북도, 평안북도, 랑강도 등 국경지역에서 탈북자를 막기 위해 탈북자 가족과 화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대북인권단체 좋은벗들이 전함.

● 北김정일 공개활동 ‘주춤’…연초에 무리했나?(3/2, 연합뉴스)

- 김정일 위원장은 지난 1월 과거 12년간 동월 평균 3배에 육박할 정도로 왕성한 공개활동을 펼쳤음.
- 이에 비해, 2월에 접어들면서는 지난 1월 10차례 방문한 산업시설을 4차례만 방문하였으며, 군부대는 한 차례도 방문하지 않음.

● 北 김정일의 ‘철강사랑’…김책제철소 잇단 시찰(3/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주체철’을 생산하는 함경북도 청진시 소재 김책제철연합기업소를 두 달여 만에 다시 시찰, 이는 김위원장의 3월 들어 첫 공개활동
- 시찰중 김 위원장은 “우리식 용광로에 의한 주체철 생산체계를 확립해 철강재 생산의 물질적, 기술적 토대를 축성한 것은 대단한 성과”라면서 철강재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과업을 제시했다고 통신은 전함.
- 홍석형 함경북도 당 책임비서, 노동당의 김경희(경공업부)·장성택(행정부)부장, 주규창(군수공업부)·리제강(조직지도부)·리재일(선전선동부) 제1부장이 수행

● 北, 남한 탈북자와 통화한 주민 총살(3/5, 열린북한방송)

- 열린북한방송은 4일 북한 소식통을 인용, “1월 말 함흥의 한 군수공장 노동자 정모씨가 자신이 쓰던 중국 휴대전화가 집에서 빌각돼 총살됐다”고 보도
- 방송은 정모씨가 그동한 탈북한 남측의 친구에게 민생소식을 알려준 것을 확인 보도

● 北김정일, 2.8비날론 행사참석…파격행보(3/6, 조선중앙TV)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6일 현대화 공사를 끝내고 16년만에 재가동에 들어간 함경남도 2.8비날론연합기업소 준공 경축 함흥시 군중대회에 참석
- 해마다 김일성·김정일 지시나 당정책 관철 그리고 장거리 로켓 발사 경축 같은 주요 정치적 이슈와 관련해 대규모 군중대회가 열리지만 김 위원장이 직접 참석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
- 조선중앙방송과 조선중앙TV 등 북한 매체는 이날 오후 10만여명의 함흥시민들이 운집한 군중대회에 김 위원장이 참석한 소식을 녹음 및 녹화 중계로 상세히 전함.

■ 김정일동향

- 3/ 4 통일애국투사 리경구에게 80돐 생일상 전달(3/5, 종통)
- 3/ 5 김책제철연합기업소 현지지도(3/5, 종통)
 - ‘주체철’을 생산하는 함경북도 청진시 소재 김책제철연합기업소를 두달여 만에 다시 시찰해 주목
- 3/ 5 제 264대연합부대 예술선전대 공연관람
 - 흥석형(함경북도위 책임비서), 김경희·장성택(당부장), 주규창·이제강·이재일(제1부부장) 등 동행(3/5, 종통)
- 3/ 5 조선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 노동자 성현애, 평양예방약공장 노동자 김재순, 평양시설건설사업소 노동자 박성희 등에게 감사전달(3/5, 종통)

■ 기타 (대내 정치)

- 駐北 독일 대사, ‘북-독 외교관계 설정 9돌’ 기념 연회 개최(3/2, 중방)
 - 박길연(외무성 부상), 오룡철(무역성 부상) 등 참석
- 만포시, ‘김정일 현지지도’ 기념 보고회 개최(3/3, 중방)
 - 김명건(만포시당 책임비서) 참가
- 2012년 자력갱생의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주요과제 강조(3/4, 노동신문)
 - 제국주의자들의 제재봉쇄책동 타파, 경공업부문 기술개선으로 인민생활 향상, 새로운 경제조치사업 강화 등을 포함.
- 김정일, 3월 중순 방중 계획(3/5, 교도통신)

나. 경제

● 대풍그룹, ‘北경제인프라구축 10년계획’ 추진(3/2, 연합뉴스; 뉴캐이)

- 박철수 대풍그룹 총재는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지난달 세운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대풍그룹)과 곧 설립할 예정인 국가개발은행을 통해 국가예산과 별도로 ‘경제인프라구축 10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10년을 내다보고 진행되는 경제기반 구축 계획은 먹는 문제, 철도, 도로, 항만, 전력, 에너지의 6가지 사업을 동시에 밀고나가는 것으로, 국가예산에서 완전히 독립된 프로젝트”라고 말함.
- 박 총재는 위 계획이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는데 집중돼 있으며, 조선은 앞으로도 국가 소유에 기초한 경제운영을 해나갈 것”이라면서 “대풍그룹은 국가예산 외에 국제금융시장을 이용해 국가개발의 목표를 실현 하자는 것으로 자본주의 나라의 여느 회사와 다르다”라고 주장
-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의 관계자는 평양 등 8대 도시를 신경제특구로 지정해 외국자본에 개방할 예정이라고 발표, 평양·라진·청진·김책·신의주·합흥·원산·남포 등이 포함되며 철도와 도로의 확장 역시 추진 중
- 평양의 경우 하이테크 산업을 중심으로 하며 10만 가구 주택 계획

● 北, 화폐개혁 실패 시인(3/2, 교도통신)

- 북한당국은 화폐개혁으로 인해 통화 공급과 재화 분배 과정에 혼란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통지문을 해외 주재 북한 공관에 보냈다고 익명의 외교소식통을 인용하여 보도

● 평양소주 미국 수출길 끊겨(3/2,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평양소주를 팔아온 ‘당씨주류도매’(Tang’s Liquor Wholesales)의 당갑정 대표는 RFA와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호기심 때문에 반짝 인기가 있었는데 맛이 떨어져 주문이 없다보니 1년 전부터 수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함.

● 北, 독자적 컴퓨터 운영체제 ‘붉은별’ 개발(3/2, 연합뉴스)

- 러시아 R-TV방송은, 북한의 IT 전문가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 ‘붉은 별(Red Star)’이라는 이름의 자체 OS를 개발하여 사용한 사례를 소개
- 방송은 설치프로그램과 함께 제공되는 리드미(Readme) 파일에 김 위원장의 이름으로 OS에 대한 중요성이 설명되어 지고 있다고 전함.

● 북한판 윈도 ‘붉은별’… 러 RT-TV 처음 공개(3/3, 연합뉴스)

- 리눅스를 기반으로 해 기술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와는 전혀 다르지만 겉모습과 사용 환경은 윈도와 매우 유사한 특징을 지님.
- 인터넷과 별도로 운영되는 북한의 폐쇄적 네트워크 특성을 반영하듯 기본 검색엔진으로 ‘내나라 BBS’라는 것이 설치되어 있음.
-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에 해당하는 응용프로그램으로 ‘통합사무처리프로그 램 우리’가 있으며 ‘문서처리체계 서광’, ‘선전물’ 등의 프로그램이 떨려있음.

● 北에서 식량 노린 살인, 강도 속출(3/3, NK지식연대)

- NK지식연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8회 생일이었던 지난달 16일 함경북도 부령군 고무산역에 세워져 있던 식량 적재 열차를 둘러싸고 난투극이 벌어져 보안원들과 주변 군부대가 총격 끝에 진압했다고 함경북도 통신원의 전언을 인용해 밝힘.
- 위 단체는 “사건을 목격하거나 전해들은 주민들은 쌀 몇kg 때문에 총까지 쏴 노동자를 죽인 무장대의 행위에 분노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김정일 생일에 벌어진 사건이어서 연루자들이 간단히 처벌받을 것 같지는 않다”고 전함.

● 김정일 방중 목적은 경제지원(3/4, 요미우리)

- 요미우리신문은 3월 중순이후로 예상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의 가장 큰 목적은 경제지원을 받아내는데 있다고 보도
- 실제로 북한은 압록강에 있는 위화도와 황금평 개발권을 중국기업에 넘기는가 하면 4월 하순 지린성 훈춘시와 나선시를 잇는 도로의 정비에도 착공할 예정이라고 북·중 관계자들은 전함.

● 北, 환율·쌀값 또 폭등…한주 사이 100% 이상↑ (3/4, 자유아시아방송(RFA); 데일리NK)

- RFA은 4일 함경북도 주민의 전언을 인용, “3일 현재 청진시 수남 장마당에

서 쌀 1kg이 1천100원으로 갑자기 올랐다”면서 “노란 봄철을 앞두고 쌀값이 자꾸 올라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전함.

- 열린북한방송은 회령지역의 경우 중국 돈 1위안에 대한 암시장 환율이 닷새 반에 3배 이상 급상승했다고 말함.
- 또한 대북 소식통의 전언을 통해 “며지 않아 북한 돈의 가치가 화폐개혁 이전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민들은 북한 신권보다 달러나 위안을 갖고 있으려고 한다”고 전함.

● 평양경제 마비…상점 텅비고 호텔 한산(3/4, 자유아시아방송(RFA))

- RFA는 지난달 말 대북 지원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미국 민간단체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평양시내 시장과 상점이 대부분 닫혀 있고 문을 열어놓은 곳에도 물건이 거의 없었다”, “평양의 경제활동이 마비돼 있었다”등의 평양 상황을 밝힘.

● 北 ‘석탄법’ 제정…외자유치 시사(3/7, 민주조선)

- 북한이 ‘공업의 식량’이라고 주장해온 석탄의 탐사와 공급, 이용 등을 법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6장 76조’로 구성된 ‘석탄법’을 제정
- ‘민주조선’이 5회(1월 20일~2월 12일)에 걸쳐 다룬 ‘석탄법’ 법규해설 시리즈에서 확인
- 앞서 북한은 1993년 4월 ‘지하자원법’을 제정했고 2006년 11월에는 내각에서 ‘중소탄광 개발 및 운영 규정’을 채택
- 특히 국가가 석탄공업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은 물론 “석탄 탐사 및 탄광 개발, 석탄 생산과 이용 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 교류·협조를 발전 시킨다”는 방침도 적시돼 있어 주목

■ 기타 (대내 경제)

- 황해제철연합기업소,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종업원 궐기모임진행(3/2, 중방)
- 김철제철연합기업소,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2월 공업총생산액 초과완수(3/2, 중방)
-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원호식 연속조괴공정’ 현대화 완공, 당 중앙위 감사전달 조업식 진행(3/3, 중방)
 - 흥석형(책임비서), 오수용(내각 부총리)등 참석
- 植樹節, 나무심기 강조(3/2, 노동신문)

- 당·정 간부들, 전국 각지 곁기모임 참가 및 근로자들 참석
- 조선천연기념물도감(3권) 새로 편찬 발간(3/2, 종통)
- 김일성종합대학 생명과학부, 새 '복합기능성 건강식품' 완성(3/3, 종통)
- 국가과학원 대형전자현시판(대형전광판) 개발 도입(3/4, 종방)
- 만경대, 칠골, 금천 남새전문농장 등 봄철 영농지원 농기계 수리정비 완료 및 협동농장 지원(3/4, 평방)
- 산림청, '싸리나무'로 북한 황폐림 복구(3/7, 연합뉴스)

다. 군사

● 北 서해 포사격 김정은이 지휘(3/2, 동아일보)

- 북한 교위 소식통은 올 초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에서 벌인 포사격 훈련은 김정일 위원장의 3남인 김정은이 직접 지휘한 것이라고 밝힘.
- 포사격 훈련은 김정은의 대학졸업논문을 시현해 진행한 것으로 포사격 총지휘관도 김정은이 맡았다고 보도

라. 사회·문화

● 북한군 MDL 넘다 경고사격에 복귀(3/4, 연합뉴스)

- 지난 2일 동부전선으로 북한군 1명이 귀순한 직후 다른 북한군 수명이 이를 추적하고자 군사분계선을 넘었으나 남한군의 경고사격으로 북으로 바로 복귀

● 김일성, 핵공격 대비 초호화 지하빌라 건설(3/5, AP뉴스)

- 오스트리아에서 16년간 잠적했던 북한의 전직 군수담당 정보요원 김종률(75)은 4일 김일성 전 북한 주석의 사치스러운 사생활 폭로 서적을 냄
- 김 씨는 핵무기 공격에도 견뎌낼 수 있는 빌라, 김 전주석의 식습관과 취미 등에 대해 중언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최상급 축구연맹전 1차 경기 진행(3/1, 종통)
- 올림픽 연대성 송구(핸드볼), 체육단 송구 감독 및 청소년, 지도교원 모여 모하메드 벤크레이라(국제송구연맹 강사)의 강습 참가(3/3, 종통)
- 소팽(폴란드)탄생 200돌, 기념 영화 감상회 진행(3/3, 종통)

- 한철(문화성 부상) 駐北 폴란드 대사 등 참가
- 공동구호 관찰… 시, 군 군중대회, 전국 각지에서 진행(3/4, 중방)
- 2010 아시아축구연맹 도전자컵 경기 우승 북 대표단 귀국(3/4, 평방)
- 北 여성 ‘문신 스타킹’ 유행(3/5, RFA)
- IOC, 北밴쿠버올림픽 참가에 11만5천달러 지원(3/7, RFA)

2 대외

● 北, 북미 직접대화 거듭 요구(3/3, 로이터통신)

- 전용룡 제네바 주재 북한 유엔대표부 1등서기관은 제네바 군축회의에 참석, “한반도 핵문제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산물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북한과 미국이 해결해야 한다”면서 한국의 6자회담 복귀 요구를 일축
- 또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중단 없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허황된 꿈”이라고 덧붙임.

● 北 ‘아리랑’팀, 베트남 집단공연 지원(3/5, 연합뉴스)

- 북한의 ‘아리랑’ 공연지도단 선발팀이 오는 10월 10일로 예정된 하노이 정도 1천년 기념 공연을 자문하기 위해 최근 베트남에 입국했다고 사이공 티앤티지 인터넷판이 보도

■ 기타 (대외)

- 北김영일, 中동북서 잇단 ‘경협 행보(3/1, 연합뉴스)
 - 라오닝 이어 지린 방문..압록강·두만강 합작개발 논의
- 김영남, 알제리 대통령 73회 생일 및 리비아 공동체선포 33돌 즈음 해당국 대통령에게 각각 축전(3/1, 종통)
- 김영남·박의춘, 2.28 칠레 강진피해 관련 대통령, 외무상에게 위문전문(3/1, 종통)
- 미국의 MD수립 박차에 전쟁억제력 강화의 필요성 역설(3/2, 노동신문)
- 일본의 재일조선학교 정부지원 배제 움직임에 대한 맹비난(3/3, 노동신문)
- 벤쿠버 동계올림픽(2.12-2.28) 80여개국 2,600명의 선수들 참가(3/4, 중방)
- 일, 하토야마 정권은 과거 대결론의 연속…새로운 북·일관계 개선을 위한 일본의 결단 촉구(3/4, 조선신보)
-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제정은 국제법에 배치, 과거 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 촉구(3/4, 조선신보)

노동신문)

- 리혁철 주에리트리아 대사, 2/20 동국 대통령에게 신임장 봉정(3/4, 평방)

3 대남

● 北매체, 3.1절 맞아 남북협력 촉구(3/1, 조선중앙통신)

- 북한 언론매체들은 1일 3.1절을 맞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기초한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을 강조
- 이명박 대통령이 작년 9월 제안한 북핵 해법이자 이번 3.1절 기념사에도 담은 대북 메시지 키워드인 ‘그랜드 바겐’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음.
- 노동신문은 이날 1면에 제재한 ‘자주화의 가치높이 조국통일위업을 다그치자’라는 제목의 3.1절 기념사설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정신에 따라 외세를 배격하면서 온 민족의 힘을 합쳐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확고부동하다”고 전함.
-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도 ‘반외세자주정신으로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자’라는 기념 글에서 “우리 민족끼리 이념을 핵으로 하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우리 당의 조국통일사상과 선군정치의 빛나는 결실”이라며 공동 선언 이행을 촉구

● 北, 금강산·개성관광 막으면 사업계약 파기(3/4, 조선중앙통신)

- 아태평화위 대변인은 “국내외에서 금강산과 개성 지구 관광요청이 증대되고 있는 조건에서 세계적인 관광 명승지들을 방치해 둘 수 없다”면서 “이미 천 명한대로 3월부터 개성지구 관광, 4월부터는 금강산 관광의 문을 열어놓을 것이며, 관광을 위해 우리측 지역에 들어오는 남녘 동포들의 편의와 신변안전은 완벽히 보장될 것”이라고 강변
- 반면, 관광이 재개되지 못해 초래되는 문제의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 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 덧붙임.
- 또한 남한 정부가 주장하는 ‘3대 조건’에 있어서는 이미 현대그룹 회장의 평양 방문 기회에 최고수준에서 답보해줬으며, 이번 실무회담 당국선에서도 거듭 확답하였음.

● 北, ‘키리졸브’ 비난…비핵화 중단될 것(3/7, 조선중앙통신)

- 북한 인민군이 8일부터 시작되는 ‘키 리졸브(Key Resolve)’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을 비난하며 비핵화 중단과 남북·북미 간 군사대화 단절을 선언
- 북한군은 7일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이번 연습의 성격 자체가 핵전쟁 연습, 북침전쟁 연습인 만큼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과정은 부득불 중단될 것이며 우리의 자위적 핵 억제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이 성명은 이어 “합동 군사연습을 구실로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위협하는 미국의 핵 공격 수단에 우리 혁명 무력의 핵 억제력으로 대응하는 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자위적 권리”라면서 “우리 혁명무력은 더 이상 정전협정과 북남 불가침 합의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

● 남북 노동단체, 5월 서울서 통일행사 추진(3/7, 조선중앙통신)

- “북남 노동자 단체 사이의 접촉이 5일부터 6일까지 중국 선양에서 진행됐다”며 “북과 남의 노동자 단체들은 120돌을 맞는 전 세계 근로자들의 국제적 명절 5.1절에 남측 지역에서 북남 노동자 통일행사를 성대히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
- 또 “5.1절 통일 행사와 북남 노동자들의 연대 운동을 강화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북과 남의 노동자 단체들 사이의 접촉을 평양에서 진행하며 올해 부문별, 산별 단체들 사이의 다양한 연대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힘.
-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대표단은 5~6일 중국 선양에서 북한 조선직업총동맹(직총) 관계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밝힘.

■ 기타 (대남)

- 국회 외통위 ‘북인권법’통과에 대한 강한 비난(3/2, 노동신문)
- ‘3통 문제협의를 위한 남북 실무접촉’ 진행(3/3, 중통)
 - 남측은 북남관계 발전과 개성공단 활성화에 부정적 장애를 조성
- 남 정부의 친미, 친일 외교정책은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해친 반역(3/3, 평방)
- 범민련, 재미본부의 2010년 연차회의(2.27, LA) 개최소식 및 재중조선인총연합회의 잡지 ‘백두한라’ 2월호 발간소식 보도(3/4, 중통)
- 북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대변인…3월 개성지구관광, 4월 금강산 관광개방 재개에 대해

남측이 불허할 경우 관광사업과련 모든 합의, 계약 파기 언급(3/4, 중통)

- 조평통 대변인 기자회견, 남 NK지식연대의 '북 식량강탈사건'보도는 날조된 모략극(3/4, 중통)

- 남 통일부장관의 통일부 창설 41주년 기념연설 비난(3/4, 노동신문)

- 6.15남측위, 공동 회의차 방북(3/7, 중통)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표단(단장: 김상근 상임대표)이 6.15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
외 위원장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6일 평양을 방문했다고 보도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월간

03.08-03.14

3월

2주차

1. 대내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군사
- 라. 사회·문화

2. 대외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1 대내

가. 정치

● 北, 中 동북지방에 해외반탐요원 증파(3/13, 자유아시아방송(RFA))

- 작년 11월 화폐개혁 이후 민심이 악화된 가운데 북한이 중국의 동북지방에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해외반탐(방첩)요원을 대폭 증파

● 北, 김정은 초상화 배포 준비(3/13, RENK)

- 북한 당국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내정된 셋째 아들 김정은의 초상화를 조만간 배포할 예정이라고 일본에 있는 대북인권단체 ‘구출하자 북한 민중, 긴급행동 네트워크’(RENK 대표 이영화)가 13일 밝힘.
- 이는 이달 초부터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의 지시로 준비되었으며, “이런 움직임은 김정은을 후계자로 정했다는 사실을 조만간 공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 평양에 ‘김정은 상징’ 선전화 등장?(3/14,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4일 최근 북한을 방문한 한 외국인으로부터 평양 사진 3장을 제공받음. 사진 속에 등장한 선전포스터에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내정된 셋째 아들 김정은의 치적으로 선전되는 소재들이 담겨 주목됨.

■ 김정일동향

- 3/8 김일성의 김책공업종합대학 현지지도 50돐 기념보고회(3/9, 중방)
- 3/11 김정일, 희천시내(자강도) 공장들 현지지도(3/11, 중통)
 - 칠성전기공장, 희천도자기공장, 희천공작기계종합공장, 금수골혁명사적지 방문
 - 박도준(자강도당 책임비서), 김경희·장성택(당부장), 주규창·리제강·리재일(당 제1부부장) 등 동행
- 3/11 김정일, 김일성종합대학 연구사 은종석과 노병들인 김윤식·이춘기에게 생일상 전달 (3/11, 중방)
- 3/13 황해북도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현지지도(3/13, 중통)
 - 유기농법 강조, 최룡해 황해북도 당 책임비서와 김경희·장성택 당부장, 리제강·리재일 당 제1부부장이 동행

■ 기타 (대내 정치)

- 국제부녀절 100돌 기념 중앙보고회, 인민문화궁에서 진행(3/8, 중방)
 - 김영남, 김종린(당비서), 박명선(내각부총리), 노성실(여맹위원장) 등 참가
- 김영남, 駐北 中國 신임대사 '류홍재'에게 신임장 접수 및 담화(3/8, 중방)
- 양형섭(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3.11 만수대의사당에서 노르웨이 적십자사 대표단과 담화(3/11, 중통)
- 駐北 쿠바대사관, 외교관계설정 50돐 즈음 상품전시회 및 영화감상회 진행(3/11, 중통)
- 러시아 차이코프스키명칭 모스크바국립음악대학대표단, 평양도착(3/11, 중통)
- 예성강 청년 2호발전소, 4호 물길굴 완공(3/12, 중방)
- 전 북한 정보기관원 김정률 씨 전화인터뷰(3/13, 연합뉴스)
 - 오스트리아에서 20년간 북한의 군수담당 정보기관원으로 활동, 하루 5천400원으로 생활 등

나. 경제

● 北, 라선 완전 개방설(3/8, 조선중앙통신; 산케이)

- 북한이 동북부 교역도시인 라선시를 외국 기업에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보도
- 일본의 대북인권단체 '구출하자 북한 민중, 긴급행동 네트워크'(RENK)의 북한 내부 소식통이 라선의 조선노동당 간부로부터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장성택 조선노동당 행정부장은 이달 라선을 방문, "6개월 후에 이곳을 완전히 개방하겠다"고 선언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매제인 장 부장은 사실상 북한의 '2인자'로 지목되는 인물임.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일 위원장은 경제자유무역지대 지정 후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라선시를 시찰한 뒤 "대외활동을 진공적으로 벌여 대외시장을 끊임없이 넓혀가야 한다"고 강조

● 중, 北라진항 10년 사용권 얻어(3/8, 연합뉴스)

- 중국 지린(吉林)성이 10년간 북한 라진항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고 반관영통신사인 중국신문사가 보도
- 리룽시(李龍熙)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주 당위원회 부서기는 7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개하면서, 이로써 지린성의 대외물류 길이 열렸다고 밝힘.

- 중국은 두만강 하구와 인접한 라진항을 자국의 낙후된 동북 3성이 태평양으로 뻗어갈 수 있는 경제전략적 요충지로 주목해 옴.
- 러시아도 라진항이 북·중 간에 국제물류기지로 개발되면 사할린과 시베리아 산 원유 및 천연가스를 라진항으로 보내 주변국으로 판매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북한의 외자유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조선대풍국제그룹의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24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북측이 두만강 개발계획을 축으로 국제투자를 유치할 복안을 갖고 있다”며 “차후 라선특별시와 청진항을 잇는 일대가 북한-중국-러시아를 잇는 동북아물류, 교역의 중심지로 개발될 것”이라고 밝힘.

● 中, 신압록강 대교 10월 착공 확인(3/8, 연합뉴스)

-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인 자오롄성(趙連生) 단둥시장은 7일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丹東)을 잇는 신 압록강 대교가 오는 10월 착공된다”고 밝히며, “신 압록강 대교를 3년안에 완공하기 위해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언급
- 중국은 작년 10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방북시 북한 측과 압록강 대교 건설이 포함된 양측간 경제기술 협작 협정서를 체결했음.
- 랴오닝(遼寧)성 사회과학원 루 차오 연구원은 신 압록강 대교는 기존의 압록강 대교에서 하류로 10km떨어진 곳에 건설되며 동벤다오(東邊道)를 거쳐 시베리아 횡단 철도로 연결될 것이며 동북아의 주요 국가들을 잇는 철도가 될 것이라고 덧붙임.

● 北, 中·러에 라진항 개방(3/8, 연합뉴스)

- 북한이 중국에 라진항을 10년간 추가개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데 이어 이어 러시아에도 신규로 50년 사용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
- 실제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해 7월 라진-하싼 철도복원과 라진항 개선에 합의하고 같은 해 말 1억4천만 유로를 출자키로 한 것으로 알려짐.

● 北, 담배 재수출로 달러벌이(3/9,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즈(FT))

- 북한은 영국의 담배 제조업체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로부터 수입

한 담배를 지난해 2월 재수출하기 시작해 온 것으로 확인

- BAT가 북한에 판매한 담배는 ‘스테이트 익스프레스 555’로, 싱가포르에서 북한 국내용인 ‘NK 555’로 포장돼 북한 남포항까지 운송된 것으로 확인
- FT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이 가운데 최소 1만5천갑(630만달러 상당)이 남포항을 다시 빠져나와 베트남과 필리핀의 항구로 유입된 것으로 확인

● 北, 국가개발은행 출범…이사장에 전일춘(3/10,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평양 양각도국제호텔에서 열린 ‘국가개발은행 이사회’ 제1차 회의에서 “국방위원회 결정 ‘국가개발은행을 설립함에 대하여’가 전달됐고, 국방위원회 대표 전일춘을 국가개발은행 이사회 이사장으로, 재중동포 박철수를 부이사장으로 선거했다”고 밝힘.
- 또한 “국가개발은행은 국제금융기구, 국제상업은행들과 거래할 수 있는 현대적 금융규범과 체계를 갖추고 국가정책에 따르는 중요 대상들에 대한 투자업무와 함께 상업은행의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적인 금융기관으로 활동하게 된다”고 밝힘.
- 이사회에서 선임된 전일춘 이사장은 노동당의 외화관리 및 김정일 위원장과 그 가족의 개인자금 및 물자 관리를 전담하는 39호실장으로 김정일 국방위원회의 남산고급중학교 동창생으로 알려짐.

● 北, 신제품 담배 ‘내고향’ 개발(3/14, 연합뉴스)

- 연합뉴스가 14일 중국에서 입수한 이 담배는 북한이 최근 개발, 시제품으로 출시했으나 아직 북한에서도 시중에서는 유통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짐.

■ 기타 (대내 경제)

- 중국과 합작으로 ‘전기자동차 개발사업’ 추진, 이달 중 공동실험예정(3/11, 조선신보)
- KDI, ‘작년 북한 대외무역 11년만에 감소’ 발표(3/10, 연합뉴스)
- 北, 미국인 관광비용 인하(3/13, RFA)

다. 군사

● 군사대국화책동의 본격화(3/8,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日 자위대와 駐日美軍의 공동훈련, C-130 수송기 배비 등 일본의 군사책동이 본토방어형에서 해외공격형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日 군사적 움직임에 대한 경각성 강조

● 北, 美증원군 겨냥 중거리미사일 사단 창설(3/9, 연합뉴스)

- 북한이 사거리 3천km 이상의 신형 중거리미사일(IRBM)을 실전 배치한 데 이어 ‘신형 IRBM 사단’을 별도로 창설한 것으로 확인됨.
- 북한은 1990년대 말부터 3천km 이상의 신형 IRBM 개발에 착수해 지난 2007년 이를 실전 배치하였으며, 이 미사일은 주일 미군기지 뿐 아니라 괌까지도 사정권에 두고 있다고 확인됨.

라. 사회·문화

● 北, 인플레 극심…물건값 싼 ‘국영상점’ 인기(3/10, 좋은벗들)

- 화폐개혁 이후 북한에서 ‘살인적인’ 인플레가 계속되자 국정가격으로 상품을 파는 국영상점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대북인권단체 좋은벗들이 전함.
- 이 단체는 소식지를 통해 “평양 제1백화점에서 가루비누, 담배, 과자류 등을 국정가격에 한정판매하고 있는데 치솟는 시장물가를 감당할 수 없는 평양 주민들이 이 백화점으로 몰리고 있다”고 전함.
- 좋은벗들은 “현재 북한의 민심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면서 “도 단위 기관의 간부들은 현 국면을 헤쳐나가려면 중국에 손을 내미는 방법밖에 없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고 덧붙임.

● 월드컵의 해…北에도 축구시즌 활짝(3/10, 조선신보)

- 북한의 ‘최상급 축구연맹전’이 지난달 개막해 6개월간의 열전에 돌입함.
- 조선신보는 10일 “평양의 김일성경기장에서 2월 20일부터 국내 최상급 축구연맹전 1차 경기가 벌어졌다”면서 “모든 선수들이 올해 첫 경기부터 겨울철 훈련 기간 연마해온 육체기술적, 전술적 능력을 납김없이 발휘하고 있다”고 전함.

● 신의주서 2월까지 아사자 300명 발생(3/11, 좋은벗들)

- 좋은벗들은 소식지에서 “신의주 시당 조사에 따르면 2월 20일 현재 약 300명의 아사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고, 식량이 없어 당장 굶어죽게 된 집도 약 1천여 세대에 이른다”며 “2월 들어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 둘 죽어 나가고 있다”고 전함.
- 신의주시당의 한 간부는 “고난의 행군 시절(1990년대 중·후반)에도 굶어죽는 사람이 없었던 신의주에서 300명이 죽었다는 것은 전국 상황이 돌아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주장했다고 이 단체는 전함.

● 美단체, 대북 지원 고민…엉뚱한 곳에 배분(3/12,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을 지원하는 미국 민간단체들이 지원품 제대로 배포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계속 지원할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RFA이 보도
- 북한에 식량과 의약품을 지원해온 한 민간단체 대표는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당국이 민간단체의 모니터링을 불쾌해하고 지원 물품을 다른 지역에 임의로 배분하려 해 계속 지원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함.
- 다른 민간단체의 관계자도 “지난해 말 다른 곳에 유통될 것을 염려해 평범한 옷을 보냈더니 북한 측이 화사하고 예쁜 그림이 그려진 옷을 요구했다”며 “당이나 다른 곳으로 배분될 가능성이 염려스럽다”고 토로함.
- 이 관계자는 “최근 화폐개혁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북한 측이 과거보다 더 많은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그러면서도 북한은 분배의 투명성을 확보하려 하지 않고 지원 물품에 대한 임의 배분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임.

● 비엣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보고(3/13, 연합뉴스)

- 15일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서 심의될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통해 “북한 인권상황은 다양한 특수성과 이례성 등을 감안할 때 ‘독특하다(sui generis)’라고 표현할 수 있다”며 “비참하고도 끔찍한 인권 침해 사례가 많다”고 말함.
- 또한 “비민주적이고, 사실상 전체주의적인 성격을 지닌 북한 정권이 엘리트 계층에 속하지 못한 일반 대중에게는 ‘공포국가’ 또는 ‘거대한 감옥으로서의 국가’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

기타 (대내 사회·문화)

- 제 17차 전국 여명예술축전, 3/7~3/9 평양대극장에서 진행(3/10, 종통)
- '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 즈음 적십자 봄철나무심기 행사, 태천군안흥리에서 진행(3/10, 종통)
- 4.25예술영화촬영소, 3/11예술영화 '내가 사는 가정' 시사회 대동문화회관에서 진행(3/11, 종통)
 - 당·국가 간부들, 우당위원장들, 성·중앙기관 일꾼들 등 영화감상
- 미 국무부, '2009년 인권보고서' 발표, 북한 인권상황 공개(3/12, 연합뉴스)

2 대외

가. 일반

● 키신저, 美, 북핵 동결만으로는 불충분(3/11, 연합뉴스)

-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서울 신문로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북핵문제 와 동북아시아’를 주제로 한 특별 강연에서, “핵 동결은 현재 핵 능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고, 기술적인 문제도 남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는 동결로는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힘.
- 또한 “(북미) 양자회담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만약 양자 회담을 통해서 6자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면 괜찮지만, (북핵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이 단독으로 해결할 문제도 아니다”라고 지적함.
- 북핵 해결책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강화하더라도 그와 더불어서 협상을 계속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 엘바라데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3/12, 연합뉴스)

-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명예 사무총장은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세계 원자력 정상회의’ 폐막식 직후 기자 간담회를 갖고 “북한이 핵실험을 했고 핵기폭장치를 보유한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의 핵보유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내 판단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함.
- 또 북핵 문제의 해결과 관련, “압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압력, 압박은 오래 지속되지 않고 6자회담을 빨리 재개해야 (핵문제 해결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주장

■ 기타 (대외)

- 노르웨이 적십자사 대표단(단장: 브렌데), 3/9 방북(3/9, 중통)
- 김영남, 3/9 토고 대통령 『포르 에쏘침나 그나씽그베』 재선 축전(3/10, 중통)
- 김영남, 3/11 칠레 공화국 대통령에게 就任 관련 축전(3/11, 중통)
- 北 외무성 대표단(단장: 궁석웅 부상), 러시아 방문 후 귀국(3/11, 평방)
- 駐적도기네 北대사, 3/5 적도기네 민주당 총비서를 만나 조선노동당과 인민의 투쟁에 언제나 지지와 연대성을 보내줄 것을 강조(3/12, 중통)
- 러 APEC 건설현장 北노동력 대거 투입(3/12, 연합뉴스)
 - 지난해 북한에 6천명분 노동비자 내줘

나. 6자회담(북핵)

● 김정일 최측근 ‘리철’ 제네바 대사 곧 이임(3/10, 연합뉴스)

- 스위스 베른의 한 외교 관계자는 “리 대사가 이임하는 것은 거의 확정적인 것 같다”며 “다만 이임 시기가 수주일 내가 될지, 1~2개월 정도 더 걸릴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고 전함.
- 리 대사는 1980년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 공사로 부임하며 제네바와 첫 인연을 맺었고, 북한이 유엔에 가입하기 전인 1987년부터 제네바 UN사무국 주재 상임대표부 대사로 활동했으며 1998년부터는 주 스위스 대사를 겸임해 왔음.
- 김정일 위원장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소개돼 온 리 대사는 비자금과 자녀, 건강 등 가장 중요한 3가지를 챙기는 데 핵심 역할을 한 인물로 김정일 위원장의 ‘측근 중의 측근’으로 알려짐.

● 美법원, 北박의춘 외무상에 소환장(3/10, 미국의 소리(VOA))

- 미국 법원이 김동식 목사 납북 사건과 레바논 무장세력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한 북한의 개입 의혹과 관련, 지난 1월 북한 박의춘 외무상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VOA 방송이 10일 보도
- 방송은 김 목사의 아들 한 씨와 남동생 용석 씨가 지난해 4월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이 법원이 지난 1월14일 북한 정부를 대표하는 박 외무상 앞으로 소환장과 소장을 발송했다고 전함.
- 김 목사의 가족은 소장에서 “미국 영주권자인 김 목사가 중국에서 탈북자를

돕다가 2000년 1월 16일 북한 기관원들에게 납치된 뒤 수용소에 수감돼 가혹한 고문과 굶주림으로 사망했다”며 손해배상금과 소송 비용을 청구했다고 방송은 전함.

● 전 北기관원 김종률 씨 ‘한국망명 거부당해’(3/12, 연합뉴스)

- 오스트리아에서 20년 간 북한의 군수담당 정보기관으로 활동했던 김종률(75) 씨는 한국으로 망명하려 했으나 한국 측의 거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밝힘.
- 잠적 전까지 빈을 중심으로 유럽 전역에서 20년 간 활동하며 북한에 필요한 군수·산업용품과 건축자재 등을 구입해 북한으로 보냈던 김 씨는 지난 4일 빈에서 ‘독재자에게 봉사하며(Im Dienst des Diktators)’라는 제목의 독일어판 자서전을 출간, 김일성 주석의 사생활을 폭로한 뒤 오스트리아에 망명을 신청함.
- 그는 “당시 북한군 대좌로 호위사령부 제1국(행사조직국) 경비운수부 기술담당 부부장이었으며, 오스트리아에서는 조선기계수출입상사 부사장 등의 직함으로 활동했다”고 함.

3 대남

● 北최고사령부, 키리졸브에 전투동원태세 명령(3/8, 조선중앙통신)

-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8일부터 시작되는 ‘키리졸브’ 한미합동군사연습에 대해 “조선 인민군 육·해·공군 부대들은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라”는 명령을 하달
-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이날 ‘보도’ 형식의 발표를 통해 “전연(전방)과 해안, 대공 감시근무를 수행하는 인민군 장병들은 선제타격을 노리는 침략자들의 그 어떤 도발책동도 일격에 격파분쇄할 수 있도록 조국의 전초선을 믿음직하게 지킬 것”이라고 지시
- 북한은 작년 3월에도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연습이 시작되자 군 최고사령부 보도를 내고 “전투준비태세를 갖출 것”을 명령했고, 8월 을지프리덤가디

언(UFL) 군사연습 때도 최고사령부 명령을 통해 ‘전군·전민·전국 특별경계 태세’를 지시한 바 있음.

● 반역정권에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3/8,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南 지방자치단체 선거는 “韓-美 FTA, 세종시 수정안 등 인민들을 기만하는 반역정권에 대해 준엄한 심판장이 될 것”이라고 비난

● 北, 키리졸브 또 비난…‘핵억제력 계속 강화’(3/9,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은 8일부터 시작된 한미 양국의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거론하면서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핵억제력은 계속 강화될 것”이라고 재차 밝힘.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공화국 정부가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중대 제안을 내놓은 때 대규모 전쟁 연습을 강행해 나선 것은 엄중한 도발”이라며 “이것은 조선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에 친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주장
- 이어 “군사적 위협과 경제 제재는 평등한 대화와 양립될 수 없고 비핵화와는 더욱이 양립될 수 없다”면서 “조선반도에서 평화협정 없이 군사적 대결이 해소될 수 없고 군사적 대결의 해소가 없이는 비핵화도 실현될 수 없다”고 덧붙임.

● 北통신, 6.15공동행사 성대 개최 합의(3/9, 조선중앙통신)

-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7~8일 평양에서 남·북·해외위원장 회의를 열고 올해 6.15공동선언 10주년 공동행사를 성대히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
- 통신은 6.15공동행사로 기본대회, 사진전시회, 부문별 상봉, 예술공연 등을 개최하고 지역별로도 실정에 맞게 다양한 행사를 가지며 행사를 위해 각각 행사준비위원회를 조직하기로 했다고 전함.
- 안경호 북측 위원장, 김상근 상임대표를 단장으로 한 남측위원회 대표단, 곽동의 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해외측위원회 대표단이 참석함.

● 北신문, 李대통령 3.1절기념사 뒤늦게 비난(3/11, 조선중앙통신)

-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이 11일 이명박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통신에 따르면 이 신문은 ‘북남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행위’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당국자(이 대통령 지칭)가 3.1절 기념사를 통해 ‘북한은 행동으로 국제사회에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며 남을 걸고 주제넘게 놀았다”고 밝힘.
- 신문은 또한 “남북이 북핵이라는 장벽을 넘어서야 새로운 협력의 물꼬가 활짝 트일 것”이라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핵 문제를 북남관계 문제와 뒤섞어 놓아 남조선 인민들 속에 동족에 대한 불신감, 적대감을 주입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고,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대화와 재재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 발언에 대해서는 “미국과 야합해 동족을 해치려 하고 있다”고 비판함.

03.15-03.21

3월
3주차

1. 대내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군사
- 라. 사회·문화

2. 대외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1 대내

가. 정치

● 北 관료들도 상황 심각하게 인식(3/16, 연합뉴스)

- 중국 단둥(丹東)의 대북 무역상들은 16일 “최근 중국에 출장 오는 북한 관료들이 한결같이 ‘화폐 개혁 이후 경제 사정이 심각하다’고 토로한다”고 밝힘.
- 단둥을 방문한 북한 관료는 “가장 큰 문제는 투기꾼들이 식량을 감추는 것”이라며 “이들이 숨겨놓고 풀지 않는 식량이 100만t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고 무역상은 전함.

● 평양 행정구역 개편…작아졌다(3/16, 연합뉴스)

- 일본의 대북인권단체 ‘구출하자 북한 민중, 긴급행동 네트워크’(RENK.대표 이영화)는 16일 북한이 최근 평양시 남쪽의 행정구역 4곳을 제외하고 서쪽의 행정구역 1곳을 포함해 결과적으로 평양 크기를 줄였다고 주장
- 이 단체의 북한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말 평안남도 남포시 천리마구역을 평양에 편입하는 대신 평양시 승호구역 승호리, 중화군, 상원군, 강남군 등 4곳을 황해북도에 포함했다는 것임.

● 北박남기 총살당해…화폐개혁 책임(3/18, 연합뉴스; 자유북한방송)

- 대북소식통은 18일 “북한 당국이 지난주 평양시 순안구역의 한 사격장에서 박 전 부장을 총살했다”며 “화폐개혁의 실패로 민심이 악화되고 김정은 후계 체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자 모든 책임을 박 전 부장에게 씌워 반혁명분자로 처형했다”고 연합뉴스에 밝힘.
- 박 전 부장의 경우 지난 1월 중순 중앙당 간부 전원이 모여 자아비판과 상호 비판을 하는 ‘중앙당 대논쟁’ 자리에서 호된 비판을 받은 뒤 곧바로 구속돼 국가안전보위부의 취조를 받은 것으로 알려짐.
- ‘자유북한방송’도 이날 “화폐개혁을 주도한 박남기 전 부장이 이달 초 모든 책임을 지고 총살됐다는 소문이 평양에서 나돌기 시작해 지방으로 퍼지고 있다”고 전함.

● 北, 내달 9일 최고인민회의 12기 2차회의(3/20, 조선중앙통신)

-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2차회의가 내달 9일 평양에서 열린다고 보도
- 작년 3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을 선출한 뒤 다음달 1차 회의를 열어 국방위원장은 '최고영도자'로 규정하고 국방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헌법을 개정했으며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에 재추대하고 국방위원회 구성원을 늘리는 등 김정일 3기 통치시대를 열었음.
- 이번 2차 회의 안건을 밝히지 않았지만 매년 3~4월 열리는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에서 전년도 예산을 결산하고 새해 예산을 편성했던 만큼 이번 회의에서도 예산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 또한 국방위원회나 내각 등 조직·인사 정비 등의 의제도 다룰 것으로 보임.

■ 김정일동향

- 3/17 러시아 대통령 등에게 자신의 생일 축전에 대한 답전 발송(3/17, 중방)

■ 기타 (대내 정치)

- '제 12차 김일성화축전', 4월 중순부터 평양에서 진행 예정(3/15, 종통)
- 북한은 억류중인 미국인에 대해 평양주재 스웨덴 대사관을 통한 영사적 접근을 허용하겠다고 밝힘(3/16, 연합뉴스)
-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 3.16 이태남(平南道黨 책임비서) 등 참가下 김정일 현지지도 기념보고회 진행(3/17, 중방)
- 러 극동서 탈북자 잇단 망명신청(3/21, 연합뉴스)
 - 올들어 블라디보스토크서 2건 발생
- 北최고인민회의, 경제·외자유치 중점 논의할 듯(3/20, 연합뉴스)

나. 경제

● 北, 외화사용 다시 허용(3/15, NHK)

- 북한이 지난해 화폐개혁의 후속조치로 금지했던 외화 교환을 최근 다시 허용했다고 NHK가 15일 '평양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
- 방송은 최근 북한에서 시민들이 외화를 북한 원화로 바꾼 뒤 상품대금을 지불하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다고 전함.

- 북한은 지난해 11월 북한 원화 신·구권을 100대 1로 교환하는 화폐개혁을 실시하면서 중국의 위안화나 달러화 등 외화를 사용할 수 없게 했음.

● 北화폐개혁 후 평양 쌀값 '59배'로 올라(3/15, 데일리NK)

- 지난 8일 현재 평양의 쌀값은 kg당 1천300원(구권 13만원 해당)으로 화폐개혁 직전인 작년 11월22일의 2천200원(구권 기준)과 비교하면 59배로 뛰었다고 전함.
- 같은 기간 서부 국경의 신의주와 동북 국경의 혜산에서도 비슷한 등급세를 보임.
- 데일리NK관계자는 “북한의 장마당(시장) 물가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작년 8월부터 평양, 신의주, 혜산 세 도시의 쌀값을 모니터해왔다”면서 “1월 말 400원선까지 오른 쌀값이 2월 초 장마당 통제가 풀리면서 한때 주춤했으나 신권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서 2월 하순부터 다시 급등했다”고 전함.

● 北, 외자유치 총동원령…룡악산 지도총국 신설(3/15, 연합뉴스)

- 북한이 전방위적인 해외 투자자 모집을 지시하는 등 ‘외자 유치 총동원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짐.
- 중국 베이징과 단둥의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 산하에 외자 유치 전담 기구인 ‘룡악산 지도총국’을 신설함.
- 룽악산 지도총국 산하 집행기관인 ‘령봉경제련합회’가 신설, 이미 베이징 등에서 외자 유치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대북 소식통들은 전함.

● 北휴대전화사업자, 작년 매출 2천600만 달러(3/16, 자유아시아방송(RFA))

- 이집트 통신회사인 오라스콤은 ‘자사 75 대 북한 25’ 비율로 투자해 설립한 ‘고려링크’를 통해 2008년 12월 평양에서 휴대전화 서비스를 시작
- 오라스콤의 ‘2009년 실적보고서’를 인용, 오라스콤이 북한에서 미화 2천 6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고 보도
- 오라스콤은 “현재 153개 기지국을 이용해 평양, 평성, 안주, 개천, 남포, 사리원, 해주 7개 도시와 8개 공공도로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힘.

● 조총련, 평양서 식당 운영 계획(3/17, 도쿄신문)

-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인민생활 향상’ 방침에 호응, 평양에서 식당 3곳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보도
- 이들은 자강도 희천(熙川)수력발전소 건설 근로자들에게 돼지고기 100t을 보내기 위해 전국 활동가 1인당 1만5천엔(약 19만원) 이상을 모을 예정이라고 전함.
- 김정일 위원장은 지난해 3월과 9월에 이어 올해 1월4일에도 희천수력발전소를 시찰하는 등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英주재 北대사 “화폐개혁 혼란 수습됐다”(3/18, 연합뉴스)

- 유럽연합(EU) 주재 대표부 대사를 겸임하는 자성남 주(駐) 영국 북한 대사는 18일 브뤼셀을 방문,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 회의에 출석한 뒤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화폐개혁 시행 초기에 혼란이 없지 않았으나 지금은 다 수습됐다”고 말함.
- 자 대사는 “화폐개혁은 인민(주민)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당한 목적으로 시행된 조치로서 초기의 혼란이 안정돼 잘 되고 있다”라고 강조

● 中 최초 北관광 전용열차 ‘예약 완료’(3/21, 연합뉴스)

- 중국에서 처음 등장한 북한 관광 전용열차가 모집 정원을 모두 채우는 등 기대 이상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절강재선 등 현지언론들이 보도
- 언론들은 저장(浙江)성 중국여행사가 다음 달 20일 첫 운행에 나서는 북한 관광 전용열차가 이미 모집 정원 600여 명을 채웠다고 소개
- 이 북한 관광 전용 열차는 저장성 항저우(杭州)에서 출발, 허베이(河北)성 베이다이허(北戴河)와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 단둥(丹東) 등을 거쳐 북한 신의주까지 운행, 신의주에서는 북한 열차로 갈아타고 평양 등을 관광

● 北 ‘번영하는 평양’ 주제로 上海박람회 참가(3/21, 연합뉴스)

- 리성운 북한(조선)상공회의소 부소장은 지난 18일 평양 주재 중국 신화통신 특파원과 인터뷰를 하고 “상하이 엑스포에 설치될 ‘조선관’ 건설 등 엑스포 참가 준비가 마무리 단계이며 조만간 시운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중국 동포 매체인 조글로 미디어가 21일 보도

- “강성대국 건설에 나선 조선 인민의 정신과 풍모를 반영하면서 ‘공원 속의 도시 평양’의 면모를 세계 만방에 널리 알리겠습니다.”라고 함.

● 北 휴대전화 사용자 12만명(3/21, 연합뉴스)

- 2004년 발생한 용천역 폭발사고 이후 금지했던 일반인 휴대전화 서비스가 지난해 3월에 다시 허가됐으며 현재 사용인구가 12만명에 이른다고 홍콩 봉황망(鳳凰網)이 중경만보(重慶晚報)를 인용해 21일 보도

■ 기타 (대내 경제)

- 北 전국 협동농장들, 모판만들기·흙보산·유기질복합비료 생산 본격화 및 알곡증산을 위한 우량 종자확보사업 마무리 단계 돌입(3/16, 조선신보)
- 北 평양시 만경대피복공장, 1/4분기 생산계획 110% 초과 수행(3/16, 중방)
- 北 생산가능인구 비중, 10년후 南 추월(3/21, 연합뉴스)
 - 현대경제연구원, 21일 ‘남북한 인구구조의 특성’ 보고서에서 국제연합(UN)이 지난해 발표한 세계 인구 추계치를 분석
- 北 두만강개발 탈퇴는 라진 몸값 높이기(3/21, 연합뉴스)
 - 中 장롄구이 중앙당교 교수 “北 개혁개방 의지 없어”
- 中지방정부, 라진항 도로 500억원 투자(3/21, 연합뉴스)
 - 안병민(교통연), “중국 지방정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지린성 성장이 북한을 방문해 3억위안을 직접 투자해 라진항 도로 확장 및 포장 사업을 해주겠다는 협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밝힘.

다. 군사

● 北에선 137cm면 군대간다?…징병 키 제한 3cm↓(3/18, 자유북한방송)

- 방송은 함경북도 청진시의 자사 통신원을 인용, 북한 인민무력부가 징병 업무를 전담하는 각 도·시·군의 군사동원부에 3월부터 징병 신체검사의 신장 제한을 140cm에서 137cm로 낮추도록 지시했다고 전함.
- 방송은 “1990년대 중, 후반 ‘고난의 행군’ 이후 영양결핍으로 아이들의 발육이 떨어져 현재는 중학교 졸업반 학생들의 평균 신장이 134cm까지 낮아졌다”면서 이유를 설명함.

라. 사회·문화

● 북한판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등장 눈길(3/16, 노동신문)

- 노동신문 최근호(3.10)는 4면 절반을 할애해 새로 창작된 ‘우리 집사람’ 악보와 가사를 크게 실음.
- 특히 올해 ‘3.8 국제부녀절’(국제여성의 날) 100주년을 맞아 이 노래를 대대적으로 보급하고 있음.
- 1절은 군에서 제대하고 귀향한 봄날 꽃다발을 건네준 여인과 가정을 이룬 사연을, 2절은 힘들고 지칠 때 항상 곁에서 용기를 불어 넣어주고 손을 잡아주는 고마움을, 3절에서는 아내와 평생 동반자로 일생을 함께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北매체도 ‘황사예보’ 반복…마스크 착용 당부(3/20,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TV)

- 북한 매체들도 올들어 최악의 황사가 발생한 20일 세 차례나 ‘황사예보’를 내보내며 노인과 어린이, 호흡기 질병 환자들의 주의를 당부
- 황사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음.
- 북한은 올들어 지난 12일부터 황사예보를 하면서 황사가 호흡기, 눈에 미치는 영향 등을 TV의 ‘건강상식’ 코너를 통해 연이어 소개

● 北기자동맹, 獨방송에 협력 제안(3/20,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의 조선기자동맹이 지난해 말 언론인 연수를 포함한 상호협력을 독일 방송측에 제안했다고 보도
- 독일 국제방송인 ‘도이치벨레’가 운영하는 방송연수원의 헬무트 오상 아시아 국장은 지난 18일 RFA에 “조선기자동맹의 국제부에서 우리 연수원에 ‘서로 협력하자’며 편지를 보내왔다”며 “북한측이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언론 협력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힘.

● 북한–나이지리아 축구 평가전 갈등(3/20, 연합뉴스)

-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을 앞두고 북한 축구 대표팀이 다음달 14일 나이지리아 대표팀을 평양에 불러들여 평가전을 가지려 했으나 항공료 부담을 둘러싸고 양측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스와질란드, 北축구팀 공짜 전지훈련 거부(3/21, 연합뉴스)

- 북한 월드컵 축구대표팀이 스와질란드에서 전지훈련을 하는 조건으로 190만 릴랑게니(한화 약 2억8천만원)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짐.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지난 11월 소말리아 해적 피랍 북 선원 28명 4개월만에 풀려남(3/16, 로이터)
- 北, 각지 농촌들엣 봄밀, 보리심기 완료 보도(3/17, 종통)
- 北 국립교향악단, 새로운 교향곡들 창작 완성(3/16, 종통)
 - 관현악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 ‘돌파하라 최첨단을’, 교향시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등
-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 과학영화 ‘영양포에 의한 무토양 잔디재배’와 ‘왕다래 나무를 많이 심자’ 등 과학영화 제작(3/17, 종통)
- 국립교향악단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전시가요 음악회’, 3/17 모란봉극장에서 진행(3/18, 종통)

2 대외

가. 일반

● 문타폰, 北 시장·텃밭 금지로 식량사정 악화(3/16, 연합뉴스)

- 비엇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은 15일 북한 당국이 지난해 장마당(시장)을 폐쇄하고 텃밭 등을 이용한 소규모 영농을 금지한 이후 식량 사정이 더 악화되고 있다며 이를 다시 협용할 것을 촉구
-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자신의 최종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권의 비민주적 특성이 일반 대중에게 ‘공포국가’를 만들 어내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
- 이에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최명남 참사는 발언을 통해 “특별보고관은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을 비호 두둔하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며 동분서주하는 자에 불과하다”며 “모든 나라들을 공평하게 대하는 보편적 정례검토(UPR) 제도가 가동되는 상황에서 특정한 나라를 골라서 문제시하는 특별보고관 제도가 병존하는 것은 합리화될 수 없다”고 주장

● 北김명일 총리, 류홍차이 中대사 접견(3/16, 연합뉴스; 신화통신)

- 김영일 내각 총리가 16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류홍차이(劉洪才, 54) 신임 중국 대사를 접견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
- 김 총리는 이양국 수교 60주년이었던 지난해에 활발했던 교류활동을 거론하면서 “조선(북한)은 조·중관계의 발전을 매우 중시한다”고 말함.
- 이에 류 대사는 “중·조 전통우호관계는 역사가 유구하다”며 “지난해 수교 60주년 행사를 통해 양국이 공고한 우호관계를 전 세계에 알렸을 뿐더러 (중국과 북한의) 청소년들에게 이런 전통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식을 심어줬다”고 화답함.

● 인권후진국의 주제넘은 훈시(3/18, 조선중앙통신)

- 미국 발표 ‘2009년 세계인권실태연례보고서’의 ‘북한인권실태보고서’에 대해 북한은 “非法的 ‘인권재판관’ 행세 자체가 난폭한 국권침해·인권침해행위”라고 반론, “선군의 사회주의제도 강화, 고수”를 강조함.

● 北김영남, 아프리카 3개국 순방 예정(3/20, 조선중앙통신)

- 권력서열 2위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아프리카의 가봉, 세네갈, 감비아를 공식 친선방문한다고 보도, 순방 날짜와 목적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채 “곧 방문하게 된다”고만 짤막하게 소개
- 지난해 5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를 순방했고 2008년 3월에는 나미비아, 앙골라, 콩고, 우간다 등 아프리카 4개국을 순방하는 등 거의 해마다 아프리카 순방 외교에 나서고 있음.

■ 기타 (대외)

- 최수현 레바논 駐在 北대사, 3/10 駐在國 공산당 중앙委 총비서 면담(3/15, 종방)
- 北 기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과 러시아 ‘차이코프스키명칭 모스크바국립 음악대학’, 3/15 평양에서 ‘교류와 협조에 관한 합의서’ 조인(3/15, 종통)
- 국제위기그룹(ICG)은 15일 ‘엄격한 제재하에 놓인 북한’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갑작스런 균열 가능성을 주장(3/16, 연합뉴스)
- 김영일, 駐北 中대사 류홍차이(劉洪才, 54)와 만수대의의사당에서 담화(3/16, 평방)
- 北-캄보디아 친선의원 대표단 회담, 만수대의의사당에서 진행(3/17, 종통)
- 폴란드 외무성 대표단(단장 : 「쉬슈또프 숨스끼」 국장), 3/18 귀국(3/18, 종방)

- 러시아 차이콥스키 명칭 모스크바 국립음악대학 대표단, 3/18 귀국(3/18, 중방)
- 룩셈부르크는 김정일 위원장의 비자금을 예치하고 있다는 영국 신문보도를 보도(3/19, 연합뉴스)

나. 6자회담(북핵)

● 潘 총장 “기회 되면 북한 방문할 것”(3/15, 연합뉴스)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노보스티 통신과 인터뷰도중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6자회담 재개만 될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무엇이든 할 것이고 기회가 되면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힘.
- 북한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걱정스럽다”고 표현하면서 “유엔은 북한에 원조를 보낼 준비가 돼 있고 북한과 다른 분야에서도 협력할 수 있다”고 밝힘.

● 주영 북한대사, ‘6자회담 6월 중순 전 재개’ 시사(3/19, 미국의 소리(VOV))

- 자성남 영국 주재 북한대사(유럽연합 주재 대표부 대사 겸임)가 18일 브뤼셀을 방문, 유럽의회 한반도관계 대표단의 초청으로 2시간 가량 대표단 회의에 참석
- 유럽의회 한반도관계 대표단 의장인 크리스티안 엘러는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자성남 대사는 6월 중순으로 예정된 한반도관계 대표단의 평양 방문 이전에 6자회담이 재개될 것이라면서, 북한은 6자회담 재개에 전제 조건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함.
- 이어 “자 대사는 EU(유럽연합)의 대북 투자를 요청하면서, 북한 정부의 예산 지출 방향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북한 정부가 과거에는 국방비에 많은 지출을 해왔지만 현재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등 경제 분야에 더 많이 지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소개함.

■ 기타 (6자회담(북핵))

- 스타인버그 “北과 폭넓은 이슈 논의 가능”(3/16, 연합뉴스)
 - “미국은 물론 우리의 파트너들은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북한과 폭넓은 이슈에 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힘.

3 대남

● 北, 비망록 내 키리졸브 비난…사상 처음(3/17, 조선중앙통신)

- ‘키리졸브’ 한·미 합동 군사연습에 대해 사상 처음 ‘비망록’을 내 비난함.
- 북한에서 비망록은 ‘중요한 사건이나 문제에 대해 관련 사실과 자료를 공개하고, 자기 나라의 입장을 밝히는 문서’라는 뜻을 지님.
- 통신은 ‘미국과 남조선 당국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비핵화 과정을 파탄시킨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제목의 비망록에서 “키리졸브 연습은 ‘방어적 대응타격’이 아니라 우리를 선제 공격해 점령하기 위한 전쟁 각본 ‘작전계획 5027’ 등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 조선반도의 평화를 요구하고 비핵화를 위한 유관측의 움직임이 다시금 활기를 띠려 할 때” 이같은 군사연습을 벌인 것은 불순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고의적인 처사라고 주장

● 관광재개 거부를 통해 드러난 반민족적 흥계(3/17, 노동신문)

- 금강산, 개성 관광재개의 미해결된 데 대해 南 책임, ‘결단성 있는 조치’를 주장함.
- 南 당국의 금강산, 개성관광사업 재개 반대 이유에 대해 신문은 “관광재개 사업이 북남관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하며 美주도하에 벌어지는 반공화국 ‘제재’를 더욱 강화하자는 데 있다”고 보도
- 또한 南 당국이 금강산, 개성관광 재개를 계속 가로막을 경우 부득불 결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했으며 그로부터 초래되는 후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

● 北, “금강산 관광재개, 南당국 태도에 달려”(3/19, 조선중앙통신)

- 금강산 관광을 담당하고 있는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19일 “관광길이 열리 는가 마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고 밝힘.
- 명승지지도국은 이날 발표한 ‘금강산, 개성지구 관광재개를 가로막는 범죄적 책동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제목의 상보에서 “괴뢰보수패당이 끝까지 관

광재개를 가로막을 경우 우리는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담화에서 천명한대로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데로 나갈 것”이라며 “남조선 당국은 사태의 심각성을 똑바로 보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고 주장

- 북한 아태평화위는 앞서 18일 통일부와 현대아산에 통지문을 보내 금강산 관광 지구내 남측 소유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하고 정부가 개성·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다른 사업자와 계약, 개성 관광을 자국 및 해외에 개방하겠다는 뜻을 밝힘.

■ 기타 (대남)

- 남, 관세청…남북교역 규모 전년 동기대비 52.1% 증가 밝힘(3/17, 연합뉴스)

03.22-03.28

3월

4주차

1. 대내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군사
- 라. 사회·문화

2. 대외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1 대내

가. 정치

● 北김정일, 中접경 평북서 현지지도(3/25,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과 접경해 있는 평안북도의 천마전기기계 공장과 대홍산기계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
- 김 위원장은 이들 기계공장을 둘러본 뒤 “강성대국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첨단을 돌파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야 한다”고 주장
- 김평해 평안북도 당 책임비서, 김경희(경공업부)·장성택(행정부) 노동당부장, 리재일(선전선동부) 당 제1부부장이 수행함.

● 北김정일, 국립교향악단 공연 관람(3/28, 조선중앙통신)

- 노동당 최태복·김기남 비서와 김경희 경공업부장, 장성택 행정부장, 김영일 국제부장,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외무성 강석주 제1부상 등이 수행
- 김영일, 김양건, 강석주 등 ‘방중수행 유력자’ 배석 주목

【최고인민회의 관련사항】

◆ 핵심논의

핵심주제: 민생경제, 외자유치

기타주제: 1) 김정은 후계구도(국방위·내각 등 인사개편 등)

2) 후속 경제대책(외자유치 후속조치 등)

3)朴부장은 회의 참석여부

◆ 핵심논의의 배경

1) 북한은 2010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

→ 이와 관련된 예산 배정과 법령 정비가 이뤄질 가능성 존재

2) 외자 유치 여건 개선에 힘쓰고 있음.

→ 올해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을 설립하고 국가개발은행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자유경제무역지대인 라선시를 ‘특별시’로 제정하였음.

3) 북, 최근 후계구축 움직임

→ 북한, 김정은 후계구축 과정을 내부적으로 차근히 진행해옴.

→ 김정은, 국방위원회에 근무하면서 중요 정책수립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관측됨.

노동당 조직지도부도 김정은의 재가를 받아 신진 간부들을 기용해온 것으로 알려짐.

→ 북한, 지난 19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항일투사’ 김일¹ 출생 100주년 보고회를 통해 후계문제 간접적 시사

조선중앙방송,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백두산이 놓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혁명 수위에 모신 건 행운”

“그이를 자자손손(子子孫孫) 충실히 모시는데 조선민족의 미래가 있다”는 김일성 생전 발언 소개

◆ 최고인민회의 주제에 대한 북한전문가 전망

- 경제관련 의제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질 것
- 현 북한 상황(아자사 발생, 민심악화)을 고려하여 본래 이루어지는 예산관련 회의보다는 식량과 원료등을 채우기 위한 법적·제도적 외자유치 방안등의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남북관계나 대미관계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만큼 쉽게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화폐개혁 실패로 인해 처형설이 나오고 있는 박부장(박남기 노동당 계획재정부)의 최고인민회의 명단등재 주목
- 박부장의 총탈설로 인해 나빠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내각 경제관료들의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 지님.

◆ 후계구축에 관한 북한전문가 전망

- 김정은이 공식 등장한다면 국방위원회를 맡는 형태가 될 것
-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에게 국방위원회 직위를 줄 가능성이 있음
- 화폐개혁 실패의 뒷수습을 맡긴 뒤 이것을 업적화 할 가능성
- 지금까지의 후계 구축 작업이 풍선 띠우기였다면 이제는 제도적 차원에서 뿌리를 내리게 할 필요가 있음.
- 지금 북한 상황에서 후계 문제를 부각하면 ‘김정일 건강이 정말 안 좋은가 보다’하는 혼란만 가중될 것
- 김정일이 김정은에게 국방위원회까지 허용하진 않을 것
- 김정일은 김정은이 당무부터 완벽히 익히기를 원하며, 후계구축 작업은 당내부에서 조용히 진행될 것으로 보임.

◆ ‘김일 100주년 보고회’를 통한 후계문제 시사에 대한 분석

- 북한이 ‘자자손손’을 부각시킨 대목을 통해 김 위원장이 정은으로의 3대 세습 문제를 염두하고 있음 시사
- 후계 내정 단계인 김정은이 업적·경험 쌓기 단계에서 정책 관여 단계로 폭을 넓혀 가고 있음.
- 북한이 보고대회에서 후계 문제에 대한 ‘혁명 원로’들의 지지를 언급²한 것도 눈에 띤
-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대를 이은 충성’의 귀감으로 내세운 김일의 정신을 간부들이 본받아 ‘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가자는 메시지
- 화폐개혁 이후 권력 내부의 불안요소를 차단하고 안정적 후계구도 구축을 쟁 기고자 추모행사를 벌인 것으로 분석

■ 김정일동향

- 3/23 김정일, 평양산원에 산꼴, 고려약재, 의료기구와 설비 등 전달(3/23, 중방)
- 3/24 김정일, ‘원군사업과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에서 모범을 보인’ 인민봉사총국 윤전기자재 공급소 일꾼-종업원 등에게 「감사」 전달(3/24, 중방)

■ 기타 (대내 정치)

- 김정일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자·혁명사적자들’ 현지지도 10년(2000.3) 즈음 지난기간 연 1,900 여만 명의 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 등 현지답사 선전(3/24, 종통)
- 北언론, 천안함 침몰 사흘째 계속 ‘침묵’(3/28, 연합뉴스)
- 김정일 방중설…단둥 겉으론 평온(3/28, 연합뉴스)

나. 경제

● 北, 반시장 조치 잇달아 철회…‘꽤기발’ 분배(3/22, 자유북한방송; NHK)

- 자유북한방송은 함경북도 온성군의 통신원을 인용, “북한 당국이 올해 초의 식량난에 대처해 주민들이 이용하는 빼기밭을 세대별로 조정해 6~7월에 수

1 항일 빨치산 동료인 김일성과 의형제를 맷고 본명 박덕신을 버릴 정도로 절친해 김정일 후계 구축에도 앞장섰음.(1984년 사망)

2 양형섭 부위원장 … “김일 동지는 우리 노세대가 할 일은 ‘장군님(김정일)을 받드는 데 앞장서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조

획할 수 있는 보리, 밀, 감자를 무조건 재배케 함으로써 춘궁기를 넘기라는 지시를 군 인민위원회에 내렸다”고 밝힘.

- 방송은 “온성군 인민위원회에서는 폐기밭 세금을 전담하는 집금원(세무원)에게 주민들의 폐기밭 면적을 확인하고 그 폐기밭에서 나오는 식량총량을 계산해 세대별로 분양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임.
- NHK방송은 지난 15일 ‘평양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작년 화폐개혁의 후속조치로 금지했던 외화교환을 최근 다시 허용했다”고 전한바 있음.

● 北쌀값, 이달 중순부터 하락 반전(3/23, NK지식인연대; 자유북한방송)

- NK지식인연대는 북한 현지 통신원의 전언을 인용해 “최근 시장의 쌀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가격은 하락세를 타고 있다”면서 “(북한 당국이) 주민강연회를 열어 4월부터 국가 식량공급을 정상화한다고 널리 알리고, 외화벌이 기관에 대한 불법 비축식량 단속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전함.
- 단체는 “회령시의 경우 19일부터 식량가격이 급속히 하락하기 시작해 kg당 1천200원이던 쌀가격이 21일에는 850원까지 내렸다”고 덧붙임.
- 자유북한방송역시 함경북도 회령시와 양강도 대홍단군의 자사 통신원 말을 인용, “며칠 전까지 1천200원을 웃돌던 쌀 가격이 회령시에서는 610원, 대홍단군에서는 600원까지 떨어졌다”면서 “최근 외화벌이 회사에서 중국 쌀을 조금씩 들여와 시장 쌀값이 내려가는 것 같다”고 전함.

● 北, 중국서 식량 수입 올인(3/24, 자유북한방송; 연합뉴스; 좋은벗들)

- 방송은 북한 당국이 최근 심각한 식량난을 완화하기 위해 ‘식량수입 책임량’을 달성하지 못하는 외화벌이 회사(무역회사)는 군부와 민간을 불문하고 무조건 문닫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함.
- 방송은 자사 통신원을 인용, “북한 당국이 지난 17일 이같은 지시를 내려 수 많은 외화벌이 회사들이 북중 국경지역에서 쌀을 들여오기 위해 교섭에 뛰어들고 있다”면서 “하지만 식량을 수입할 돈은 대주지 않고 과제만 내려 다들 막막해 한다”고 전함.
- 좋은벗들은 온라인 소식지에 “현재 신의주 세관에는 당장 먹을 쌀이 없으니 남방 과일은 수입하지 말고, 공업제품도 전략물자만 수입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고 전함.

● 北, 라선시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개발해야(3/25, 환구시보; 연합뉴스)

- 북한 라선(라진·선봉)특별시와 북한 국제개발은행의 외자도입 창구역할을 맡은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대풍그룹)은 최근 라선시를 북한 국가개발의 중심지로서 동북아의 육지와 바다를 잇는 물류중심지로 개발하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 환구시보가 보도
- 김수열 라선시장은 라선이 특별시로 승격됐을 때 김정일 위원장이 라선을 국가 개발 중심지로 건설하라고 명확한 지시를 했다고 밝힌 것으로 박철수 대풍그룹 총재는 전함.
- 박 총재는 김수열 시장이 이 지시에 따라 경제건설에 과감히 행동에 나설 것이지만 아직 경제개발의 돌파구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다고 밝힘을 전함.

● 中 단동, 압록강 수상 버스 운항(3/28, 요녕일보; 연합뉴스)

- 북한 신의주와 마주한 중국 단동(丹東)시가 오는 10월부터 압록강 수상 버스를 운항하기로 했다고 요녕일보(遼寧日報)가 28일 보도
- 이 수상 버스는 북한과 중국을 잇는 압록강 다리인 '중조우의(中朝友誼)교' 상류에 있는 압록강 2호 부두에서 하류의 단동 신도시에 건설 중인 3호 부두 까지 17km를 매일 8차례 운항

● “조국 있어야”…北, 조총련에 도움 요청(3/28, NK지식인연대; 연합뉴스)

- 화폐개혁 후유증 등으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소속 재일교포들에게 ‘조국을 도와달라’며 지원을 요청
- 28일 탈북자 단체인 ‘NK지식인연대’로부터 ‘총련 일꾼들은 장군님의 대고조 사상을 높이 받들고 총련사업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
- 구체적인 지원 대상으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올해 처음 현지지도한 자강도 희천발전소 건설 현장에 대한 물자 지원, 평양시에 식당과 음식 매대를 설치해 운영해 줄 것 등을 예로 들음.

■ 기타 (대내 경제)

- 北 애국복합미생물센터, 항산화음료 '이슬', 복합젖산음료 등 미생물을 이용한 음료제품 개발에 서 성과 이룩(3/24, 종통)
- 北, 최근연간 '광명성 2호' 제작 등 세계적 높이에 올라선 과학기술성과가 수많이 달성되었다고 선전(3/24, 종통)

다. 군사

● 北총참모부 급변사태 바라는 것은 망상(3/26, 조선중앙통신)

- 최근 한·미·중 3개국가가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북한군 총참모부는 “급변사태를 바라는 것은 미치광이의 얼빠진 망상”이라고 전함.
- 또한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군 대변인은 “언제나 주변 지역에서 벌어지는 비정상적 사태를 주시하고 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자위의 핵억제력을 더 강화해 나갈 것이며, 모든 타격수단들을 항시적인 격동 상태에 둘 것”이라고 전함.

라. 사회·문화

● 탈북자 '송희'가 전한 北10대들의 삶(3/22, 더 타임스; 연합뉴스)

-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는 북한에서 탈출한 지 한 달이 채 안되는 16세 '송희' 와 22일 중국에서 만나 인터뷰함.
- 송희는 북한 상황에 대해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아무런 희망이 없다” 는 말을 전함.
- 그 외에 북한에서 현재 “타이타닉 해적판 DVD가 유행”하고 있고, “아주 친 한 친구들과 서로의 생각을 얘기하기는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하다”고 전함.

● 北언론, 새 학기 전에 종이생산 늘려야(3/23, 민주조선; 평양방송)

- 23일 입수된 민주조선 최근호(3.13)에서는 '새 학년도 준비 사업을 실속있게 짜고 들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제 새 학년도가 시작하는 날까지 얼마나 않아, 도·시·군 인민위원회가 새 학기 전까지 준비를 완전히 끝내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각 지방의 자재와 원료를 최대한 활용해 교구품과 학용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특히 종이공장 생산을 결정적(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

● 北, 식량, 물자 부족에 강력범죄 기승(3/24, 좋은벗들)

- 소식지는 “한 끼니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생활이 각박해지면서 최근 강도, 살인 사건이 북한 전역에서 빈발해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전함.
- 지난 4일에는 자전거를 타고 가던 남성이 둔기에 맞아 머리를 사망하고 자전거를 빼았겼으며, 26일에는 사진 필름과 인화지를 판매하던 남녀 2명이 흥기 에 찔려 숨지고 미화 3천달러 상당의 물품을 강탈당했다고 보도
- 소식지는 “강력범죄가 급증하자 함경북도 회령시에서는 오후 7시 이후 불필 요하게 돌아다니지 말라는 일종의 ‘통금령’이 떨어졌다”면서 “청진시에서는 순찰조를 늘렸지만 사건이 해결되기도 전에 다른 사건이 터져 아예 손을 못 대는 경우도 많다”고 소개함.

● 북한 결혼식은 어떨까?…평양선 야외촬영도 잣아(3/25, 조선신보)

- 조선신보의 자매지인 월간 조국 4월호는 ‘평양에서 안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평양의 한 커플이 결혼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신랑, 신부에게 결혼식 날의 야외 기념촬영은 빼놓을 수 없는 행사’라고 전함.
- 잡지는 평양에서 가장 있기 있는 야외촬영장소로 만수대예술극장 앞 분수대를 꼽음
- 2001년 탈북한 김영순(74, 여)씨는 “북한에서 결혼식 야외촬영은 1980년대부 터 하기 시작해 9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퍼졌다”면서 “하지만 보통 평양에서 많이 하고 농촌에서는 거의 안 한다”고 말함.

● 北, 안중근 의거는 민족의 항거의 선언(3/25,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북한의 조선역사학회는 25일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을 맞아 이날 ‘안중근 열사의 이토 히로부미 처단은 일제 식민지 통치를 반대한 정의의 애국적 거사’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
- 방송은 발표에서 “일제가 안중근의 거사를 범죄시하고 그에게 극형을 선고한 것은 완전히 적반하장격으로 부정의가 정의를 타매하는 횡포였다”, “우리 인

민은 일제가 지난날 저지른 용납못할 죄행을 잊지 않고 있으며 기어이 그 대가를 받아내고야 말 것”이라는 내용의 발표를 보도

● LAT, 北 화폐개혁 후 주민정서 소개(3/26,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

- LAT는 북한 당국의 화폐개혁 실패 후 경제난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의 정서를 집중 조명함.
- 탈북여성 리미희씨는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숨김없이 말하고 불평을 토로하고 있다”고 말하고서 목소리를 낮춰 “내 아들은 뭔가 일어날 것만 같다고 생각한다. 나는 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다는 것은 말할 수 있다.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굶어죽었던 1990년대와는 다르다”고 말함.
- 또 다른 탈북여성 수정씨는 “김정일위원장이 훌륭한 지도자였다면 어린이들이 굶어죽고 누더기차림의 사람들이 거리를 배회하고 시장에 음식이 동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그(김위원장)의 좋은 의도를 의심하지 않는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부패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짐.

2 대외

가. 일반

● 北 억류 미국인은 곰즈씨…재판회부(3/22,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통신은 지난 1월 억류한 미국인은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거주하는 31세의 아이잘론 말리 곰즈씨로, 북한 당국은 그를 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힘.
- 통신은 이날 “조선의 해당기관에서는 불법입국한 미국 공민 아이잘론 말리 곰즈(남자, 1979년 6월19일생, 미국 매사추세츠 보스턴 거주)에 대한 범죄자료들이 확정된데 따라 재판에 기소하기로 했다”고 짤막하게 보도함.

● 北, ‘남치문제-비핵화 연계’ 日 비난(3/25, 민주조선; 신화통신)

- 신화통신은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주한 일본대사가 최근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남치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데 대해 민주조선이 이는 ‘한반도의 비핵화 진전을 파괴하려는 목적이라고 비난했다’고 보도

- 또한 민주조선은 논평에서 납치문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두 문제는 서로 다른 별개의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일본은 이 두 문제를 연계시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

● 中 대북통이 밝힌 ‘북한의 인식’(3/27, 연합뉴스)

- 중국내 대북통으로 꼽히는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26일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를 만나 한반도 문제에 대한 북한의 인식 및 북한의 현상황을 상세히 설명
- 왕부장은 자신의 방북 경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면담 내용 등을 일정 부분 공개, “북한의 정치는 안정적이며, 불안정한 요소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소개한 뒤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서도 “신망이 높고, 지금도 열심히 현지지도를 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조해진 대변인이 전함.
-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북핵문제를 비롯한 남북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적극적 전달자 역할을 요청

● 北김영남, 아프리카 3개국 순방(3/27,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27일 가봉과 감비아, 세네갈 등 아프리카 3개국 순방길에 올랐다고 보도
-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가봉, 감비아, 세네갈을 공식친선방문하기 위해 특별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언급하지 않음.

■ 기타 (대외)

- 이탈리아 외무성 대표단(『아델리오 마시모 야누치』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담당 총국장), 평양 도착(3/22, 종통)
- 北억류 미국인 곰즈씨 서울서 영어교사생활 확인됨(3/24, 연합뉴스)
- 인도 정부문화 대표단(단장: 『자와르 씨르카르』 문화성 비서), 3/23 평양 도착(3/23, 종방)
- 김영남, 3/17 그리스 국경절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3/24, 종통)
- 양형섭, 3/24 만수대의사당에서 訪北 이탈리아 외무성 대표단과 담화(3/24, 종통)
- 최태복·박의춘, 3/23 만수대의사당에서 ‘류홍재’ 駐北 中 신임대사와 담화(3/24, 종통)
- 北 고려항공…항공안전위원회(ASC)회의를 통해 EU운항제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3/25, 연합뉴스)
- 北 흥선옥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제 122차 국제회의연맹(IPU)총회 참석을 위해 태국으로 출국(3/25, 종통)

- 유엔 인권이사회(UNHRC)는 북한의 '심각하고 광범위하며 조직적인 인권 탄압을 개탄한다'는 내용의 결의안 채택(3/26, 연합뉴스)
- 로런스 캐논 캐나다 외무장관, "G8 외무장관 회의서 북한 문제 다룰 것"(3/27, 연합뉴스)

나. 6자회담(북핵)

기타 (6자회담(북핵))

-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조건없는 남북정상회담이 북한 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3/22, 연합뉴스)
- 윌리엄 린 미국 국방부 부장관…“미 본토의 미사일방어는 북한, 이릉등에 초점을 계속 맞춰야 한다”(3/23, 연합뉴스)

3 대남

● 北침묵…과거 교전땐 즉각 ‘남측 도발’(3/26, 연합뉴스)

- 26일 오후 9시 45분께 서해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침몰한 것에 대해 북한은 19시간이 지난 27일 오후 5시까지 침묵을 지킴.
- 북한은 과거 서해상에서 벌어진 세 차례 교전 당시 ‘최장 5시간 35분’ 안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힘.
-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세 차례 교전의 경우 북한의 도발이라는 사실이 즉시 알려진데 반해 이번에는 천안함 침몰의 직접적 원인 즉, 선체에 구멍이 생긴 이유가 즉각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임.
- (서해 초계함 침몰 사태와 관계없이 남북간 육로 통행과 개성공단 운영 등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금강산 관광지구 관련사항】

◆ 사건발단

북은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위원회 명의의 대남 통지문을 통해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한 소유의 부동산을 조사하겠다고 통보,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시, 해당 자산을 몰수하겠다고 함.

◆ 사전일지

• 3월 22일

- ▶ 북한 - 금강산 관광지구 내 관광과 숙박 등의 사업을 하는 현대아산과 협력업체 등에게 통지문을 보내 25일 오전 11시까지 금강산 관광지구로 들어와 조사에 응하라고 함.
- ▶ 한국관광공사: 24일 방북 결정, 현대아산: 25일 방북하기로 계획

• 3월 23일

- ▶ 현대아산 - 실무자 4명과 금강산 관광사업 협력업체인 에머슨퍼시픽, 일연 인베스트먼트 등 31개사 직원 44명, 관광공사 직원 4명으로 방북 인원 확정
- ▶ 통일부 - ‘북측의 요구에 따라 세입업체들은 빼고 부동산 소유자들만 방북 했으면 좋겠다’고 권고
- ▶ 한국관광공사와 현대아산 등 금강산관광 사업체 인원 19명이 조사에 응하기로 확정

• 3월 24일

- ▶ 한국관광공사 차동영 금강산지사장 등 직원 3명이 자산 점검을 위해 현대아산 관계자들보다 하루 먼저 방북
- ▶ 차지사장 출발전 인터뷰…“금강산에서의 일정은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으며, 현재 심정은 담담”라고 언급, “하루속히 남북당국 간에 대화가 재개돼서 금강산 관광이 정상화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라고 전함.

• 3월 25일

- ▶ 김한수 현대아산 홍보부장을 비롯한 현대아산 관계자 4명과 안교식 금강산지구기업협의회회장 등 투자업체 관계자 12명 오전 9시 40분경 북으로 출발
- ▶ 김부장 출발전 인터뷰…“북한에 가봐야지 조사를 어떻게 할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다녀와서 말씀드릴 것이 있으면 하겠다”
- ▶ 이들은 같은 날 3시 30분 동해선남북출입사무소로 돌아올 예정

• 3월 27~28일

- ▶ 북한은 예정대로 대표 관광사업자인 현대아산 소유의 건물과 시설을 조사
- ▶ 현지에서 식당 등을 운영하던 3개 업체 관계자 7명도 27일 오전 8시 10분께 동해선 육로를 통해 방북, 조사에 입회
- ▶ ‘천안함 침몰 사고’로 남한 정국이 어수선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북한의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부동산에 대한 조사는 나흘째(28일) 예정대로 진행

03.29-03.31

3월
5주차

1. 대내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군사
- 라. 사회·문화

2. 대외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1 대내

가. 정치

● 北단동 영사지부 ‘金위원장 방중 모른다’(3/29, 연합뉴스)

- 단동 영사지부 관계자는 이날 사무소를 방문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김 위원장의 방중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우리 같은 사람은 전혀 알 수가 없다”고 함.
- 이 관계자는 “우리는 그저 심양 총영사관에서 하는 사증 발급 업무만 할 뿐 다른 일은 전혀 알지 못한다”면서 “그런 건 베이징(北京)에서나 기자들이 더 잘 알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함.

● 北김정일, 류홍차이 신임 중국대사 만나(3/30,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김정일 동지께서 새로 부임해온 류홍재 특명전권대사를 환영하고 그와 따뜻한 담화를 했다”며 “신임특명전권대사를 위하여 만찬을 마련했다”고 밝힘.
- 김정일 위원장은 “북·중 우호 관계는 양국 선대 혁명가들이 손수 맺어 키워온 것”이라면서 “역사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반드시 한단계 더 강화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
- 만찬에는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 김영일 당 국제부장 등이 배석된 것으로 소개되었으며, “만찬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보도

■ 김정일동향

- 3/28 국립교향악단 공연 관람(3/28, 종통)
 - 최태복·김기남(黨 비서), 김경희·장성택·김영일·김양건(黨 부장), 강석주(외무성 제1부상) 등 동행

■ 기타 (대내 정치)

- ‘선군시대 전국 과학자, 기술자대회’참가자들, 수산기념궁전 참배(3/30, 종통)

나. 경제

● 印프라모드 미탈 글로벌스틸홀딩스 회장 방북(3/29,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프라모드 미탈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도 글로벌강철주식회사(인도 글로벌스틸홀딩스) 대표단이 도착했다”고 전함.
- 하지만 방북일정과 목적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北, 1·2월 中서 2억3천만 달러 수입, 작년비 30%↑(3/30, 미국의 소리(VOA))

- 북한이 올해 1~2월 중국에서 물자를 수입한 액수가 작년 동기보다 30% 많은 미화 2억3천만달러에 달했다고 VOA 방송이 30일 중국 상무부 자료를 인용해 보도
- 월별로 1월 수입액은 1억1천200만달러로 작년 동월 대비 31%, 2월 수입액은 1억1천700만달러로 28% 증가했다고 방송은 전함.

■ 기타 (대내 경제)

- ‘제6차 전국 기계설계부문 과학기술전시회’, 3/23~25 평양에서 진행(3/26, 종통)
- 北 국가과학원, ‘대형 전자현시판’ 개발 도입(3/26, 종통)
- 인도 글로벌강철주식회사 대표단, 평양 도착(3/29, 종통)

다. 군사

● 北방송 ‘한·미 23일부터 수일간 서해서 군사연습’(3/29, 조선중앙방송)

- 방송은 “지난 19일 평택항에 기어든 미제 침략군 해군 이지스 구축함 2척과 괴뢰해군 구축함 세종대왕호를 비롯한 전투함선들이 23일부터 수 일간에 거쳐 대함 및 대공사격훈련, 해양차단작전 등을 본격적으로 감행했다”고 전함.
- 또한 “미제와 남조선 괴뢰 호전광들이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의 일환으로 조선 서해 해상에서 북침전쟁연습에 광분했다”, “미제와 괴뢰군부호전광들이 무모한 북침전쟁도발 책동으로 인해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고 보도

라. 사회·문화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北 올림픽委 대표단(정인철 체육지도委 부위원장), '제7차 겨울철아시아경기대회 선수단 단장회 의'(카자흐스탄) 참가자 평양 출발(3/27, 종통)

2 대외

가. 일반

● 阿방문 北김영남…中과 접촉없어(3/29, 연합뉴스)

-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29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27일 밤 베이징에 왔다가 28일 아프리카로 떠났으며 베이징 소재 주북한 대사관에서 숙박했다”, “김 상임위원장이 중국에 머문 시간이 짧아 중국 측과 그 어떤 만남도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함.
- 앞서 27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상임위원장이 가봉, 감비아, 세네갈 등 아프리카 3개국을 방문하기 위해 특별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했으며 최창식 보건상, 김형준 외무성 부상, 리명산 무역성 부상 등이 수행했다고 보도

● 최병관 주중 北대사 내달 중순 부임(3/29, 연합뉴스)

-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현 최진수 대사가 아직 베이징에 체류중이며 4월 중순 새 대사가 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 신임 최 대사는 북한 외무성의 부부장(차관)급으로 영사국장을 두차례 역임 한 것으로 알려짐.

● 北김영남, 가봉 대통령과 회담(3/31,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가봉 대통령부에서 진행된 회담에서 쌍방은 양국간 친선 유대를 공고히 하고 쌍무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대해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의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함.

기타 (대외)

- 김영남, 3/28 아프리카 가봉·감비아·세네갈 공식 巡訪차 평양 출발(3/27, 종통)
 - 최창식 보건상, 김형준 외무성 부상, 리명산 무역성 부상 등 수행
- 박의춘 외무상, 駐北 파키스탄 신임대사(아리프 마흐무드)와 담화(3/29, 종통)
- 北 김영남, 3/29 가봉공화국 도착 및 「뿔 비오그 음바」 수상 의례방문(3/30, 종통)
- 김영남, 3/30 러시아 철도테러 관련 同國 대통령에게 위문 전문(3/30, 종통)
- 北-가봉, 3/30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과 「외무성 사이의 협조에 관한 의정서」 「리브르빌」에서 조인(3/31, 종통)
- 쿠웨이트 동물원, 김정일에게 아프리카 사자·단봉악대(낙타)·갈기양·사자들원숭이(망토원숭이) 등 희귀동물 6종 22마리 '선물' 전달(3/31, 종통)

나. 6자회담(북핵)

● 北통신 '2010년대에는 자체 핵연료로 경수로 가동'(3/29,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남한과 미국에서 대북정책으로 제기되고 있는 '기다리는 전략'을 거론하면서 "2010년대에는 자체의 핵연료로 돌아가는 경수로 발전소가 우리의 대답으로 될 것"이라고 밝힘.
- 통신은 '메가폰 전쟁의 검은 내막'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이 '악의 축'과 '핵선 제타격'을 운운하면서 시도한 '기다리는 전략'에 우리는 두 차례의 핵시험과 '광명성 2호'의 성공적 발사로 대답했다"고 말함.
- 북한은 작년 4월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경수로발전소 건설을 결정하고 첫 공정으로 핵연료를 자체로 생산보장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체없이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음.

3 대남

● 北민경련 '침몰사고 北연관…어이없다'(3/31, 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 경제협력 공식창구인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가 천안함 침몰과 북한과의 연관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북한의 공식기관으로써 처음 입장 을 밝힘.
- 민경련 단동(丹東)대표부의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서해안

초계함 침몰 사고에 대해 중국 현지인들의 이야기 등을 통해 알고 있다”면서 “왜 남측은 그것을 우리하고 자꾸 연관을 시키느냐”, “서해안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는데 왜 우리하고만 연관이 있는 쪽으로 몰아 가느냐”며 입장을 전함.

● 北신문 ‘한·미, 북침전쟁 하면 수장할 것’(3/31,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 노동신문은 31일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북침전쟁연습’으로 규정하면서 “미 제와 남조선 괴뢰호전광이 북침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적개심과 멸적의 의지로 복수의 불벼락을 들씌워 침략의 무리들을 바다에 수장해 버리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고 우리민족끼리가 전함.
- 신문은 ‘북침항로로 질주하는 침략선’ 제목의 글에서 “이미 폭로된 것처럼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미제와 남조선 괴뢰군부호전세력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불의의 핵선제공격작전을 숙달, 완성하기 위한 북침전쟁연습”이라며 “침략선의 항로가 어디겠는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고 말함.
- 또한 “연습의 내용만 보아도 그들의 공격목표는 명백히 우리 공화국”이라며 “북침항로를 잡은 전투함선들을 통해 이 땅에서 과연 누가 평화를 파괴하고 대결을 추구하는 장본인인가 하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알수 있다”고 덧붙임.

● 中연변, 한국인 연루된 北마약조직 검거(3/31, 연합뉴스; 흑룡강신문)

- 연변 공안국 마약 수사대는 지난해 9월 조선족 김모씨가 북한의 ‘장 사장’으로부터 마약의 일종인 히로뽕을 사들여 칭다오(青島)와 한국 등에서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해 최근 차모씨를 비롯한 한국인 2명과 북한인 5명, 조선족 1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된 마약조직을 검거했다고 보도
- 공안국 수사 결과 두목인 장 사장을 비롯해 북한인 5명이 운송책인 이 마약조직은 북한에서 들여온 히로뽕을 연변 화룽(和龍)시 난펑(南坪)진 등 북한과 중국 국경지대에서 조선족 김씨 등에게 넘겨 칭다오로 운반한 뒤 차씨 등 한국인 운송책을 통해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드러남.

【北 DMZ…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담화】

◆ 사건의 발단

南 국방부 6.25전쟁 60주년사업단과 육군본부등은 지난 2월 국방부 출입 15개 언론사와 'DMZ 취재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공동으로 체결, 6.25전쟁 60주년을 기념해 최초로 DMZ지역을 언론에 공개하고 군사시설과 생태·환경 등을 취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로 결정

◆ 북측의 담화문 내용

- 남한당국이 DMZ에서 견학·취재 허용 등 '반공화국 심리전 행위'를 하고 있음.
- DMZ를 북남 대결에 악용하려는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그릇된 행위가 계속된다면 이 지대에서 인명 피해를 비롯한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
- DMZ의 안전 질서를 파괴하는 그 어떤 행동도 허용할 수 없으며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 측이 지게 될 것
- 남조선 군부 호전세력은 우리 군대의 예상할 수 없는 불벼락을 면하려거든 DMZ를 반공화국 대결장으로, 대북 심리전장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당장 철회 해야 함.
- 미국 측이 정전협정 조인 당사자로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관심이 있다면 DMZ의 안전 질서를 파괴하려는 책동을 당장 중지 시켜야함.

◆ 북에 대한 남측 당국자 반응

- 언론의 취재활동이 정상적 승인 절차를 거친다면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음.
- 북한의 위협이 나온 만큼 DMZ 내 안전 문제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할 것임.
- 북한이 천안함 침몰 사건 와중에 느닷없이 DMZ를 걸고 나온 것에 대해 자신들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딴청 피우기' 전략으로 분석
- 천안함 침몰로 NLL부근에서 고조된 긴장을 DMZ까지 확산시키려는 의도로 분석
- 북의 담화에 대응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함. 천안함 침몰 사고와 전혀 상관없는 통상적인 대남 비방으로 분석
- 북한의 이번 담화는 DMZ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추정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월간

04.01-04.04

4월
1주차

1. 대내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사회·문화

2. 대외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1 대내

가. 정치

● 단동 도착한 北열차는 화물열차(4/3, 연합뉴스)

- 3일 새벽 중국과 북한 국경을 통과, 북한 접경 지역인 단동(丹東)에 도착한 북한 열차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탄 특별 열차가 아니라 화물 열차인 것으로 파악
- 3일 단동과 선양의 소식통들은 “오늘 새벽 단동에 도착한 열차가 검은색이었던 점으로 미뤄 신의주와 단동을 오가는 화물 열차인 것으로 보인다”며 “여객열차는 파란색이어서 화물 열차와 구별된다”고 밝혔다.
- 통상 김 위원장의 특별열차는 단동 역에 도착한 뒤 중국 측 인사들의 영접을 받고 베이징으로 출발하는 데 이날 새벽 열차가 단동 역에 정차했을 당시 역 주변에 영접 인파가 전혀 없었으며 압록강 철교나 역 주변의 경계도 강화되지 않았다는 게 목격자들의 전언

● 北김정일 3일밤 동선…이례적 ‘시점 공개’ 왜?(4/4,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류홍차이(劉洪才) 신임 중국 대사의 부임을 축하하기 위해 ‘3일 저녁’ 열린 연회에 김 위원장이 참석했다고 4일 오전 0시 45분 전함.
- 북한 언론매체들은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에 대해 통상 만 하루 이상 지난 뒤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을 언급하지 않은채 그 내용만 보도하며, 김 위원장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북한 언론매체들의 이같은 보도 원칙은 1998년 ‘김정일 체제1기’ 출범 이후 거의 예외없이 지켜져온.
-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자체가 파격이며, 당일 자정을 넘기고 1시간도 안돼 보도한 타이밍도 매우 주목할 만하다는 것이 북한 전문가들의 지적
-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하지 않은 채 관련 기사를 보도 했으나 신화통신은 연회가 개최된 장소를 평양이라고 명시

【김정일 방중 동향】

◆ 김정일 방중 임박, 시기의 적절성

- 북한

4월 09일 최고인민회의 개최

15일 북한의 최대 명절인 태양절(김일성 전 주석의 생일) 시작

- 중국

4월 03일 청명절 연휴 시작

10일 중국지도부는 하이난성에서 열리는 보아오포럼 참석

11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핵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할 예정

◆ 김정일 방중 관심의 초점

- 중국의 경제원조, 북한의 북핵 6자회담복귀, 후계자로 알려진 김정은(3남) 동행여부

◆ 북한·중국 동향

- 호위총국 인사 10여명 고려항공편으로 3월 30일에 베이징 도착
- 경호요원으로 추정되는 20여명 같은 날 평양발 국제열차편으로 베이징 도착
- 외유중인 중국 최고지도부 속속 베이징으로 돌아오고 있음.
(중국 최고지도부 내에서 북한을 담당하고 있는 시진핑 국가 부조석이 31일 오전 동유럽 순방을 마치고 베이징으로 돌아왔고, 서열 4위인 자칭린 중국정 치협상회의 주석도 1일 아프리카 방문을 마치고 귀국함.)

◆ 남한정부 입장

- 확정적인 정보는 없지만 접경지역 상황과 각종 첨보를 바탕으로 김 위원장의 방중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살피는 상황, 정황상 상당히 임박한 것으로 전망
- 김 위원장이 최근 북·중 접경지역과 가까운 평안북도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을 잡아 특별 열차편을 이용해 국경을 넘어갈 가능성 존재

◆ 단둥지역 소식통 의견

- 통상 김 위원장이 탄 열차가 국경을 통과하기 2~3일 전부터 단둥역 주변 경비가 강화되고 폭발물 수색작업 등이 이루어지는데, 아직 그런 조짐이 전혀 없다고 전함.
- 며칠 전부터 신의주와 통신 연락이 끊겼다며 모종의 움직임이 있는 분위기라고 전함.

◆ 김정일의 예상 방중 루트

- 2007년 김 위원장이 신의주까지 갔다가 되돌아 온 경험 존재, 방중계획이 노출됐다면 일정을 바꾸거나 취소할 가능성 존재
- 신의주-단둥 루트에 너무 언론의 관심이 집중돼 우회로로 중국에 갈 가능성이 상당히 존재

◆ 남한 대북 전문가가 분석한 김정일 방중 의도 및 목표

- 북한은 식량문제를 통한 경제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통큰 경제 지원이 절실
- 중국의 경우 경제적 지원을 통해 6자회담 복귀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김 위원장의 방중에 적극적
- 김 위원장의 방문은 2000년, 2001년 때처럼 ‘개혁·개방’이 아닌 ‘체제 안전’의 목적. 현재 김정일의 최대 관심사는 중국을 안전판으로 삼아 체제를 공고하게 만드는 문제일 것임.
- 북한은 천안함과 무관하니 예정된 일을 할 뿐이란 메시지를 주려는 것
- 천안함 침몰에 북한이 연루됐을 것으로 보는 국제사회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방중을 결정
- 예정된 방중을 미루는 것이 오히려 천안함에 대해 ‘도둑이 제 발 저린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 존재

■ 김정일동향

- 4/2(예상) 만수대예술단 공연을 관람(4/3, 중방)
- 김영춘(인민무력부장), 김정각(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최태복·김기남(당 중앙위 비서), 김경희(당 경공업부장) 등이 동행

나. 경제

● 北학자 “화폐개혁 이후 혼란 없었다”(4/1, 연합뉴스)

- 북한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의 리기성 교수는 APT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외부에서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의 환율 변동 기간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시끄럽게 말해왔지만 그들이 밀한 바와 같은 사회 불안은 없었다”며 “몇몇 조치들에 힘입어 이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있으며 경제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함.

- 또한 리 교수는 “환율 변동 직후 초기에는 시장 가격이 고정되지 않아 며칠 동안 시장이 폐쇄됐지만 이제는 모든 시장이 열려 인민들이 시장에서 생필품을 사고 있다”고 전하면서 “북한 정부의 목표는 시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폐지하고 국가가 통제하는 배급 체제를 통해 인민들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

● 北·중, 압록강에 수력발전소 착공(4/1, 교도통신)

- 통신은 북한과 중국 지린성(吉林省) 지안시(集安市)가 합작으로 압록강 상류인 임토와 문악 등 2개의 수력발전소를 건설에 착수했다고 보도
- 31일 지안시에서 열린 착공식에는 북한 전력공업성의 김만수(金万壽) 전력 공업성 부상 등 대표단이 참석함.

● 北, 1월 평균 영하 15.9도 혹한지서 키워 재배?(4/1,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지난달 31일 “조선(북한)에서 식용열매가 달리는 왕다래(키위) 나무 번식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면서 “중앙식물원 연구집단(팀)이 합리적인 왕다래나무 야외 접 번식 방법을 찾아내 전국 여러 곳에 도입했고, 최근에는 자강도 강계시 등에 번식시켜 왕다래나무가 기온이 낮고 생육조건도 불리한 북부 내륙까지 퍼지게 됐다”고 밝힘.
- 또한 지난달 17일 북한의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가 키위나무 재배의 기술적 문제를 다룬 ‘왕다래나무를 많이 심자’는 타이틀의 과학영화를 제작했다고 전하기도 함.

● 中지방정부, 北 잇는 교량건설 ‘경쟁’(4/2, 연합뉴스)

- 동해 진출과 북한 지원개발 확보에 적극적인 중국의 지방정부들이 북한을 잇는 교량 건설에 경쟁적으로 나섬.
- 중국 지안(集安)시는 (단둥, 훈춘, 투먼에 이어) 현재 압록강 너머의 북한 만포시와 연결하는 교량 건설도 추진 중

● 英석유회사, 北동해 유전개발 재추진(4/2, 연합뉴스)

- 2004년 북한과 동해 유전 개발 계약을 맺었으나 사업을 진척시키지 못한 영국의 석유 개발회사 아미넥스(Aminex)가 다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뜻을 밝힘.

- 아미넥스는 2일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한 ‘2009년 경영성과 예비 보고서’에서 “현재 북한측과 동한만 분지의 원유 생산 분배 협정을 수정·보완하는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상반기 안에 서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힘.

● 北, 함흥도 외국인 관광객에 개방(4/3, 연합뉴스)

- 북한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중국 고려여행사는 3일 홈페이지에서 “지난 1월 북한이 미국인에 대한 관광 제한 조치를 풀면서 함흥도 모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개방했다”고 밝히면서 오는 8월 7일 첫 함흥 관광에 나설 관광객의 모집에 나섬.

■ 기타 (대내 경제)

- 北-이탈리아 합작회사 《고리탈(CORITAL, 2009년 4월 창설)》, “평양시에서 식당과 상점 운영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보도(4/1, 조선신보)
- 소말리아 해적 공격받은 北선원 케냐서 치료(4/3, 연합뉴스)

다. 사회·문화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北, 4/1 태양절 즈음 지식인들에 대한 ‘국가학위학직’ 수여식 진행(4/1, 종통)
- 평양서도 피자, 스파게티 인기(4/2, 조선신보)

2 대외

가. 일반

● 北리철 제네바 대사 3월말 이임(4/1, 연합뉴스; 대공보(大公報))

- 대공보는 리여우치(李幼岐) 명의의 논설을 통해 30년간 스위스에서 외교관 생활을 해온 리철 대사가 김정일 위원장의 셋째 아들인 김정은(27)으로의 권력 승계 준비작업을 돋기 위해 최근 평양으로 귀환했다고 전함.
- 리 대사는 1980년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 공사로 부임하며 제네바와 첫 인연을

맺은 뒤 북한이 유엔에 가입하기 전인 1987년부터 제네바 UN사무국 주재 상임 대표부 대사로 활동했으며 1998년부터는 주 스위스 대사를 겸임했으며, 정남(39), 정철(29), 정은 등 김 위원장의 세 아들이 스위스에서 국제학교와 공립학교를 다니는 동안 후견인 역할을 해온 김 위원장의 핵심측근으로 알려짐.

■ 기타 (대외)

- 北김영남, 감비아 대통령 회담…친선협정(4/4, 중통)
 - 2일 감비아를 방문해 야야 자메흐 대통령과 회담하고 각종 협정을 체결
 - ‘친선·협조에 관한 협정’, ‘정부들 사이의 공동위원회 창설에 관한 협정’, ‘여러 분야에서의 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을 각각 조인
 - “조선반도와 아프리카에서 평화와 안전, 진보를 저해하는 온갖 요소들에 반대하는 데 협력하며 평화 없이는 안정이 이룩될 수 없다”는 공동 코뮈니케를 발표

나. 6자회담(북핵)

● 北홍선옥 “6자회담 부진은 북·미간 불신 탓”(4/4, 조선중앙방송)

- 국제의회연맹(IPU) 총회에 참석한 북한 홍선옥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은 “6자회담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은 조(북)·미 사이의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보도
- 홍 부의장은 “현시기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에서 나서는 근본문제는 조미 사이의 적대관계를 종속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

3 대남

● 北 “南, DMZ서 포사격”…군당국 “사실무근”(4/4, 조선중앙TV; 연합뉴스)

-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북한이 10일째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 군이 4일 DMZ 안에서 북한 측 초소를 향해 포사격을 했다고 조선중앙TV가 주장
- 우리 군 당국은 이에 대해 “지휘통제실에 확인 결과 지금까지 그런 사실(포사격)은 없다고 한다”고 밝힘.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UNIFICATION 월간
북한동향
Review

04.05-04.11

4월

2주차

1. 대내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군사
- 라. 사회·문화

2. 대외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1 대내

가. 정치

● 北인민보안성→부(部)개편…권부핵심 부상?(4/6, 조선중앙통신)

- 남한의 경찰청에 해당하는 북한 인민보안성의 조직 명칭이 ‘인민보안부’로 바뀜.
- 조선중앙TV는 5일 오후 8시 정규 뉴스 시간에 평양시 ‘10만 가구 살림집 건설’ 현장 소식을 전하면서 ‘인민보안부 건설여단’의 일원인 팀성철씨 인터뷰를 다뤘고, 임씨도 “우리 인민보안부”라고 자신의 소속 기관을 밝힘.
- 과거 인민보안성은 북한 내 치안 유지와 사회 통제를 담당하는 일종의 무력기관으로서, 형식상 내각 소속이었으나 실제로는 북한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 지휘를 받아옴.

● 北 군인신문, 김정은 후계 노골적 암시(4/7, 열린북한방송)

- 방송은 북한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 기관지인 ‘조선인민군’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내정된 3남 김정은의 생일인 지난 1월 8일 자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생일이 속한 4월과 2월을 거론한 후 “선군시대의 미래의 봄은 1월부터 시작된다”는 표현을 사용, 3대 세습을 노골적으로 암시했다고 전함.
- 신문은 개인 필명 기사 ‘1월에 대한 생각’에서 “우리 인민은 어버이 수령님(김일성)의 은덕을 길이 전하며 4월의 봄을 노래했다. 우리 최고사령관 동지(김정일)를 끝없이 신뢰하며 2월은 봄이라고 소리높이 구가했다”며 “오늘 우리는 선군조선의 미래의 봄은 1월부터 시작된다고 격조높이 칭송한다”고 강조했다고 방송은 전함.

● 北김영춘 ‘반북 침략기도 예리하게 주시’(4/8,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 김영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인민무력부장은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17주년 중앙보고대회에서 보고를 통해 “미국의 변함없는 대조선 적대시정책으로 오늘 조선반도(한반도)에는 의연히 긴장되고 첨예한 대결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
- 또한 “우리 군대와 인민은 혁명적 경각성을 가지고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반공화국 침략기도를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미국이 우리의 하늘과 땅, 바다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단호하고도 무자비한 징벌로 원수들의 아성을 흔적도 없이 날려버리고 말 것”이라고 위협함.

- 보고대회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일 총리, 리용무·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 리영호 군 총참모장, 전병호·최태복·김국태·김기남·김중린 노동당 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일철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최영림 평양시당 책임비서, 로두철·오수용 부총리 등 북한의 당·정·군 간부들이 모두 참석함.

【4월 9일, 제12기 최고인민회의 2차 회의 개최】

● 北, 금년 예산 6.3%↑..작년 이어 헌법 또 개정(4/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9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작년에 이어 헌법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작년 대비 6.3% 늘어난 올해 예산안을 통과 시킴.
- 이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제12기 최고인민회의 2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의 일부 조문을 수정함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헌법 개정안이 채택
- 헌법 조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정됐는지 밝히지 않았으나 작년 1월 내정된 김정은(김정일 위원장 3남) 후계구도와 연관됐을 수 있다는 분석도 없지 않음.
- 박수길 내각 부총리 겸 재정상은 보고를 통해 “지난해 국가 예산수입은 101.7%로 초과수행됐고 국가예산지출은 99.8%로 집행됐다. 올해 국가예산수입 계획은 작년의 106.3%로, 국가예산지출 계획은 108.3%로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액수는 언급하지 않음.
- 이에 따라 작년 추정예산액(4천826억원)을 기준으로 환산할 때 올해 북한의 예산총액은 구권 5천217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를 신권으로 바꾸면 52억1천 700만원이고, 미화로 환산하면 5천217만달러(1달러당 신권 100원 기준)
- 하지만 일각에서는 작년 11월말 ‘구권 100원 대 신권 1원’ 비율로 화폐교환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올해 예산안이 신권 5천217억원으로 짜여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으며, 이럴 경우에도 표시 액면만 비교하면 작년 대비 6.3% 증액한 것이 됨.
- 분야별 예산 증감을 보면 국방비는 전체 예산의 15.8%로 작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고, 신년공동사설의 ‘인민생활 향상’ 약속과 직결되는 경공업은 10.1%, 농업은 9.4% 각각 증액
- 이와 관련 김영일 총리는 “올해 다시 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해 인민소

- 비품과 알곡 생산을 비약적으로 늘려야 한다”며 “인민경제의 기술 개선(개선)과 현대화를 다그치는데 중심을 두고 대고조 전투를 힘있게 조직해 나가자”고 말함.
- 이번 회의에서는 또 조직 문제도 논의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의 최영립 서기장이 평양시당 책임비서로 옮기고, 변영립 전 국가과학원장이 그 자리에 보임 됐으며, 최고검찰소 소장에 장병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임명
 - 그러나 남한, 미국 등 대외관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관측이 무성했던 외자유치 관련 법령 정비도 이뤄지지 않음.

● 北김정일 최고인민회의 불참…추측 ‘무성’(4/9, 연합뉴스)

- 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불참이 처음은 아니지만, 행사 직전까지 ‘중국 방문 임박설’이 무성했던 데다 건강 상태도 완전하지는 않기 때문
- 하지만 이날 회의 불참이 방증과 연관됐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것이 일반적 분석
-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김 위원장한테 시시때때로 따라붙는 ‘건강이상설’
- 그런가 하면 ‘일시적 과로설’도 설득력 있게 제기, 이번 최고인민회의 소집일은 공교롭게도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17주년’과 겹쳐 전날인 8일 성대한 기념행사 등으로 김 위원장이 과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 김 위원장은 1998년 9월 최고 통치자로 공식 등극한 이후 2002년까지는 빠짐없이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했으나, 2003년 3월에 열린 ‘10기 6차회의’에 처음 불참한 뒤 2004년 ‘11기 2차’, 2006년 ‘11기 4차’, 2008년 ‘11기 6차’까지 모두 4차례 모습을 보이지 않아 결과적으로 2004년부터는 격년으로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했으며, 이 규칙대로 따지면 이번 12기 2차회의는 불참 순서가 됨.

■ 김정일동향

- 4/ 9 김정일 위원장, “희천발전소 건설지원과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에서 모범”을 보인 김금희(경공업성 부원) 등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4/9, 종방)

■ 기타 (대내 정치)

- 김일성의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발표(1993.4.6) 17돐 즈음 통일위업 전진을 위한 「6.15·10.4선언」 실천과 민족대단결 강조(4/6, 중통)
- 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駐스위스 北 대사에 ‘서세평’ 임명(4/6, 중통)
- 北 청년학생들, 4/6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17돐 경축모임 김중린 등 참가下 청년중앙회관에서 개최(4/6, 종방)
-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1993.4.9) 17돐 즈음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의 경축모임(4/7, 중통)
 - 김중린(黨비서), 김병팔(직총 위원장, 경축보고) 등 참가下 당창건기념탑장에서 진행

나. 경제

● 北, 심각한 재난 상황 아니다(4/6, 평양이타르타스; 연합뉴스)

- 북한이 심각한 재난상황에 있다는 일부 언론들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유럽연합지원계획’(EUPS)의 한 직원이 5일 러시아의 이타르타스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밝힘.
- 현재 북한을 여행중이라는 이 EUPS 직원은 “어느곳에서도 기근이나 궁핍의 신호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전함. 그리고 “거리에서 군인이 그리 많이 눈에 띄지 않는다”며 북한의 군사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군대가 선도적 역할을 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임.

● 인도 미탈, 北무산광산 지분인수 협의(4/6, 자유아시아방송(RFA))

- 방송에 따르면 인디아티임스는 “세계 최대 철강기업인 아르셀로미탈의 락시 미 미탈 회장의 동생인 프라모드 미탈 글로벌스틸홀딩스 회장이 북한을 방문해 고위 당국자들과 무산광산 지분확보 문제를 논의했다”면서 “채광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의 건설 비용을 포함해 무산광산 개발에 필요한 투자금액에 대해 협상을 벌였다”고 전함.
- 하지만 신문은 프라모드 미탈 회장은 자신의 방북 목적에 대해 “사업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만 말했다고 덧붙임.
- 이에 대해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일 프라모드 미탈 회장이 지난달 29일 4박5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해 김영일 내각 총리 등을 만났다고 전했으나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밝히지 않음.

● 中릉징-北청진 잇는 고속도로 건설 추진(4/9, 장춘일보; 연합뉴스)

- 중국 엔볜(延邊)조선족자치주 룽징(龍井)시가 북한 청진과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건설키로 하는 등 동해 진출을 위한 국제물류통로 개척을 추진 중이라고 장춘일보(長春日報)가 보도
- 룽징시는 두만강 유역 개발 프로젝트인 ‘창지투(長吉圖. 창춘. 지린. 두만강) 개방 선도구 사업’ 추진을 계기로 관내 북한 접경인 산허(三合)통상구를 국제적 통상구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에 따라 산허-북한 회령-청진을 잇는 물류통로를 확보, 동해로 진출하겠다는 계획

- 룽징시는 이를 위해 산허-청진 간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한편 카이산툰(開山屯)과 북한 삼봉리를 연결하는 철도 보수공사에 나서기로 하고 북한과 협의 중, 또 산허에 국제무역물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룽징과 회령 일대를 묶어 국제경제협력구로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 중

● 中투먼-北남양 국경 도보관광 인기(4/9, 동아경무신문; 연합뉴스)

- 중국 국경도시인 지린(吉林)성 투먼(圖們)에서 두만강을 넘어 북한 남양시 공인구까지 걸어서 가는 국경 도보여행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동아경무신문 (東亞經貿新聞)이 보도
- 투먼시 외사관광국 리창쉰(李昌勛) 국장은 8일 기자회견에서 투먼이 북한 당국과 합의 아래 2개 관광 노선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여기에 투먼-남 양시간 도보여행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힘.
- 이 도보관광은 2008년 개설된 이후 1천여명이 다녀갔으며 한때 중단됐다가 작년부터 재개

● 中, 12일 북한 단체관광 본격 시작(4/11, 연합뉴스)

- 북한이 한국의 금강산 관광사업에 강경조치를 취한 가운데 중국의 북한 단체 관광이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주목
- 11일 중국 관광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 관리들과 약 400명으로 구성된 단체 관광단이 12일 북한을 찾을 예정이고, 중국 인민지원군의 일원으로 6.25에 참전했던 중국 노병 24명이 6.25 빨빨 60주년을 맞아 당시 사망한 전우들에게 참배하기 위해 조만간 북한으로 출발
- 이에 앞서 8일 금강산 내 남측 부동산 일부를 동결하는 등 남측 주도의 금강 산 관광에 대한 제한 조치를 공언하기 전 중국의 여행사들이 이미 금강산 관광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남. 중국 통청(同程)여유망에 따르면 쑤저우(蘇州)청년여행사는 평양과 개성, 3.8선, 금강산, 원산을 둘러보는 4박5일 일정의 여행 상품의 예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음.

■ 기타 (대내 경제)

- 北 평양인쇄공업대학 정보센터, 문서편집·표 계산·자료기지관리 등으로 구성된 문서처리체계 개발로 사용자들에게 好評(4/6, 종통)

다. 군사

● 北, 천안함 침몰 관련 전군 경계태세(4/7, 자유아시아방송(RFA))

- 방송은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해 북한이 전군에 고도의 긴장상태를 유지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
- 또한 방송은 함경북도 청진의 9군단 관계자 말을 전한 익명의 대북소식통을 인용, “지난 4일 인민무력부에서 전군에 지시문을 보내, 최근 미제와 침략전쟁 연습에 돌아치던 남조선 해군 함선 한 척이 서해 바다에 침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알렸다”면서 “(지시문은 또) 이 함선에 대한 수색을 벌이고 있는 미제와 남조선 군부 호전세력들이 사고 원인을 우리 공화국과 연결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고 전함.
- 지시문은 이어 “미제와 남조선 군부세력들이 저들의 함선이 바다에 수장된 것을 우리 공화국과 연결시키는 것은 반공화국 모략책동”이라면서 “만약 적들이 모략책동에 매달린다면 인민군대는 단매에 짓부술 만반의 전투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

라. 사회·문화

● 北, 김책공대에 졸업학점제 처음 도입(4/5, 조선신보)

- 북한 최고의 이공계 대학인 김책공업종합대학(총장 홍서현)이 4월 1일 시작된 올해 새 학년도부터 졸업 이수학점제를 처음 도입하고 선택과목제의 적용 범위도 확대했다고 전함.
- 북한의 대학은 학급제로 운영돼 남한의 중고교처럼 거의 획일적인 교육을 받으며, 과목별 시험에서 낙제한 학생만 재시험을 보는 것으로 알려졌음.
- 신문은 김책공대의 새 학년 개학식 소식을 전하면서 교무부 리명월(46) 교수의 말을 인용, 2006년 이후 4년 만에 “수강 과목을 임의로 선택하는 ‘선택과목제’를 더 유연하게 적용하고, 졸업에 필요한 수득학점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교육강령을 개정했다”고 전함.
- 또한 “여러 나라 대학교육에 대해 요해(파악)하면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취한 조치”라면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학생들이 더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고 전공 분야 연구를 심화시킬 수 있게 됐다”고 덧붙임.

- 김일성종합대학 교수 출신인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은 “무엇을 배워야 할지에 대한 선택권이 그동안 북한 당국에 있었다면 이제는 학생들에게 넘어간다는 점에서 교육개혁이랄 수 있는 발상”이라면서 “선택과목제는 1980년대 중반부터 김일성종합대학의 고학년 전공반 일부에서 운용됐으나 수득학점수 제도의 도입은 처음”이라고 말함.

● 나는 ‘표창결혼’ 덕택에 세상에 태어났다(4/7, 연합뉴스)

- 1982년 북한 평안남도 개천시 개천 14호 정치범 수용소에서 출생해 20년 넘도록 수용소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오다 2005년 북한을 탈출한 신동혁(28) 씨가 7일 브뤼셀의 유럽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북한 인권 청문회에서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을 증언함.
- 신 씨는 “내 아버지는 1965년에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왔다. 수용소에서는 근로 태도가 좋은 남녀를 짹지어주는데 이를 ‘표창결혼’이라고 한다. 나와 내 형은 표창결혼 덕택에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자신을 소개함.
- 그는 “수용소에서는 ‘부모의 짓값을 치르려면 일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노동을 강요했다”라고 증언, “수용소에서 받는 교육은 기본적인 글 쓰기·읽기와 일하는 법이 고작”이라며 “그곳에서는 사상교육조차 시키지 않는다. 수용소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덧붙임.
- 수용소 삶에 대해서는 “수용소에서는 말 한 마디 잘못하거나 행동거지 하나 잘못할 때, 하루 노동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때 가차없는 처벌이 있게 되며 심하면 공개처형을 당한다”라고 전했으며 “그곳에는 부부 사이에,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서로 감시하는 시스템이 돼 있다”, “가족 한 사람이라도 잘못했는데 보고되지 않으면 가족 모두 처벌되기 때문에 이처럼 악랄한 감시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밝힘.

● 북한 축구팀, 월드컵 직전 짐바브웨서 전지훈련(4/8, 연합뉴스)

- 북한 축구 대표팀이 오는 6월 11일 개막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대회에 앞서 짐바브웨에서 5월 25일부터 2주간 전지훈련을 할 예정으로 알려짐.
- 음젬비 장관은 “북한 대사관 측과 북한 대표팀의 훈련 일정을 최종적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밝힘.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국제 구호단체인 'JTS(Join Together Society)'는 6일 오후 인천항 1부두에서 북한에 보낼 컨테이너 60대 분량의 식량과 생필품 선적식을 가짐(4/6, 연합뉴스)
- 北 조선우표사, 태양절 기념우표(개별우표 4종) 새로 발행(4/6, 종통)
- 태양절(4/15) 즈음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4/7, 종통)
 - 청춘거리 농구경기관에서 김종린(당비서)·박학선(체육지도위원장/개막연설 등 참가下 개막

2 대외

가. 일반

● 주북中대사, 5일 6.25 참전용사묘 참배(4/6, 연합뉴스)

- 류홍차이(劉洪才) 신임 주북한 중국대사가 청명절(清明節)인 5일 평안남도 회창군의 6.25(한국전쟁) 참전 용사묘를 참배한 것으로 알려짐.
- 주북 중국대사관 홈페이지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류홍차이 대사는 5일 주북 대사관 전체 외교관과 함께 평양시내에 있는 북·중 ‘혈맹’ 관계를 상징하는 우의탑에 현화한 뒤 평양에서 100km 남짓 떨어진 평안남도 회창군의 중국 인민지원군 열사묘로 향한 것으로 확인됨.
- 류대사는 240만명의 인민지원군을 상징하는 240개의 돌계단을 밟고 열사묘에 도착, 마오안잉에게 현화하고 묵념했으며 이곳에다 향나무 두 그루를 직접 심으며, “이들은 중국의 아들이자 북한 인민의 아들이기도 하다”면서 “올해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아 중국과 북한 양국이 기념행사를 공동개최할 것”이라고 말함.

● 北, 억류 미국인 곰즈씨 ‘8년 노동교화형’(4/7,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북한 당국이 지난 1월 불법입국 혐의로 억류한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곰즈(30)씨를 6일 재판에 넘겨 “8년 노동교화형과 7천만원(북한 원화 기준)의 벌금형을 언도했다”고 전함.
- 또한 “재판에서 조선민족적대죄와 비법국경출입죄에 대한 심리를 진행해 공화국 형법의 해당 조항들에 준해 유죄를 확정했다”며 “피소자는 기소 사실을

전부 인정했다”고 밝혔으며, “미국의 이권을 보호하는 스웨덴 측의 요청에 따라 주조(주 북한) 스웨덴 대사관 대표들의 재판 참관이 특례적으로 허용됐다”고 밝힘.

● 유엔 기자실의 北 ‘태양절’ 보도자료(4/9, 연합뉴스)

- “북한 인민들은 김일성 주석의 탄생일인 4월 15일을 태양절(the Day of the Sun)로 기념하고 있다. 사회주의 코리아의 창시자인 김 주석은 최고수준의 빛과 열, 매력을 소유하고 있어 태양에 비유된다”, 7일 맨해튼 유엔본부 기자실에 지난달 29일자로 발행된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명의의 3쪽 짜리 보도자료가 눈길
- 고 김 전 주석의 생일로 북한이 기념하고 있는 태양절을 맞아 전세계에서 파견된 유엔 기자들을 대상으로 뿐만 것으로 김 전 주석 미화로 일관

● 北, 외무성 부상에 前주중 공사 전격 발탁(4/11, 연합뉴스)

- 북한 김성기 전(前) 주중 공사가 최근 노동당 국제부장으로 승진한 김영일 전 부상(차관급)의 후임으로 외무성 부상에 전격 발탁된 것으로 확인
- 11일 주북 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류홍차이(劉洪才) 신임 주북 중국 대사가 지난 1일 자신의 취임을 기념하기 개최한 리셉션에 김성기 전 주중 공사가 외무성 부상 자격으로 참석

■ 기타 (대외)

- 스웨덴 적십자사 대표단(단장 : 「오싸 몰데」 부위원장), 평양 도착(4/5, 종통)
- 김영남, 4/5 세네갈 대통령에게 감사전문 및 다카르 출발(4/6, 종통)
- 오바마 미대통령은 5일 자위 차원의 경우라도 핵무기 사용 조건을 크게 제한하겠지만 북한과 이란과 같이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을 탈퇴하거나 위반한 ‘국외자(outlier)’에 대해서는 예외를 둘 것이라고 언급(4/6, 뉴욕타임스)
- ‘과거청산은 절대로 회피할 수 없다’ 領下 최근 독일에서 나치전범자 종신형 언도 등을 실례를 들어 “과거청산 회피” 對日 적개심 분출(4/7, 노동신문)

나. 6자회담(북핵)

● 北외무성 “핵무기 더 늘리고 현대화할 것”(4/9,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9일 미국의 ‘핵태세 검토(NPR)’ 보고서와 관련, “미국의 핵위협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억제력으로 각종 핵무기를 필요한 만큼 늘리고 현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
- 지난 6일 발표된 미국의 NPR보고서는 핵화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해 비핵화 의무를 준수하는 비핵보유국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소극적 안전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을 제공한다고 밝히고, 북한과 이란을 대상에서 제외
- 이 대변인은 그러나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는 우리의 변함없는 목표”라면서 한반도와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자면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신뢰구축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

● “北급변사태시 최악각본은 美·中 軍 총돌”(4/10,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은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시 최악의 시나리오로 핵무기 통제를 위해 북한에 진주한 미군과 중국군의 군사충돌을 꼽고 있다고 헤리티지 재단이 7일 발간한 ‘북한의 권력 이양이 미국에 미치는 의미’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

3 대남

● 북한軍 “대북 전단에 결정적 대응조치 취할 것”(4/11, 조선중앙통신)

- 남북장성급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은 10일 남측에 통지문을 보내 “남측이 (반북)심리모략 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납득할만한 대책을 강구하고 그에 대해 공식 통고하지 않는다면 우리 군대는 해당한 결정적인 조치를 곧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

■ 北 ‘금강산 南당국 자산동결·관리인원 추방’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 성명 발표】

- ① 우선 1차적으로 이번 부동산 조사에서 정면도전한 남조선 당국의 자산인 금강산면회소와 소방대 그리고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을 동결하고 그 관리인원을 추방함.
- ② 이번 부동산 조사에 참가하지 않은 남측의 ‘현대증권’, ‘이든상사’, ‘평안섬 유공업주식회사’의 사업권을 박탈하고 그 관계자들의 금강산 출입을 불허함.
- ③ 남조선 당국에 의해 현대와의 관광합의와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으므로 곧 새로운 사업자에 의한 국내 및 해외 금강산관광이 시작될 것임.
- ④ 남조선 보수패당이 우리의 성의 있는 노력을 우롱, 모독하고 공동선언의 정신과 민족의 지향에 배치되게 대결의 길로 계속 나가는 경우 개성공업지구 사업도 전면 재검토되게 될 것임.

● 北 ‘금강산 南당국 자산동결·관리인원 추방’(4/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은 8일 성명을 발표해 “남조선 당국의 자산인 금강산 면회소와 소방대,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을 동결하고 그 관리 인원을 추방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대변인은 “위기에 처한 금강산 관광을 구원할 길이 없게 된 조건에서 위임에 따라 이미 천명한대로 금강산 관광지구 남측 부동산에 대한 조사에 이어 다음의 행동조치로 들어간다는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며 4개항의 조치를 밝히면서 이같이 말함.
- 또 “남조선 당국에 의해 현대와의 관광합의와 계약이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됐으므로 곧 새로운 사업자에 의한 국내 및 해외 금강산관광이 시작될 것”이며 “이번 부동산조사에 참가하지 않은 남측의 현대증권, 이든상사, 평안섬유공업주식회사의 사업권을 박탈하고 그 관계자의 금강산 출입을 불허한다”고 밝힘.
- 대변인은 “장기간의 관광중단으로 우리가 입은 경제적 손실은 엄청나며 관광지구 안의 남측 부동산과 시설을 다 몰수해도 보상이 되지 못한다”고 강조
- “남조선 보수패당이 우리의 성의 있는 노력을 모독하고 공동선언의 정신과 민족의 지향에 배치되게 대결의 길로 계속 나가는 경우 개성공업지구사업도 전면 재검토되게 될 것”이라고 경고

- 이어 남조선 당국의 태도까지 지켜보면서 “(남측이) 관광 재개는 커녕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북남관계 개선의 의지도 전혀 없으며 오직 대결에 미쳐있다는 것을 최종 확인하게 됐다”며 “남조선 당국이 극히 도전적으로 나오면서 우리와 끝까지 대결하려 하고있는 조건에서 더이상 (남측과) 상종하면서 월가월부할 생각이 없다”, “(남측에 의해) 우리의 존엄을 모독하는 혐담이 난무하고 체제대결이 위험 계선을 넘어선 오늘의 정세 하에서 이제 관광문제 따위는 더 논할 여지도 없게 됐다”며 “우리는 (남측의) 반공화국 대결과 모략책동을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고 단호한 대응조치들을 연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임.

● 北 “금강산부동산 동결 13일 집행”(4/11, 연합뉴스)

- 오는 13일 최근 통보한 금강산 부동산 동결을 집행하겠다며 우리 측 당국자들의 현장 입회를 요구했다고 통일부가 11일 밝힘.
- 통일부는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13일 부동산 동결 등 최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발표한 금강산 관광 관련 조치 사항을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9일 저녁 현대그룹 앞으로 통지했다”고 밝힘.
- 북측은 이와 함께 이산가족면회소, 소방서(이상 정부 소유),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이상 한국관광공사 소유) 등 5개 동결 대상 부동산의 소유자와 관계자들은 당일 집행 현장에 입회할 것을 요구
- 이에 대해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는 입회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관광공사 관계자들의 입회 문제는 공사 측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말함.
- 북측은 또 통지문에서 지난달 실시한 금강산 부동산 조사에 참가하지 않은 현대증권 등 3개 업체들의 사업권을 박탈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UNIFICATION 월간
북한동향
Review

04.12-04.18

4월
3주차

1. 대내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사회·문화

2. 대외

- 가. 일반

3. 대남

1 대내

가. 정치

● 北김일성 생일 ‘태양절’ 임박…축제 열기 고조(4/1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최대명절 ‘태양절’이라 불리는 고 김일성 주석의 98회 생일(4.15)이 사흘 앞으로 다가와 축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음.
- 통신은 11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제2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이 도·시·군별 경연을 거친 예술단체, 예술선전대, 해외동포 대표 등 70여개 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19일까지 일정으로 열리고 있음을 알림.
- 또한 제23차 ‘만경대상’ 마라톤 대회가 중국, 캐나 등 8개국 선수 7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같은 날 평양서 펼쳐졌고, 앞서 7~8일 평양에서 열린 ‘명절 요리축전’에는 43개 단체가 1천여 점의 전통음식과 요리, 200여 건의 연구자료를 출품
- 평양의 보통강식료공장은 ‘태양절’에 인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사탕, 과자, 강정 등 당과류 생산을 2배로 늘렸고, ‘태양절기념 영화상영 순간(旬間)’ 행사가 9일 평양과 각 도에서 열흘 일정으로 시작돼 ‘조선의 별’ 등 김 주석 추모 영화가 상영되고 있다고 북한 언론은 전함.
- 이 밖에 김 주석 우상화 꽂인 ‘김일성화’를 개인, 단체별로 출품하는 12차 ‘김일성화 축전’이 13일 1주일 일정으로 개막될 예정이고, 이달 초부터 김 주석 시신이 안치된 평양 금수산기념궁전 주변에는 각지 일꾼과 근로자들이 몰려 들어 나무와 꽃관목들을 기념식수하고 있음.

● 北김정일, 김일성大 전자도서관 현지지도(4/13,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모교인 김일성종합대학교에 새로 건설된 전자도서관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새벽 전함.
- 김정일 위원장은 새로 만들어진 김일성대 전자도서관의 시설을 둘러보고 “우리 대학생들은 나라의 보배인 만큼 그들의 학습과 생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밝힘.
- 통신은 “김정일 동지는 김일성종합대학이 만년대계로 물려줄 민족 번영의

귀중한 재부라면서 대학의 강화발전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전했으나 과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음.

- 최태복·김기남 비서와 김경희 경공업부장, 장성택 행정부장, 김영일 국제부장,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등이 동행

● 北김정일, 군부대 종합훈련 참관(4/14,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의 98회 생일(4.15)을 앞두고 인민군 제567 대연합부대의 종합훈련을 참관했다고 통신은 전함.
- 통신은 “김정일 동지는 전망대에 올라 훈련진행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훈련을 봤다”며 “(김 위원장은) 인민 군대를 백전백승의 혁명무력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소개했으나 ‘과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라디오방송인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훈련 상황에 대해 “시작 구령이 내려지자 각종 지상포들이 목표물에 강력한 화력 타격을 개시했고 줄지어 쏟아지는 불소나기로 적진은 삽시에 산산조각나고 불바다로 화했다”면서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를 0.001㎜라도 침범하면, 무적의 군력으로 일격에 쓸어 버리고 사회주의 조국을 철옹성같이 수호할 인민군 군인들의 결심과 타격력을 잘 보여줬다”고 소개
-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리용무·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리영호 군 총참모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일철 차수와 전병호·최태복·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가 동행

● 北, 軍장성 100명 승진인사…97년 이후 최대(4/14, 연합뉴스)

- 故 김일성 생일(4.15)을 하루 앞두고 대장 4명을 포함해 군 장성 100명에 대한 승진 인사를 진행
- 작년 4월 김원홍 인민군 보위사령관 단 1명을 대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모두 54명의 군 장성에 대해 승진인사를 했고, 2008년 4월에는 대장과 상장 승진자 없이 강국종 등 2명을 중장으로, 최광준 등 33명을 소장으로 승진시킴.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4일 고 김일성 주석의 98회 생일을 맞아 최고인민사령관 자격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의 군사칭호를 올려줄 데 대한 명령 제0045호’를 하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대장 승진자는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남한의 국가정보원) 수석부부장 겸 국방위원, 리병철 공군사령관, 정명도 해군사령관, 정호균 전 포병사령관 4명 이었는데, 특히 우동측은 작년 4월 군 장성 인사 때 상장으로 승진한 후 다시 1년만에 대장에 올랐음.
- 이밖에 최경성·최상려·한창순·전창복·오철산 5명이 상장(남한의 국가정보원 중장)으로, 리주홍·김수길 등 8명이 중장(남한의 국가정보원 소장)으로, 함룡 철·손경복 등 83명이 소장(남한의 국가정보원 준장)으로 승진했다고 통신을 밝힘.

● 北김정일, ‘자기 땅에 발 붙이고 세계를 보라’(4/14,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4일 준공식을 가진 김일성종합대학의 전자도서관에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는 ‘친필명제’를 보냄.
- 또한 “숭고한 정신과 풍부한 지식을 겸비한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골간이 되라!”,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 위대한 당, 김일성 조선을 세계가 우러러 보게 하라!”는 명제도 전달함.
- 준공식에 참석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김 위원장의 명제 내용을 소개하면서 “(학생들은) 친필명제를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간직하고 철저히 관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
- 통신은 “(김일성대의) 전자도서관은 여러개의 열람홀과 정보봉사홀, 컴퓨터 교육실과 원격강의실, 다매체열람실, 종합강의실과 학술교류실, 정보기술연구실 등을 갖추고 각종 최신식 전자설비로 장비되어있다”고 밝혔으며 “목록 검색부터 도서 및 자료열람, 강의에 이르기까지 컴퓨터와 망체계(네트워크)에 의해 운영된다”며 “전자도서관이 일떠섬으로써 대학은 온 나라에 대한 사회과학 및 기초과학의 원격교육과 정보봉사중심기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임.

● 北김영남 “인민생활 향상 총공세 벌여야”(4/14, 조선중앙방송; 연합뉴스)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故 김일성 주석의 98회 생일(4.15)을 맞아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중앙보고대회에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전국가적 인 총공세를 벌여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사에 특기할 대변혁의 해로 되게 해야 한다”고 밝힘.

- 이어 “수령님 탄생 100돌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는 것은 성스러운 투쟁”, “당의 경공업혁명 방침과 농업혁명 방침을 관철해 질 좋은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고,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장성시키며, 인민생활과 관련한 부문들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늘이고 당과 국가의 인민적 시책을 철저히 구현해 나가자”고 주문
- 또한 또 “지금 조선반도(한반도)에서는 미제와 남조선 보수당국의 무모한 반공화국 대결책동으로 북남관계 발전과 조국통일의 앞길에 극히 엄중한 장애와 난관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우리민족끼리의 가치 높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고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 위업을 실현할 것”이라고 주장
- 대외 관계와 관련하여서는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자주성을 지향하는 모든 나라와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고 세계의 자주화를 위해 적극 투쟁 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
- 보고대회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김영일 내각 총리,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전병호·김기남·최태복·김중린·김국태 당 중앙위 비서, 리용무·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리영호 군 총참모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로두철·오수용 내각 부총리,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등 북한 고위인사들이 모두 참석

● 北 ‘4.15전야’ 또 불꽃놀이…후계자 치적 쌓기(4/15, 연합뉴스)

- 북한은 故 김일성 주석의 생일(4.15) 기념행사를 매우 성대하게 벌이고 있으며, 특히 14일 밤 평양 도심 대동강변의 주체사상탑 주변에서 펼쳐진 ‘축포야회’(불꽃놀이) 행사가 눈에 띤다.
- 축포야회 행사에서 김기남 노동당 비서는 연설을 통해 “절세의 위인들을 대를 이어 모신 행운을 지닌 것으로 하여 오늘과 같은 희망의 축포를 터져 올릴 수 있으며, 주체혁명 위업의 창창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안고 전진해 나갈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조선중앙방송이 전함.
- RFA는 15일 “북한 최대 명절인 ‘태양절’을 앞두고 생활물자 주문이 몰려 북중 접경 도시에서 북한을 상대로 장사하는 중국 상인들이 모처럼 바빠졌다”고 전함.

● 어둠속 김일성 98회 생일(4/17, 브라질 언론; 연합뉴스)

- 브라질 유력 일간지 폴랴 데 상파울루가 16일자에서 고 김일성 주석의 98회 생일을 맞아 평양 시내에서 벌어진 축제 행사를 소개
- 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 1994년 사망한 고 김 주석의 98회 생일을 맞아 15일 밤부터 10만여명의 북한 주민들이 축하 행사에 참가
- 평양 시내 곳곳에서 불꽃놀이와 공연 등의 행사가 벌어지는 가운데 현지에 파견된 이 신문사의 기자는 3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을 볼 수 있었으나 북한 당국의 제지로 사진촬영을 하지는 못함.

● 北김정일, 인민내무군 협주단 공연 관람(4/17, 조선중앙통신)

인민보안부 격상 및 ‘인민경비대→인민내무군’ 명칭 변경 확인

- 조선인민내무군 협주단 소품공연을 관람했다고 보도
- 이날 공연 관람에 동행한 주상성 대장을 ‘인민보안부장’이라고 호칭해 인민보 안성이 인민보안부로 격상됐음을 확인했고, 협주단의 소속으로 ‘인민내무군’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인민경비대’의 명칭이 바뀌었음을 보여줌.
- 주상성 국방위원 겸 인민보안부장을 비롯해 리병삼 인민내무군 정치국장, 최태복·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장성택 당 행정부장 등이 동행

● 北김정일, 올해 두번째 희천발전소 현지지도(4/17, 조선중앙통신)

- 올해 첫 현지지도 장소로 택했던 자강도 희천발전소 건설장을 다시 찾았다고 보도
- 중앙방송은 김 위원장이 발전소 건설 실태를 파악한 다음 인민군 제210부대 의 조암수조 공사장을 찾았다면 “석수가 떨어지는 지하 막장에 친히 들어가 구슬땀을 바치는 전투원들을 격려했다”고 전함.
- 노동당의 김경희 경공업부장과 장성택 행정부장, 주규창(군수공업부).리제강 (조직지도부).리재일(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현철해.리명수 인민군 대장, 박 도춘 자강도 당 책임비서 등이 동행

● 北김정일, ‘양대 공안기관’ 공연 연이틀 관람(4/18, 조선중앙통신)

- 우동측 보위부 수석부부장(국방위원 겸직)의 수행을 받아 인민군 제10215부대

(보위부의 대외 명칭) 예술선전대 공연을 관람했다고 전했고, 전날인 17일에는 김 위원장이 보안부 산하 인민내무군 협주단의 소품 공연을 봤다고 보도

- 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의 공연관람 날짜를 밝히지 않았지만,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을 하루 뒤 보도하는 북한 매체의 관행으로 미뤄 두 기관의 공연을 16일(보안부)과 17일(보위부)에 본 것으로 추정
- 일례로 보안부는 이달 초순 종전의 ‘인민보안성’에서 조직 명칭을 바꾸고, 인민무력부·보위부와 함께 국방위 직속의 ‘3대 권력기관’으로 재편됐고, 보위부의 실질적 수장인 우동측 수석부부장은 지난 14일 북한군 장성 인사에서 상장(중장) 승진 1년만에 대장을 달았음.
- 김 위원장은 지난 2월에도 보위부(중앙통신 보도날짜 17일)와 보안부(중앙통신 보도날짜 21일) 공연을 잇따라 관람
- 이번 보위부 선전대 공연에는 김원홍 인민군 보위사령관, 현철해 군 총정치국 상무부국장, 최태복·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등이 수행

■ 김정일동향

- 4/13 김정일, 김일성종합대학에 새로 건설된 전자도서관 현지지도(4/13, 종통)
 - 최태복·김기남(黨비서), 김경희·장성택·김영일·김양건(黨부장) 등 동행 및 성자립(총장), 김태희(대학 黨위원회 책임임비서) 영접
- 4/14 김정일, 태양절 즈음 진행된 조선인민군 제567대연합부대 종합훈련 참관(4/14, 종통)
 - 김영춘(인민무력부장), 리용무·오극렬(국방委 부위원장), 리영호(軍 총참모장), 김정각(軍 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일철(軍 차수), 전병호·최태복·김기남(黨 비서) 등 동행
- 4/14 김정일, 태양절 즈음 일본돈 1억 8,402만 7,390₩ 총련 자녀들 교육원조비 및 장학금 전달(4/14, 종통)
 - 김일성과 김정일의 총련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은 156차에 걸쳐 일본돈 465억 9,425만 390₩에 달함
- 4/14 김정일, 4/14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의 군사칭호를 올려줄데 대하여) 제0045호 下達(4/14, 종통)
- 4/15 김정일, 「태양절」 음악회 관람 및 黨 名義 「감사」 전달(4/15, 종통)
 - 김영춘(인민무력부장), 김정각(軍 총정치국 제1부국장), 리영호(軍 총참모장), 김일철(軍 차수), 최태복·김기남(黨 비서), 김경희·장성택(黨 부장) 등 동행 관람
- 4/17 김정일, 인민내무군 협주단 공연 관람(4/17, 종통)
 - 주상성 국방위원 겸 인민보안부장을 비롯해 리병삼 인민내무군 정치국장, 최태복·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장성택 당 행정부장 등이 동행

- 4/17 김정일, 자강도 희천발전소 건설장, 제210부대의 조압수조 공사장 현지지도(4/17, 종통)
 - 노동당의 김경희 경공업부장과 장성택 행정부장, 주규창(군수공업부).리제강(조직지도부).리재일(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현철해.리명수 인민군 대장, 박도춘 자강도 당 책임비서 등이 동행
- 4/16, 17 김정일, 김일성생일 직후 보안부.보위부 잇따라 공연 관람(4/18, 종통)

■ 기타 (대내 정치)

- 김정일의 선군영도를 받들기 위한 청년전위들의 맹세모임 금수산기념궁전광장에서 진행(4/12, 종통)
 - 김종린(黨비서), 이용철(청년동맹 1비서) 등 참가
- 「제12차 김일성화축전」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에서 개막(4/12, 종방)
 - 양형섭·김기남·안동춘(문화상/개막사)·와르디 야뜨모(단장/축하연설) 등 참가

나. 경제

● 北방송, 中관광단 일정 상세히 전해(4/16,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통신)

- 방송은 중국 국가여유국(관광국) 주산중(祝善忠)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친선 참관단과 관광방문단이 평양의 만경대(김일성 생가), 김일성화(花)축전장, 개선문, 당창건기념탑, 북중친선 ‘우의탑’과 남포시의 서해갑문, 판문점 등을 방문했다고 전함.
- 중국 측 관광단은 또 고 김일성 주석 생일 전날인 14일 평양 도심 대동강변의 주체사상탑 주변에서 펼쳐진 ‘축포야회’(불꽃놀이)를 본 뒤 북한 예술단의 ‘홍루몽’ 공연을 관람했고, 15일에는 김 주석 시신이 있는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하고 북한 국가관광총국이 평양 양각도국제호텔에서 연 환영 연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짐.
- 총 395명으로 구성된 중국 측 참관단과 관광단은 지난 12~13일 항공편과 열차편으로 평양에 도착했으며, 주산중 부국장과 평양공항에 출영나온 강철수 국가관광총국 부총국장은 연설을 통해 “(중국 관광단의) 이번 조선 방문이 두 나라 관광 부문 교류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게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다”고 방송은 전함.
- 중국 관광단의 이번 북한 방문은 작년 10월 방북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양국 관광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에 따라 이뤄진 것임.
-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축선충(祝善忠) 국가여유(관광)국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친선참관단 및 관광부문 방문단이 평양에 도착했다”고 전함.

● 평양 시내 반미 선전화 철거, 외화 상점에는 외화전용 계산대 등장(4/16, 교도통신)

- 북한 평양 시내 중심가에 걸려 있던 대형 반미 선전용 그림이 ‘인민 생활 향상’을 호소하는 선전화로 바뀌었다고 교도통신이 16일 평양발로 보도
- 한편 평양 시내 외화 상점에 외화전용 계산대가 등장했고 상품에 표시된 북한 원화 가격을 달러나 엔화로 자동으로 환산해서 보여주는 바코드 시스템이 도입되는 등 지난해 11월 화폐개혁 당시 사용이 금지된 외화가 다시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다고 통신은 소개

● 北, 8개도시 인프라 개발 계획 올 착수(4/16, 교도통신; 연합뉴스)

- 평양과 남포, 라선, 원산 등 8개 도시에 5년간 1천200억달러 상당의 자금을 투입해 인프라를 개발하는 계획을 올해 착수했다고 북한 조선대풍국제투자 그룹(대풍그룹) 박철수 총재가 밝힘.
- 박 총재는 이날 평양에서 일본 교도통신과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이 개발 프로젝트는 경제 재건을 위한 10개년 계획의 일환이라고 밝힘.
- 이번 개발 계획이 적용되는 도시는 평양, 남포, 함흥, 원산, 김책, 청진, 신의주, 라선 등 8개 도시

■ 기타 (대내 경제)

- 국가과학원 채굴기계연구소 과학자들, 신형 ‘공기기동식부선기’ 완성(4/13, 중통)
 - 저물위광석, 미광석에 함유된 유가광물을 말끔히 회수하고 높은 선광실수율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으며, 화력발전소연재의 부유선별공정에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 김책제철연합기업소 등 철생산기지들의 선철·강철증산(4/13, 중통)
 - 김책제철연합기업소의 공업총생산액 108.7%, 선철 101.9%, 강철 102.1%, 압연강재 103.6% 계획초과 및 황해제철연합기업소 등 강철생산기지들의 1/4분기 철강재 증산선전
-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컴퓨터실 청년기술자들, 수송관계프로그램 개발 도입(4/14, 중방)

다. 사회·문화

● 北김일성 생일 ‘충성자금’ 어떻게 만들어질까?(4/15, 데일리NK)

- 데일리NK는 올해 98회를 맞은 김일성 생일에 맞춰 북한 인민군 외화별이 기관에서 일했던 탈북자의 증언을 정리해, 북한의 ‘충성자금’ 어떻게 걷어지는지에 대해 전함.
- 통신은 “많은 공군기지들이 충성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얼음’(북한산 마약) 장사 같은 불법행위에 나서고 있는데, 곳에 따라 전체 인원의 절반 가량이 얼음장사에 동원되기도 한다”면서 “보위부나 보안부 단속에 걸려도 뇌물을 주면 무마될 수 있고, 심지어 단속기관이 마약을 파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밝힘.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최근 인천 강화군의 ‘구제역’ 발생 인용 보도(4/12, 중방)
- 개건된 조선미술박물관 개관식 진행(4/12, 중방)
 - 안동준(문화상/개막사) 등 참가
- 태양절 기념 전국 대학생 농구경기대회, 4/5~12 平南 평성시에서 진행(4/13, 중통)
- ‘제2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4/12~13 평양시내 극장들에서 첫 공연과 제2일 공연 진행 등 「태양절」 기념 對內행사 동향 보도(4/13~14, 중통 등)
 - 중앙미술전시회,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 안동준(문화상/개막사) 등 참가下 개막식 진행 및 송화미술전람회도 개막(4/13, 중통)
 - 「여맹」 원들의 태양절 기념무대(위대한 장군님 모시어 태양의 노래는 영원합니다), 개선문광장에서 김중린(黨비서)·노성실(여맹위원장) 등 참가下 진행(4/13, 중방)
 - 駐北 대사관 문화 및 친선관계 일꾼들, 4/13 제12차 김일성화축전장 관람(4/13, 중통)
 - 민주콩고 노동계시민협회, 김일성·김정일에게 ‘노동계최고상’전달(4/13, 중통)
 - 노동계급과 「직맹」 원들의 태양절 기념 맹세모임, 만수대언덕 김일성동상 앞에서 김중린(黨비서)·최수동(직총 부위원장/보고) 등 참가下 진행(4/14, 중방)

2 대외

● 北신문 ‘100% 자체 경수로 건설 목격할 것’(4/12, 조선중앙통신)

- 신문은 ‘허황한 급변사태의 본질’이라는 논평에서, ‘일본 오키나와(沖繩) 주둔 미 해병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유사시 북한 핵무기 제거’라는 요지의 미 태평양 해병대사령관 키스 스텔더 중장의 발언을 거론하면서, “미국과 추종 세력들의 경제 제재, 심리모략전 등 반공화국책동과 대 조선(북한)정책의 방향이 급변사태 조성을 통한 ‘조선반도(한반도)에서의 제도 통일’로 지향되고 있는 엄중한 사태를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 스텔더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미국이 급변사태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우리 공화국을 불의에 들이치기 위한 모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면서 “망상적인 급변사태론에 환장이 된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에게 ‘강성대국’ 승리의 대사변이 급변사태론의 종말을 증명할 것”이라고 주장함.

● 北…소말리아해적 ‘다당제’탓(4/12, 연합뉴스)

- 월간 대중잡지 ‘천리마’ 최근호(2010.3)가 ‘해적은 다당제가 불러온 것이다’라는 글에서 국제적 해상통로인 소말리아 해역이 해적 행위로 인해 공포와 불안을 몰고 오는 ‘악마의 해역’으로 변했다면서 “소말리아가 이런 무질서와 혼란에 빠져든 것은 미국 등 서방세력이 내려 먹인 ‘다당제 민주주의’를 받아들인 후과(결과)”라고 주장
- 잡지는 특히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소말리아 해적을 퇴치하기 위해 군함을 파견하고 소말리아에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병 주고 약 주는 격”이라고 조롱한 뒤 “서방식 ‘민주주의’야말로 온갖 사회악의 근원”이라고 비판함.

● 北최고인민회의·내각, 폴란드 대사관서 조의(4/13,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외무성, 육해운성, 무역성·교육성, 문화성,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외교단사업국 일꾼이 폴란드 대통령 레흐 카친스키와 그의 부인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13일 주조 폴란드 대사관을 찾아 조의를 표시했다”고 밝힘.

- 이어 “참가자들은 고인들의 사진 앞에서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해 묵상했다”며 “그들은 조의록에 글을 남겼다”고 덧붙임.

● 北 리철 후임 서세평 대사, 제네바 부임(4/15, 연합뉴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측근인 리철 전 스위스 주재 대사의 후임으로 임명된 서세평 대사가 제네바 외교 무대에 공식 데뷔
- 서 대사는 북한의 최대 명절로, ‘태양절’이라 불리는 고 김일성 주석의 98회 생일(4.15)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저녁 연인원 100명 안팎의 제네바 주재 외교사절들과 국제기구 관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축하 리셉션을 연 것으로 확인됨.
-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인용해 “스위스 연방 주재 조선 특명전권대사로 서세평이 임명됐다”고 전한바 있음.

● 北, 주중대사 교체 공식확인(4/1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2000년부터 10년간 중국 주재 대사를 지낸 최진수 대사의 교체 사실을 공식 매체를 통해 처음 확인
- 지난 13일 최진수 대사가 ‘작별인사’를 위해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를 만났다고 보도
- 그러나 중앙통신을 비롯한 북한 매체는 아직 최진수 대사의 후임이 누구로 결정됐는지는 언급하지 않고 있음.
- 북한은 차관급 이상 고위직을 주중 대사로 파견하던 오랜 관행을 깨고 최근 최진수 대사의 후임으로 최병관 전 외무성 영사국장을 임명한 것으로 알려짐.

● 北 “고교무상화 제외는 심각한 민족차별”(4/18, 교도통신)

- 북한의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 담당대사가 일본 정부가 재일 조선학교(조총련계 학교)를 고교 학비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심각한 민족차별이라고 밝혔다고 교도(共同)통신이 평양발로 보도

기타 (대외)

- 김영남, 4/11 폴란드 대통령 일행의 비행기 추락 사망사고 관련 同國 국회하원 의장('브로니스와 브 꼬모롭스끼')에게 위문전문(4/12, 중통)
- 최고인민회의 상임委 및 외무성·육해운성·무역성·교육성·문화성·대외문화연락委·외교단사업국 일꾼들, 駐北 폴란드 대사관弔意 방문(4/13, 중통)
- 駐北 시리아 대사, 4/13 박의춘(외무상)·리용남(무역상)·리영철(黨부부장)·김형준(외무성 부상)·문재철(대외문화연락委 부위원장)·문성모(외교단사업국장) 등 초청下 태양절 및 自國 독립절 즈음 연회 개최(4/13, 평방)
- 인도네시아 정부문화 대표단, 4/13 귀국(4/13, 평방)
- 독일 연방의회 의원 대표단, 4/14 방북일정 마치고 귀국(4/14, 중통)
- 김영남과 김영일, 4/15 中 强震 관련 호금도와 온가보에게 위문 전문(4/15, 중통)

3 대남

● 北 ‘남북경협 안풀리면 개성공단 폐쇄’(4/13, 연합뉴스)

-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들은 북한이 경색국면에 들어간 남북경협에 진전이 없을 경우 한국의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강경조치에 이어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한국 당국에 전달했다고 밝힘.
- 북한이 진전을 기대하는 남북경협 사업에는 ‘평양에 주택 10만호 건설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택 건설 이외에 ▲민속촌건설(대성산 기슭) ▲평양 근교에 있는 평성 IT단지 건설 등이 포함돼있고 올해 사업비로 3억2천만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소식통들은 전함.

● 北 천안함 사건 南자작극 선전(4/16, 열린북한방송)

- 북한이 내부적으로 천안함 사건을 남한의 자작극으로 선전하고 있다고 전함.
- 방송은 북한 소식통의 전언 인용, “북한 당국은 최근 주요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에서 천안함 사건은 반공화국 적대세력들이 자신들의 대북적 대정책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한 모략자작극이라는 내용의 교양을 했다”고 밝힘.
- 강연에서는 “구태의연한 대북대결정책을 고집하면서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는 남한 정권이 이번 천안함 사건을 통해 한반도의 정세를 지속적으로 불안하게 유지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고 소식통은 전함.

- 또한 소식통은 “북한이 이번 천안함 사건을 내부체제결속을 위한 계기로 이용하고 있다”며 “(북한 당국은) 우리는 있을 수 있는 적들의 반공화국 도발책동에 경각성을 높이며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사업과 생활을 전투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는 식으로 체제결속 선전을 하고 있다”고 덧붙임.

● 北신문, ‘그랜드 바겐’ 비난(4/17,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 북한 노동신문은 17일 ‘남조선 당국의 이른바 그랜드 바겐을 평함’이라는 제목의 ‘논평원의 글’에서 “조선반도(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쿠변으로 논의할 가치도 없다”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아무 신뢰도 없는 상태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논의할 내용을 단번에 해결하겠다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며 “핵 위기 해소에 필수불가결한 미군철수, 합동군사연습 중지, 조미평화협정 같은 것을 어떻게 통합적 접근법으로 한꺼번에 다룰 수 있는가”라고 반문
- 신문은 최근 미국이 발표한 ‘핵태세 검토보고서’(NPR)에서 북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점 등을 거론하면서 “미국이 남조선, 일본, 태평양 등지에 수만개의 전략·전술 핵무기를 배치해 우리 공화국을 겨누는 상황에서 공화국이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핵 억제력을 갖춘 것은 당연하다”며 핵개발을 정당화하는 주장을 되풀이

● 北 “천안함 ‘북 관련설’ 날조”…첫 입장표명(4/1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17일 천안함 침몰 사고가 자신들과 무관하며 북한이 관련됐다는 주장을 ‘날조’라는 공식 입장을 밝힘.
- 북한 군사논평원은 이날 발표한 글에서 “남조선 괴뢰군부 호전광들과 우익 보수정객들은 침몰 원인을 규명할 수 없게 되자 불상사를 우리와 연계시켜 보려고 어리석게 획책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 논평원은 “역적패당은 최근 외부 폭발이 어뢰에 의해 일어났고 그 어뢰는 우리 잠수정이나 반잠수정에 의해 발사됐을 가능성성이 크다는 ‘북 관련설’을 날조하여 유포시키고 있다”고 비난
- “제 입으로 합선 침몰 원인에 대해 해명할 수 있는 이렇다 할 근거를 아직도

찾지 못한 상태라고 공언하면서도 의도적으로 ‘북 관련설’을 내돌리는 가소로운 처사를 두고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었다”며 그동안 천안함 사고에 대해 침묵을 지킨 배경을 설명

- 그러나 논평원은 ‘북 관련설’이 날조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우리가 하지 않았다”는 식의 직접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으며, 각종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하지는 않았음.
- “비록 침몰한 함선이 남측 군함이지만 숱한 실종자와 구조된 인원들이 동족의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있어서는 안 될 유감스러운 불상사로 간주해 왔다”고 강조
- “남조선 괴뢰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언제나 높은 경각성을 갖고 벌어지는 사태를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함.

● 北, 주민들에게도 천안함 소식 알려(4/17,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TV)

- 17일 천안함 침몰 사고가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처음 밝힌 북한이 이를 일반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매체들을 통해서도 대대적으로 전함.
- 천안함 사고를 북한과 연계시키는 것이 ‘날조’라는 북한의 주장은 이날 오후 1시 5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처음 보도
- 이어 대내용 라디오 조선중앙방송과 대외용 라디오 평양방송이 오후 3시 보도에서 동시에 이 소식을 전한데 이어 오후 5시 반복 보도
- 특히 북한 전 지역에서 시청되는 조선중앙TV는 오후 5시에 이어 오후 8시 보도시간에 같은 내용을 내보냄.
- 보통 북한은 주민 사상교양에 좋지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의 대남·대외용 입장 발표에 한해 일반 주민들이 접할 수 없는 중앙통신이나 인터넷 매체인 ‘우린민족끼리’만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번에는 중앙TV 등을 통해 전 주민에게 천안함 소식을 전면 공개
- 북한 내부에 ‘소식통’을 두고 있는 대북매체들에 따르면 천안함 사고 이후 북한 주민들도 중국을 통해 천안함 소식을 전해듣기는 했지만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군의 소행일 것이라는 소문과 남한의 모략 또는 자작극이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함.
- 탈북자 단체인 NK지식인연대 관계자는 지난 12일 “남한에서 이번 사고가

북한의 소행이라고 의심하는 것을 북한 주민들은 알고 있다”면서 “일부에서는 ‘남한의 정보과학 기술이 발전했다고 하는데 들키지 않고 잘했다’고 하기도 한다”고 전함.

-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도 같은 날 “북한군내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해 쉬쉬하면서도 ‘한방 갈겼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주장
- 대북 단파 라디오 ‘열린북한방송’은 16일 북한 당국이 최근 주요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에서 천안함 사건은 반공화국 적대세력들이 자신들의 대북적대정책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한 모략자작극이라는 내용의 교양을 했다고 함.
-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는 지난 7일 인민무력부가 “미제와 남조선 군부세력들이 저들의 함선이 바다에 수장된 것을 우리 공화국과 연결시키는 것은 반공화국 모략책동”이라는 요지의 지시문을 전군에 내려보냈다고 전함.

● 대북방송 소속 탈북자 출신 국민 납북(4/17, 연합뉴스)

- 탈북자들이 운영하는 대북 단파 라디오인 ‘자유북한방송’ 소속 탈북자가 북중 국경에서 북한 당국에 붙잡혀간 것으로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는 北내부 소식통 인용해 주장
-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2월 26일 “불법 입국한 4명의 남조선 주민을 관계기관이 억류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하면서도 억류 중이라는 남한 주민의 신원과 입북 경위 등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음.
- 이어 북한은 지난달 23일에는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대변인 담화를 통해 탈북자들이 관련된 대북 매체와 단체를 거론하며 “앞으로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첫째 가는 처단 대상으로 될 것”이라고 경고

04.19-04.25

4월

4주차

1. 대내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군사
- 라. 사회·문화

2. 대외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1 대내

가. 정치

● 北김정일 연일 공연관람…이번엔 ‘인민예술축전’(4/19, 조선중앙방송)

- 방송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제2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의 군중예술부문 종합공연을 관람했다고 보도
- 이 무대에는 “여러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 예술소조원들과 예술선전대,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이 나와 합창 ‘충성의 노래’, 선동과 노래 ‘김일성 대원수 만만세’ 등을 공연했다”고 방송은 말함.
- 방송은 또 김 위원장이 공연에 큰 만족을 표시하면서 군중문화 예술의 강화 발전에 관한 과업들을 제시했고, 관람자들은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겠다는 결의를 다짐했다고 전함.
-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정각 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최태복·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김경희(경공업)·장성택(행정)·김영일(국제)·김양건(통일전선) 당부장이 수행함.

● 北김정일, 평양 놀이공원 방문…외교라인 대동(4/23,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인민군 창건일’(4.25)을 앞두고 최근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평양의 ‘개선청년공원’을 돌아봤다”고 통신은 전함.
- 1984년 7월 개장한 이 공원은 작년 4월 초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갔으며, 45m 높이까지 올라갔다가 초속 30m로 떨어지는 급강하탑 등이 새로 설치됐다고 통신은 설명함.
- 김 위원장은 놀이시설을 둘러본 뒤 “공원의 지형 조건과 설비 특성에 맞는 불장식(네온사인)을 더 잘해 밤에도 공원의 아름다운 면모가 뚜렷이 나타나게 해야 한다”면서 “유원지의 돌 하나, 나무 한그루도 원상 그대로 보존하고 산천의 오염 대책도 철저히 세워야 한다”, “특히 평양시에서는 원림 조성사업을 전망성있게 잘해 도시 전체가 하나의 큰 공원을 이루게 함으로써 수도 평양이 ‘공원 속의 도시’로 아름다운 모습을 빛내게 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통신은 전함.
- 노동당의 김기남 비서, 김경희 경공업부장, 장성택 행정부장과 함께 김영일

당 국제부장,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등 북한의 핵심 외교정책 책임자들이 동행

● 北김정일, 건군절 맞아 군부대 훈련 참관(4/24,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건군절’(인민군 창설, 4.25) 78주년을 맞아 인민군 제115부대의 군사훈련을 참관
- 방송은 “훈련 시작 구령이 내리자 각종 지상포들의 위력한 협동타격에 의해 적진은 삽시에 무너지고 불바다로 변했으며 탱크를 선두로 한 도하집단이 멀적의 포화를 날리며 강을 단숨에 극복했다”고 주장
- 또 “훈련은 적들이 신성한 우리 조국의 땅과 바다, 하늘을 단 한치라도 감히 건드린다면 침략자들을 일격에 격멸소탕하고 천백배의 피값을 받아야고야 할 멀적의 투지에 충만된 군인들의 단호한 결심과 무자비한 타격력을 잘 보여줬다”고 방송은 말함.
- 김 위원장은 ‘오중흡7연대칭호’를 받은 이 부대의 훈련을 지켜본 뒤 “군인들이 적들의 그 어떤 불의의 침공도 제때에 격파분쇄할 수 있게 준비됐다”고 만족을 표시했으며 “전군이 ‘훈련도 전투다!’라는 구호를 들고 전투력을 억척 같이 다져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통신은 전함.
- 김 위원장은 특히 “인민군은 수령결사옹위정신, 총폭탄정신, 자폭정신을 절대불변의 신념으로 간직한 강군으로 자랐으며,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강위력한 혁명무력으로 강화됐다”며 “이 무적의 강군이 있어 조국은 금성철벽”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밝힘.
- 김영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인민무력부장, 리영호 군 총참모장, 김정각 국방위원 겸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전병호(군수공업)·김기남(선전선동) 노동당 비서, 김경희(경공업부)·장성택(행정부) 당 부장, 주규창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등이 수행

■ 김정일동향

- 4/19 김정일, 평양시 농촌경리위 고문 ‘이신자’에게 70번째 생일상 전달(4/19, 종통)
- 4/22 김정일, 4/25(군 창건일) 즈음 새롭게 개건된 「개선청년공원」 시찰(4/22, 종통)
 - 김기남(黨 비서), 김경희·장성택·김영일·김양건(黨 부장들), 강석주(외무성 제1부상) 등 동행
- 4/23 김정일, 4/23 軍 지휘성원들에게 승진 명령 제0046호 하달(4/23, 종통)

기타 (대내 정치)

- 北최고인민회의, 2중26호 모범기대영예상 수여함에 대한 정령 제771호 발표(4/20, 중방)

나. 경제**● 北, 황금평·위화도 투자유치 속도전(4/19, 연합뉴스)**

- 북한이 압록강의 섬인 황금평과 위화도를 자유무역지구로 개발하기 위한 투자 유치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황금평과 위화도 개발권을 줄 것으로 알려진 국방위원회 소속 ‘룡악산지도총국’이 다음 달 중국에서 투자 유치 설명회를 열고 적극적인 투자 유치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중국 선양(瀋陽)과 단동(丹東)의 대북 소식통들은 “룡악산지도총국 투자 유치단이 다음 달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방문 목적은 황금평과 위화도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소식통들은 “투자 유치단을 누가 인솔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북측 인사들은 ‘상당한 고위층이 올 것’이라고 전했다”며 “투자 희망 기업들을 비공개적으로 만나 황금평과 위화도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설명한 뒤 투자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말함.

● 北, 생필품 거래가격 상한제 도입(4/19, 교도통신)

- 북한 사회과학원경제연구소 이기성 교수는 18일 교도통신과 회견에서 생필품의 가격 안정을 위해 올해 1월 29일부터 쌀과 계란, 식용유, 비누 등의 국정 가격을 인하하는 한편 시장에서의 거래시 가격상한제를 도입했다고 밝힘.
- 이 교수는 또 가구 수입을 늘리기 위해 경공업과 서비스업 등에서 여성의 고용을 적극 추진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말하였으며 외화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소유의 금지가 아니라 사용의 금지며 외화를 사용하는 경우 상점이나 식당에 설치된 ‘외화교환소’를 이용하면 된다”고 밝힘.
- 또한 작년 11월 실시한 디노미네이션(화폐 단위 변경)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부분적 불안정 상황이 있었지만 사회적 혼란은 없었으며 불안정한 상황도 곧 수습됐다”고 말하였으며 해외 언론 보도와 관련, “실제와 다른 내용이 있

었다고 알고 있다”면서 거듭 디노미네이션 실시에 따른 사회 혼란은 없었다고 강조

■ 기타 (대내 경제)

- 北 체오합작회사의 3G 이동통신봉사(고려링크) 이용자 수 4월 현재 12만 명 돌파 및 단말기의 국내생산도 시작 예정(4/19, 조선신보)

다. 군사

● 北화물선, 미얀마서 무기하역(4/20, 자유아시아방송(RFA))

- 방송은 북한 화물선 한 척이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미얀마 틸라와항(港)에 정박, 북한산 무기를 실은 컨테이너 박스를 하역했다고 보도
- 컨테이너 박스 하역 작업에 참여했던 익명을 요구한 항구 관계자는 “북한 선박은 당초 시멘트를싣고 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컨테이너 안에는 시멘트가 아닌 북한산 지대공 미사일을 포함한 무기가 실려 있었다”고 말했다고 방송은 전함.
- 또한 이 관계자는 “인부들이 지대공 미사일의 일부를 미얀마 옛 수도인 양곤에서 북쪽으로 약 100마일(160km) 떨어진 스왈(Swar)이라는 지방 도시로 수송했다”며 북한 선박명에 대해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영문 ‘G’로 시작됐다”고 밝힘.
- 방송은 이어 스왈지방에 사는 한 주민은 이 방송과 전화통화에서 “북한인들이 이곳에 머물면서 미얀마 기술자들에게 무기 사용법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함. 그러나 틸라와항 당국자는 RFA와 전화통화에서 “최근 항구에 정박한 북한 선박은 한 척도 없다”며 이런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고 방송은 덧붙임.

● 北, 쿠바 軍총참모장 평양서 친선협력 다짐(4/20,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북한 군 리영호 총참모장과 알바로 로페스 미에라 쿠바 군 총참모장은 20일 평양에서 양국 군대의 친선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 발전시킬 것을 다짐했다고 전함.
- 통신에 따르면 리 총참모장은 이날 방북한 미에라 쿠바혁명무력성 부상 겸 총참모장을 단장으로 한 쿠바혁명무력군사대표단을 환영해 북한 군 총참모

부가 마련한 연회에서 “쿠바 대표단의 방문이 두 나라 군대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와 전반적 쌍무관계를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며 “앞으로도 쿠바 군대, 인민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함.

- 미에라 총참모장도 “쿠바와 조선은 같은 이념을 가지고 있는 만큼 두 나라 군대 사이의 전통적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며, 공동의 목적을 가진 두 나라 군대와 인민은 힘을 합쳐 전투적 우의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
- 이날 면담과 연회에는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 등 북한 군 장성들과 호세 마누엘 칼레고 몬타노 주북 쿠바 대사와 레오나르도 페레스 메사 쿠바 대사관 무관이 배석함.
- 북한과 쿠바는 1986년 피델 카스트로 당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방북, 군 최고사령관 자격으로 ‘조선-쿠바 친선 및 협조 조약’에 서명함으로써 사실상 동맹관계로 격상되고 군사교류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그 후 고위급 군사대표단을 교환하면서 군사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北 군총참모장 ‘북침에 핵억제력 등 총동원’(4/24, 조선중앙방송)

- 북한 군 리영호 총참모장은 ‘건군절’(인민군 창설일, 4.25) 78주년을 맞아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중앙보고대회 보고를 통해 “미국과 남조선의 침략 전쟁 도발책동으로 지금 조선반도에 조성되고 있는 엄중한 사태를 절대로 수수방관할 수 없다”며 “우리의 하늘과 땅, 바다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핵억제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침략의 아성을 흔적도 없이 날려버릴 것”이라고 주장
- 그는 또 “남조선 당국자들과 군부가 북남관계를 언제 새 전쟁이 터질 지 모를 죄악의 파국상태로 몰아가고 있으며, 미국은 남조선과 함께 우리를 선제공격하기 위한 핵전쟁 연습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
- 이어 “군 장병들은 훈련을 실전의 분위기 속에서 싸움맛이 나게 강도높이 벌이고, 만반의 전투동원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말하고 “국방공업 부문에서 는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 승리의 포성이 계속 높이 울려나오게 해야 한다”고 강조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일 총리, 김영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인민무력부장, 리용무·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 김정각 국방위원 겸 군총정치국 제1부국장, 백세봉 국방위원 겸 제2경제(군수경제)위원장, 김일철 국방위원 겸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주상성 국방위원 겸 인민보안부장, 우동측 국방위원 겸 국가안전보위부 수석 부부장, 김국태·최태복·김기남·김중린 노동당 비서, 오수용 부총리,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장 등 당·정·군 고위 인사들이 출석해 하였음.

■ 기타 (대내 군사)

- 北 군사대표단, 4/21 쿠바 군사대표단과 회담에서 “兩國 군대의 친선관계 발전의지 재확인 등 호상 관심사문제 의견교환”(4/21, 종통)
 - 김영춘(인민무력부장), 4/21 쿠바 군사대표단(단장 :‘알바로 로뻬스 미에라 부상 겸 총참모장)과 담화

라. 사회·문화

● 北, 올해 시·군 중심까지 휴대전화 서비스(4/19, 조선신보)

- 북한이 올해 말까지 지방의 각 시, 군 소재지(행정중심지)까지 휴대전화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함
- 신문은 ‘이동통신망 확대 연내에 이용자 60여만명’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평양-향산, 평양-남포의 고속도로를 비롯해 평양에서 뻗치는 주요 도로와 철도 구간, 각 도 소재지에 통신망이 구축되고 시, 군 소재지도 절반이상은 통신망이 정비됐다”며 이같이 밝힘.
- 또한 “이동통신봉사에 대한 수요가 사업자의 예상을 넘어 급속히 장성한 결과, 현재 그 회선능력은 한계점에 이르고 있다”며 “사업자측은 금후 2~3개월 안으로 가입 희망자들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회선능력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소개
- 신문은 체신성 관계자를 인용, “앞으로 반년 안으로 손전화 단말기의 생산이 시작된다”며 “당분간은 외국에서 들여온 부속품들을 가지고 완성품을 조립하는 수준에 머무르지만 전망적으로는 자체개발단계로 이행하게 된다”고 덧붙임.

● 北가극 ‘홍루몽’ 내달 6일 中서 공연(4/20, 경화시보; 연합뉴스)

- 중국 고전소설을 개작한 북한 가극 ‘홍루몽’이 오는 5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베이징을 시작으로 한달간 중국 순회 공연에 들어간다고 보도
- 신문은 북한 피바다가극단의 창작과장 김영록(金英錄)의 말을 인용, 피바다가극단이 베이징TV방송국(BTV)에서의 공연을 시작으로 약 한달간 중국에서 홍루몽을 순회공연한다고 전함.
- 이번에 중국에서 공연되는 홍루몽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8년 4월 조중친선의 해를 앞두고 지시해 다시 만들어진 것으로 김 위원장이 작년 10월 방북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 함께 관람하기도 했음.
- 홍루몽은 중국 청나라 때 조설근(曹雪芹)이 지은 장편소설로, 주인공 가보옥(賈寶玉)과 여주인공 임대옥(林黛玉), 설보채(薛寶釵)의 비극적 사랑과 그 가문의 흥망성쇠를 그린 작품으로 북한과 중국은 이 가극 제작을 양국 우호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음.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제2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폐막식, 4/19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4/19, 중통)
- 제12차 김일성화축전 폐막식, 4/19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에서 진행(4/19, 중방)
 - 양형섭, 김기남, 남승우(총련 부의장) 등 참가
- 北 기록과학영화촬영소, 기록영화 ‘경제강국 건설의 돌파구를 연 150일전투, 100일전투’ 완성(4/20, 중통)

2 대외

가. 일반

● 北 최병관 주중대사 부임(4/20,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해 중국 주재 조선(북한) 특명전권대사로 최병관이 임명됐다”고 짧게 전함.
-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이날 “최병관 신임 대사가 오늘 고려항공편으로 베이징 서우두(首都)공항에 도착한 것으로 안다”면서 “최 신임대사는 북한

대사 차량을 타고 시내로 향했다”고 말함.

- 최 신임 대사는 1998년에 북한 외무성 영사국장을 지낸 데 이어 주(駐)라오스 대사를 거쳐 2006년부터 다시 영사국장을 역임한 부부장(차관)급으로 전해짐.

● 北 북중국경에 가짜 ‘슈퍼노트’ 대량유포(4/22, 자유아시아방송(RFA))

- 방송은 복수의 대북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평안북도 신의주시를 비롯한 국경 지역에 난데없이 미화 100달러짜리 위조 지폐가 대량으로 풀렸다”면서 “미국이 새로운 도안의 슈퍼노트를 발행한다는 소문이 미리 퍼지면서 북한의 공작기관들이 100달러짜리 위조 지폐를 대량 유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함.
- 북한 무역회사의 한 간부도 “2월부터 중앙의 간부와 특수기관들이 100달러짜리 위조지폐를 국경에 가지고 나와 중국 돈과 금을 사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한 것으로 방송은 밝힘.
- RFA는 위조 ‘슈퍼노트’ 유통의 배후와 관련, “노동당의 대남 공작부서와 인민군 정찰총국이 대량 제조해 보유해온 달러를 처리할 수 없게 되자 북중국경 지역에 풀었다고 한다”면서 “정찰총국의 김영철 총국장이 김정일 위원장과 고 김일성 주석의 생일에 쓸 ‘충성자금’을 마련하기 달러 위폐를 풀었다는 말도 나돈다”고 전함.

■ 기타 (대외)

- 北 남포시와 에콰도르 에스메랄다스市 사이 ‘친선과 교류, 협조에 관한 합의서’, 4/19 이길춘(남포시 인민위원장) 등 참가자 조인(4/19, 종통)
- 中國 친선참관단 및 관광부문 방문단, 4/19 北 일정 마치고 귀국(4/19, 종통)
- 中國 현대국제관계 연구원 대표단, 4/19 北 일정 마치고 귀국(4/19, 종통)
- 몽골 대외관계상 「곰보쟈빈 잔단샤따르」 일행, 4/20 평양 도착(4/20, 종통)
 - 北 박의춘 외무상과 몽골 대외관계상의 회담, 4/20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
 - 北정부, 4/20 몽골 대외관계상을 위해 연회 마련
- 이란 외무성 대표단(단장 : 모함마드 알리 파흘라히'부상), 방북(4/21, 종통)
- 北-이란, 4/22 「2010~2012년도 문화 및 과학교류계획서」 조인식 진행(4/22, 종통)

나. 6자회담(북핵)

● 北외무성 ‘핵무기 필요이상 생산안할 것’(4/21, 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은 비방록을 발표 “우리는 필요한만큼 핵무기를 생산할 것이지만 핵군비경쟁에 참가하거나 핵무기를 필요이상으로 과잉생산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핵보유국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국제적인 핵군축 노력에 참가할 것”이라고 밝힘.
- 외무성은 또 “우리는 다른 핵보유국들과 평등한 입장에서 국제적인 핵전파방지와 핵물질의 안전관리노력에 합세할 용의가 있다”며 “6자회담이 재개되든 말든 관계없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조선반도와 세계의 비핵화를 위하여 시종일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조선의 핵무력의 사명은 조선반도와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의 기간에 나라와 민족에 대한 침략과 공격을 억제, 격퇴하는데 있다”며 “조선은 핵보유국과 야합하여 우리를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 정책을 변함없이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
- 비방록 발표 배경에 대해서는 “6자회담이 현재 중대한 난관에 직면해 있는 주된 원인은 당사자들 사이의 불신이 뿐리 깊은 가운데 일부 참가국들이 불순한 목적으로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데 있다”며 “북핵문제의 실현방도를 옳게 찾자면 그 근원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설명

● 北, 美안변하면 서울핵정사회의 참석 없다(4/24,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미국의 대북 핵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 북한이 2012년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핵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밝힘.
- 신문은 이날 <‘핵무기 없는 세계’ 진정성 있나> 제목의 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북이 핵포기 의지를 보이면 2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초청하겠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원인과 결과를 가려보지 못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도 분간하지 못한데 불과하다”며 이같이 강조
- 이어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이 핵공격하겠다고 협박하는 나라의 대표와 마주 앉아 미소를 지으며 핵공조 문제를 논할 수 없다는 것은 뻔한 일”이라며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미간에 신뢰관계 조성이 우선이며 이를 위해서는 평화 협정부터 체결해야 한다는 기준 입장을 되풀이함.

● 北노동신문, ‘건군절’ 사설서 ‘우린 핵보유국’(4/25, 우리민족끼리)

- 노동신문은 ‘78주년 건군절(인민군 창설일)’ 사설에서 “우리 국방공업은 현대 전에 필요한 전투기술 기재를 자체 힘으로 만들어내고, 조국은 인공위성 발사국, 핵보유국으로 위용을 떨치고 있다”고 밝혔다고 우리민족끼리가 전함.
- 신문은 또 “백두의 선군령장 슬하에서 자란 우리 군대의 전략전술은 어떤 ‘선제공격’도 제압하고 주도권을 확실히 틀어쥐는 전법”이라며 “오늘 우리 군대의 강경고압의 자세 앞에서 어떤 원수도 덤벼들지 못한다”고 찬양함.
- 이어 신문은 “우리의 하늘 땅, 바다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무자비한 불소나기로 단숨에 격파하려는 것이 우리 군대의 결심”이라며 재차 강조함.

3 대남

● ‘황장엽 살해지령’ 北직파간첩 2명 구속(4/20, 연합뉴스)

-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인 황장엽씨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북한에서 남파된 간첩 2명이 구속됨. 이들은 북한에서 대남 및 해외 공작업무를 담당하는 인민 무력부 정찰총국 소속으로 알려짐.
- 조사결과 이들은 1998년 나란히 북한 노동당에 입당해 2004년부터 인민무력부 산하 옛 정찰국 소속으로 공작원 교육을 받았으며 인민군 소좌 계급을 단 것으로 드러났으며, “황씨가 자주 다니는 병원이나 장소, 만나는 사람 등 의 동향을 먼저 파악해 구체적인 살해 계획을 지시받기로 돼 있었다”고 진술 한 것으로 전해짐.

● 현대아산, ‘미동결 자산 시찰’ 北통보 촉각(4/21, 연합뉴스)

- 현대아산에 따르면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이날 오전 현대아산 금강산 사업 소를 찾아와 “국방위원회 정책국이 22일 오전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부동산 료해(조사) 결과를 최종 검토한다”며 “동결되지 않은 남측 부동산들을 돌아볼 수 있게 실무적인 준비를 해달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전달했다고 함.

- 현대아산 관계자는 “통지문에 미동결 자산을 둘러보는 목적과 자세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면서 “현지 사업소를 통해 북한의 이번 조치가 어떠한 목적을 지니는지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함.

● 北매체, 李대통령에 ‘존엄 모독한 값 맛볼 것’(4/22,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22일 이명박 대통령의 ‘태양절(김일성 생일) 불꽃놀이’ 언급과 관련, “우리의 존엄을 모독한 값을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며, 이제 그것을 직접 맛보게 될 것”이라고 언급
- 이 매체는 ‘대결에 환장이 된 자의 얼빠진 망발’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 ‘역도’ 등으로 거칠게 비난하면서 “(이번 발언으로) 극악한 대결적 정체가 더욱 똑똑히 드러났으며, 북남 관계와 관련해 그 무엇을 기대한다는 것은 망상”이라고 밝힘.
- 이어 김일성 생일 전야의 ‘축포야회(불꽃놀이)’에 대해 “수천년 민족사에 처음 맛이하고 높이 모신 절세의 위인들에 대한 온나라 전체 인민의 다함 없는 열렬한 흠토와 칭송”이자, “인민들의 행복상을 온 세상에 과시한 대서사시적 화폭이고 영광찬란한 불멸의 시대적 송가”라고 찬양함.

● 北, 금강산관광 ‘더 중대한 조치’ 경고(4/23, 민주조선; 조선중앙통신)

- 민주조선은 금강산의 남측 부동산 동결과 관련해 남한 당국의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보수 패당이 계속 오만불손하게 날뛰면 더 중대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힘.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민주조선은 ‘도적이 매를 드는 식의 궤변’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북한의 일방적 조치에 대해 분명한 원칙을 갖고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현인택 통일부 장관의 지난 20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연 발언을 반박하며 이같이 경고하였다고 전함.
- 또한 신문은 “(남한) 보수 패당은 저들 아니면 금강산을 관광할 사람이 없고, 관광 사업자로 나설 사람도 없을 것으로 여기는 것 같은데 무지한 생각이며, 지금 국내외에서 금강산 관광에 대한 요구가 높아가고 있다”면서 “우리 측이 또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보수 당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주장함.

● 北 금강산지구 5개 동결자산 몰수(4/23, 조선중앙통신)

- 금강산 관광사업을 총괄하는 북한 내각 산하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이 금강산지구 내 이산가족면회소 등 5개 남측 부동산을 몰수하고, 나머지 민간 부동산은 동결한다고 밝힘.
- 통신에 따르면 명승지지도국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미 동결된 남조선 당국 자산인 금강산면회소와 소방대, 한국관광공사 소유인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 등 5개 대상을 전부 몰수한다”면서 “이는 장기간 관광중단으로 우리 측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함.
- 또한 “몰수된 부동산들은 법적 절차에 따라 공화국이 소유하거나 새 사업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라며 “날이 갈수록 금강산 관광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새로운 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금강산 관광지구에 있는 나머지 남측 부동산도 모두 동결하고 그 관리 인원들을 추방한다”면서 “남조선 인민들의 금강산 관광길이 영영 끊기게 된 것은 참으로 비극이고 수치”라고 덧붙임.

● 北방송 ‘원정화 여간첩 사건은 완전 날조극’(4/24, 조선중앙방송)

- 방송은 ‘악랄한 반공화국 모략과 대결책동’이란 제목의 방송물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반북모략·대결책동이 강화되고 있다”며 그 사례로 원정화 사건을 거론, “남조선 공안당국이 너절한 인간쓰레기에게 위장 탈북한 여간첩의 감투를 씌우고는 적발 체포니, 증거니 하고 요란하게 떠들었다”고 비난
- 이어 방송은 “보수집권세력이 원정화 여간첩 사건이라는 것을 떠든 것은 저들의 대북정책을 합리화하고 남조선 인민들 속에 우리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하기 위한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었다”며 “분단 역사에서 이렇게 인간쓰레기까지 끌어들여 조작한 유치한 대결광대극은 처임”이라고 주장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UNIFICATION 월간
북한동향
Review

04.26-04.30

4월
5주차

1. 대내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군사
- 라. 사회·문화

2. 대외

- 가. 일반

3. 대남

1 대내

가. 정치

● 北리용철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사망(4/26,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통신)

- 방송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이 날 공동으로 발표한 ‘리용철 동지의 서거에 대한 부고’에서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리용철 동지는 심장마비로 2010년 4월 26일 0시 20분에 여든 한살을 일기로 서거했다”며 “리용철 동지는 오랜 기간 당 중앙위원회의 책임적인 위치에서 사업하면서 인민 군대를 더욱 강화 발전시키기 위해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쳤다”고 전함.
- 조선중앙통신 역시 이날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고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리용철의 서거에 애도의 뜻을 표시해 고인의 영전에 화환을 보냈다”고 전함.
- 리 제1부부장은 1980년대 초반 인민무력부 작전국장을 거쳐 1986년 조사부장으로 노동당에 발을 들여놓았으며 1994년부터 노동당에서 군사 조직을 담당하는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을 맡아왔음. 과묵하고 세밀한 작전참모형인 리 제1부부장은 최근에는 건강이 좋지 못해 김경옥 제1부부장이 업무를 대리해 온 것으로 파악됨.

● 北김정일, 국립연극단 ‘산울림’ 관람(4/27,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방송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국립연극단의 경희극(輕喜劇) ‘산울림’을 관람했다고 보도
- 방송에 따르면 경희극 ‘산울림’은 식량증산과 농촌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산간지대 농민들의 활동을 주제로 1960년대 창작된 작품으로, 이번에 국립연극단이 재창작됨.
- 김 위원장은 이 작품의 재창작에 ‘만족’을 표시하고 “선군시대 문학예술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기념비적 걸작”으로 평가하였으며, “연극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고,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는 위력한 사상적 무기로 되고 있다”며 국립연극단의 예술창조와 공연활동에

지침이 될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

-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노동당의 최태복·김기남 비서와 김경희(경공업)·장성택(행정)·김영일(국제)·김양건(통일전선)부장이 수행

● 北김정일, 정찰총국 시찰…‘천안함 의혹’ 관련주목(4/27, 조선중앙TV)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인민군 창설기념일(4.25, ‘건군절’)을 맞아 ‘천안함 침몰 사건이 북한의 소행일 것’이라는 의혹의 중앙에 서 있는 정찰총국 지휘본부를 시찰한 것으로 확인
- 김 위원장이 정찰총국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며, 그 이전에도 정찰국 시절인 2005년 5월 ‘제8차 군인가족 예술소조경연’에 참가한 정찰국 예술소조 공연을 관람한 것이 유일
- 정찰총국은 작년 2월 기존의 인민무력부 정찰국에 노동당의 ‘작전부’(공작원 침투루트 개척·테러 담당)와 ‘35호실’(대외정보 수집 담당)을 흡수해 확대 개편한 조직으로, 총정치국, 총참모부와 함께 북한 군부의 ‘3대 권력기구’로 꼽힘.

● 北, 당원 교육서 ‘軍통쾌한 보복’ 언급(4/27, 데일리NK)

- 천안함 침몰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하는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 북한 내 공장의 당원 사상교육 자리에서 “인민군이 원수들에게 통쾌한 보복을 안겼다”는 내용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짐.
- 데일리NK는 27일 함경북도 소식통을 인용, 지난 24일 온성군 A기업소(공장)의 당원 ‘토요 정세강연회’에서 ‘당 세포비서’가 “최근 영웅적인 조선인민군이 원수들에게 통쾌한 보복을 안겨, 남조선이 우리의 자위적 군사력에 대해 국가적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함.
- 매체는 또 “‘건군절’(인민군 창립기념일, 4.25)을 맞아 열린 강연회는 ‘우리 군사력에 대해 자부심과 긍지를 갖자’는 내용으로 진행됐다”면서 “당 세포비서가 남한 군함 침몰 사건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참석한 당원들은 소문으로 나돌던 이 사건이 실제 있었음을 확신하게 됐다”고 덧붙임.
- 이어 매체는 신의주 등의 다른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주민 열에 일곱은 남한 함정의 침몰 소식을 알고 있으며, 대부분 북한 해군이 침몰시킨 것으로 안다”

면서 “이런 소문이 퍼져도 특별히 단속하는 분위기는 아니어서, 북한 당국이 외부에는 자신들의 연관성을 부인하면서 주민들에게는 인민군의 전과를 알리려는 것 같다”고 밝힘.

- 한편 북한 특수전부대 장교 출신인 임천용 자유북한군인연합 회장은 27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김정일 정권의 폭압정치 고발, 탈북 엘리트의 증언’ 행사에서 “평양시 상원군에 있는 38육전여단 대대 참모부까지 자료가 내려왔는데, 천안함 사건이 ‘인민군 창건일을 맞아 인민군의 위력을 남조선과 미국주주의자들에게 보여준 쾌거’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고 밝힘. 임 회장은 이어 “북한에 있을 때 알고 지내던 지인이 아주 최근 이 부대를 전역하고 중국에 나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런 말을 들었다”면서 “북한 당국이 천안함 사건을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임.

● 北김중린 근로단체 담당 당 비서 사망(4/28,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며 당 중앙위 비서인 김중린이 심근경색으로 28일 86세를 일기로 서거했다”고 밝힘.
- 1923년 평안북도 벽동군(현재 자강도 우시군)에서 태어난 김 비서는 해방 전 만주지역에서 공산주의 활동을 하다 북한 정권이 수립된 뒤 함경북도 당 위원회에서부장을 지냈고 1954년 당 부부장으로 중앙당에서 일을 시작
- 그는 1969년 대남담당 당 비서에 임명돼 1972년 5월에는 평양에서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과 비밀협상을 갖기도 했으며 1978년에는 당 통일전선부장을 겸함.
- 1985년 당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해임되면서 권력핵심부에서 밀려나 1986년에는 조선중앙통신사 사장에 임명됐고 1987년 공보위원장 맡음. 1988년 잠시 대남담당 비서를 지내다가 1990년부터 현재까지 근로단체 담당 당 비서를 맡아왔는데, 근로단체 담당 비서는 직업총동맹이나 조선민주여성동맹 등 북한의 단체들을 지도하고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역할을 해옴. 또한 1962년 제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된 이후 지금까지 우리의 국회의원격인 대의원직을 유지해 왔음.
- 통신은 김 비서의 사망 직후 당 중앙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공동명의의 부고를 발표하고 “김중린은 조국통일과 혁명의 국제적 연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쳤고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 앞에

세운 그의 공적은 길이 남아있을 것”이라 밝혔다고 전함.

- 북한은 전병호 노동당 군수담당 비서를 위원장으로 김영일 내각 총리,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리용무·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주상성 인민보안부장, 장성택 당 행정부장,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강관주 내각 225부장 등 당·정·군 고위간부 40명으로 구성된 국가장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장례식을 ‘국장’으로 치르기로 했으며 시신을 평양시 보통강 구역 서장회관에 안치하기로 결정

■ 기타 (대내 정치)

- 北, 4/26 김父子의 남포혁명학원 현지지도 50돐 기념보고회 진행(4/27, 중방)

나. 경제

● 북, 개인 부동산임차 허용…부동산관리법 제정(4/28, 연합뉴스)

-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작년 12월 중순 부동산관리법 제정 사실을 보도했지만 “부동산의 등록과 실사, 이용, 사용료 납부에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이 규제되어 있다”고만 밝힘.
-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민주조선’(내각 및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기관지)의 ‘부동산관리법’ 법규 해설 시리즈(3월17일부터 4월3일까지 3회에 걸쳐 다룸)를 통해 확인됨.
- 모든 부동산이 국가 소유로 돼 있는 북한에서 개인이나 단체 간의 부동산 매매나 임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나,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국가의 주택공급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부동산 암거래 시장이 차츰 커진 것으로 알려짐.
- 이와 관련해 북한은 2006년 4월 열린 제11기 최고인민회의 4차 회의에서 전국적인 부동산 조사와 사용료 징수 방침을 밝힌 뒤 당해 연도 예산안에 ‘부동산사용료’라는 재정수입 항목을 신설
- ‘민주조선’에 따르면 새 부동산관리법은 “부동산을 팔고 사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고, 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부동산의 구조와 용도를 변경시킬 수 없으며, 다른 기관·사업소·단체·공민에게 넘겨주거나 빌려줄 수 없다”고 명시
- 이 법은 또 부동산 이용 허가를 받았을 경우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한 사용

료를 재정기관에 납부하도록 했고, 부동산의 등록 절차를 그 자체에 따라 ‘자체등록’(이용기관·기업소·단체)과 ‘국가등록’(관리기관)으로 이원화해 “현 물과 화폐”(부동산 정보와 가격) 두 가지를 등록하되 ‘화폐’가 불가능하면 ‘현물’만 하도록 규정

● 北남홍화학기업소, 석탄 이용해 비료생산(4/29,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평안남도에 위치한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가 김영일 내각 총리, 최태복·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와 성, 중앙기관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업식을 갖고 ‘무연탄 가스화에 의한 비료생산공정’을 본격 가동했다고 전함.
- 리무영 화학공업상은 조업사에서 “남흥의 노동계급이 비료와 화학제품 생산에서 양양을 일으켜 경공업과 농업발전을 적극 추동하고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
- 통신은 29일 발표한 보도에서 “무연탄 가스화의 완성에 의해 나프타에 의한 암모니아 생산방식보다 원가를 2배 이상으로 줄이면서도 비료생산을 획기적으로 장성시키고 석유화학공업의 발전을 추동하게 됐다”고 평가함.

■ 기타 (대내 경제)

- 北 국가과학원, 새 형의 ‘공기정화소독기’ 개발 및 평양의학대학병원, 평양 제1, 2인민병원을 비롯한 전국 병원의 수술실 등에 도입中(4/27, 조선신보)
- 北 리과대학에서 개발한 새로운 ‘탄광막장감시체계’, 순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등의 석탄생산 정상화에 기여(4/27, 조선신보)
- 北 농업화학화연구소, 병해충·잡초의 특성과 농약의 합리적 선택적용을 위한 다매체편집물 ‘실용농약’ 전자편람 연구 완성(4/27, 종방)
- 조선중앙통신사,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의 무연탄가스화공정 완성 및 국내자원에 의거한 비료생산 돌입” 보도 발표(4/29, 종통)
 -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무연탄가스화에 의한 비료생산 공정 조업식, 4.29 김영일·최태복·김기남·리무영(화학공업상/조업사) 등 참가下 현지(平南) 진행

다. 군사

● 북, 천안함사건 직후 평양서 방공훈련(4/28, 데일리NK)

- 평양 소식통을 인용,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평양시 당위원회 민방위 부 주도로 교도대와 노농적위대 대원들이 참여하는 반항공훈련이 평양 일대

에서 벌어졌다”면서 “유사시 공습에 대비한 평양시민들의 방공호 대피훈련도 함께 진행됐다”고 전함.

- 이 매체는 또 “교도대는 평양의 고사포 진지에 모여 진지 공격 가상훈련을 했고, 노농적위대는 탄약고 등 주요 시설에서 경계훈련을 했다”면서 “평양시민들의 경우 시내 ‘제3방송’과 구역 보안소 사이렌이 울리면 인민반, 기업소 별로 지하철역이나 지하방공호로 1시간씩 대피했는데, 사이렌은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7시 가운데 매일 한번씩 다른 시간에 울렸다”고 설명함.

라. 사회·문화

● 北선원 24명 탑승 화물선 中해역서 좌초 후 구조(4/27, 중국국제방송)

- 방송은 북한 선원 24명이 탑승한 세네갈 국적 화물선 ‘금룡호’가 중국 산둥해역에서 좌초됐다가 중국측의 도움으로 구조됐다고 전함.
- 이 방송은 “27일 오전 세네갈 국적 금룡호 화물선이 산둥 해역에서 태풍으로 좌초했다”며 “선상에는 24명 조선(북한) 선원들과 6천t의 물유리가 선적돼 있었다”고 밝힘.
- 이어 “구조신호를 받은 산둥 래주 변방검사소의 관병들이 신속히 출동해 사고지역 해상에 도착해 대마력 바지선을 동원하고 변방검사소 전사들이 와이어줄로 화물선을 연결한 후 좌초한 선박 및 선원과 화물을 성공적으로 구조했다”고 덧붙임.

● 北, WHO 지원 원격진료서비스 개시(4/2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세계보건기구(WHO)의 지원을 받아 원격진료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전함.
- 이날 평양의 김만유병원에서는 방북중인 마거릿 찬(WHO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 병원과 각 도 인민병원 사이에 연결된 원격진료서비스 운영개시행사가 열림.
- 중앙통신은 “리봉훈 보건성 부상은 행사에서 세계보건기구의 협조로 먼거리 의료봉사체계(원격진료서비스)가 수립된데 대해 기구의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며 “봉사체계가 수립됨으로써 중앙과 도급 병원들 사이에 컴퓨터 망(네트워크)에 의한 먼거리 영상협의를 통해 환자들에 대한 진단과 치료대책을 신

속정확히 보장할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소개

- 마거릿 찬 WHO 사무총장은 이날 연설을 통해 “먼거리 의료봉사체계의 운영은 산간지대가 많은 조선의 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정보기술을 이용해 인민들에 대한 의료봉사를 확대하려는 것은 훌륭한 구상”이라고 언급
- 평양의학대학병원, 조선적십자병원과 함께 북한의 ‘3대병원’의 하나로 꼽히는 김만유병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영상협의체계와 원격뢴트겐진단협의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원격의료에 관한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등 오래 전부터 원격진료를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짐.

● 9년만에 온 WHO사무총장…北뜨거운 관심(4/26~29,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통신; 평양방송; 노동신문)

- WHO(세계보건기구)의 수장으로서 9년여만에 방북한 마거릿 찬 사무총장에 대해 북한 언론매체들이 높은 관심을 보임.
- 26일, 조선중앙통신과 평양방송(대외 라디오방송)이 찬 사무총장 일행이 평양에 도착해 북한 정부가 환영 연회를 마련했다고 전함.
- 27일, 조선중앙방송이 이날 오후 찬 사무총장 일행의 금수산기념궁전(고 김 일성 주석 시신이 안치된 곳) 방문 소식을 전하였으며, 중앙통신은 찬 사무총장이 평양 김만유병원에서 열린 ‘먼거리 의료봉사체계’(원격진료) 행사에 참석하고 박의춘 외무상을 예방했다는 소식을 별건 보도로 전함.
- 28일, 중앙통신, 평양방송, 노동신문이 찬 사무총장이 북한의 대표적 산부인과병원인 ‘평양산원’과 주체사상탑, 황해북도 중화군 통산리 인민병원 등을 방문하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면담했다고 보도
- 특히 노동신문은 28일과 29일 연속해 찬 사무총장의 북한내 동정을 기사로 다름.

● 北축구대표팀 짐바브웨 전지훈련, 망명우려 때문(4/29, 자유아시아방송(RFA))

- 방송은 북한이 6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을 앞두고 막바지 전지훈련 장소로 남아공 대신 짐바브웨를 선택한 이유는 선수나 임원의 망명 기도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보도
- 방송은 짐바브웨 교육스포츠예술문화부 등 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 “북한은 축구대표팀 선수와 임원들이 남아공에서 전지훈련을 하면 망명을 시도할

지도 모른다는 강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전함.

- 북한과 짐바브웨는 1980년 4월 수교한 이후 고 김일성 주석과 무가베 대통령 사이의 친분을 바탕으로 각 분야에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특히 북한은 짐바브웨에 다년간 군사고문단을 파견하고 군사원조도 제공해옴.

■ 기타(대내 사회·문화)

- 김만유병원과 각 도 인민병원들 사이에 수립된 ‘먼거리의료봉사체계’의 운영개시행사 진행(4/27, 중통)
 - 이봉훈 보건성 부상, 세계보건기구(WHO) 총국장 등 참가
-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 최첨단수준의 교육과학정보봉사 중심기지로 꾸려졌다고 선전(4/28, 중통)

2 대외

● 상하이엑스포…모습 드러낸 북한관(4/26, 연합뉴스)

- 핵 문제로 국제사회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으면서도 폐쇄적인 사회구조로 인해 베일에 가려져 있던 북한이 상하이엑스포에 엑스포 사상 처음 참가
- 시험운영을 통해 드러난 엑스포 북한관은 한국관과 100m가량 떨어진 곳의 1천m² 부지 위에 중국이 건설해 제공한 임대관에서 ‘평양의 도시발전’이라는 주제로 관람객들을 맞고 있음.
- 북한관은 흰색 바탕의 외벽에 ‘조선’ ‘DPR Korea’가 북한기와 함께 그려져 있어 다소 소박한 모습임. 단층인 1층 전시공간을 들어서면 왼쪽에 대동강과 평양 시내가 나오는 대형 사진과 4.5m 높이의 주체사상탑 축소모형이 있고, 또 옆에는 대동강의 모습을 형상화해 그 위로 돌다리를 만들어 놓았으며 맞은 편에는 정자와 고구려 고분벽화를 재현한 동굴이 있음. 전시장 중앙에는 분수대와 흰색 군상 조각상이 설치돼 있고, 좀 더 들어가면 왼쪽 높은 곳에 대형 TV가 설치돼 고 김일성 주석의 현화장면 등 동영상을 방영하고 있으며 그 아래로 5대의 작은 TV를 통해 평양의 역사문화, 건축, 생활 등을 소개하고 있음.

● 北, 엔지도 관광 비자 발급 개시(4/26, 길림일보)

- 신문은 북한 조선관광사 엔지대표처가 지난 13일부터 엔지에서 비자를 발급을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룽징(龍井)시 쌉허(三合)통상구를 출발, 북한 청진에 도착한 뒤 전세기로 평양으로 가는 북한 관광 노선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 북한 변경 일대를 하루 코스로 돌아보는 변경 관광은 룽징 등 중국 변경도시에서 발급하는 변경관광 통행증만으로도 가능했지만 평양 등 북한 내륙을 관광을 하려면 반드시 선양(瀋陽)북한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 수속을 밟아야 했음. 이 때문에 북한 관광에 나서는 중국의 관광객들은 대부분 선양에서 고려항공을 타거나 단동(丹東)을 거쳐 신의주로 들어가는 열차를 이용해왔음.
- 신문은 또 룽징시가 그동안 관할구역 내 주민들만 대상으로 하던 북한 변경관광 통행증 발급을 연변주의 8개 시와 현 거주자는 물론 외지인들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이 조치로 쌉허 통상구를 거쳐 북한 칠보산 등을 관광하는 변경관광도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
- 지난해 10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방북 당시 북·중 양측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을 계기로 중국은 2006년 금지한 자국민의 북한 단체 관광을 지난 12일부터 전면 허용했음.

● 北, 앙코르와트에 전자박물관 건립 추진(4/26, 연합뉴스)

- 캘 사릿 캄보디아 문화부 장관은 북한의 만수대 해외사업부가 앙코르 와트 사원 인근에 사원 역사를 보여주는 전자박물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캄보디아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힘.
- 앞서 북한은 아프리카 세네갈에도 49m 높이의 조형물 ‘아프리카 르네상스’를 지은 바 있는데 조형물 제작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세네갈 정부의 토지매각 등이 논란을 야기했다.

● 방북 스위스 연방의원 ‘北 경제, 한계상황’(4/30, 연합뉴스)

- 이달 초(4/6~10) 북한을 방문한 스위스 연방의회 올리히 술리에 의원은 “(거리에서 본) 북한 주민들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다”며 “북한 경제가 한계상황에 다다랐다”고 말함.
- 그는 독일어 일간지 블리크(Blick)와의 인터뷰에서 가난한 나라인 북한에서

매우 우울한 분위기를 느꼈다면서 “20층 짜리 고층건물에 4층까지만 물이 공급된다는 얘기도 들었다”며 열악한 에너지 사정을 전함.

● 北, 억류 미국인 곰즈씨, 가족과 통화 허용(4/30, 조선중앙통신)

- 지난 1월 불법입국 혐의로 북한에 억류된 뒤 유죄판결을 받은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곰즈(30)씨가 미국에 있는 가족과 통화했다고 전함.
- “지난 6일 재판을 받고 현재 교회중에 있는 미국 공민 아이잘론 말리 곰즈가 건강상 이유 등으로 가족들과 전화연계를 간청해온 점을 고려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기관에서는 그가 30일 전화를 하도록 허용해줬다”면서 “앞서 교회중에 있는 곰즈에 대한 주조(주북) 스웨덴 대사관의 영사접촉이 있었다, 접촉에서 곰즈는 청원서를 넘겨주었다”고 덧붙임.
- 곰즈씨는 재판을 통해 8년 노동교화형과 7천만원(북한 원화 기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

■ 기타 (대외)

- 김영남, 駐北 필리핀 新任대사 「프란시스코 엘. 베네딕토」 신임장 접수(4/26, 종통)
- 김영남, 토고 독립 50돐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4/26, 종통)
- 김영남, 駐北 신임 자메이카 대사에게서 신임장 접수 및 담화(4/27, 종통)
- 박의춘 외무상, 駐北 인도 新任대사 「프라타프 싱」 과 담화(4/28, 종통)
- 김영남(단장) 등 北대표단, ‘2010년 상해세계박람회’ 개막행사 참가차 4/29 특별기로 중국 항발(4/29, 종통)
 - 오수용 내각 부총리, 김성기 외무성 부상 등 동행

3 대남

● 북 ‘우리도 금강산 관광의 피해자다’ 주장(4/28, 연합뉴스)

- 관광 중단 장기화에 따른 금강산지구 내 부동산 몰수와 동결조치를 단행한 북한이 자신들도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짐.
- 금강산지구 내 민간부동산 동결조치에 입회하기 위해 27일 방북했다 28일 오전 동해선남북출입사무소로 돌아온 조국래 금강산지구기업협의회 부회장은 “김 국장(김광윤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장)이 27일 오전 업체관계자들에

게 이번 조치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에서 ‘돈 몇 푼 때문이 아니라 민족화합 차원에서 금강산 관광을 시작했는데 남쪽 정부는 이것을 돈 몇 푼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우리의 가장 큰 명절인 태양절을 즐기는 것도 비판하더라’며 불평했다”라고 전함.

- 또한 “동결딱지를가 붙인 것은 북쪽이 아닌 남쪽의 잘못 때문이다. 피해자는 북쪽이고 가해자는 남쪽이다. 여러분도 피해보상 요구는 남쪽정부에 하라. 우리도 피해보상 차원에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라고 덧붙임.

3·4월

북한동향 일지

〈3월 일지〉

일 시	내 용	보도일자
3월 01일		
3월 02일	박길연, 종·독 외교관계 설정 9돌 즈음 駐北 독일 대사 주최 연회 참석	중방(3/2)
3월 03일	김영남, 불가리라 국경절 즈음 3/3 同國 수상에게 축전	중통(3/3)
	김정일, 조선인민군 제264대연합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	중통(3/4)
3월 04일	김정일, 김책제철연합기업소 현지지도	중통(3/4)
	김정일, 통일애국투사 「이경구」에게 80돌 생일상 전달	중통(3/5)
3월 05일	김정일, 조선 김일성화·김정일화 위원회 노동자 「성현애」, 평양예방약공장 노동자 「김재순」, 평양시설건설사업소 노동자 「박성희」 등에게 「감사」 전달	중통(3/5)
3월 06일	김정일, 함흥광장에서 열린 「2.8비날론 연합기업소」 준공 관련 경축대회에 참석하였음	중방(3/6)
3월 07일	김정일, 시리아 3월 8일 혁명 47돌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	중통(3/7)
3월 08일	김영남,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니 국제부녀절 100돌 기념 중앙보고회 참석	중방(3/8)
	김영남, 駐北 중국 신임대사 「류홍재」에게 신임장 접수 및 담화	중방(3/8)
3월 09일	김영남, 토고 대통령 「포르 에쏘짐나 그나씽그베」 재선 축전	중통(3/10)
3월 10일	김정일, 희천시내 공장들(칠성전기공장, 희천도자기공장 등) 현지지도	중통(3/10)
3월 11일	김정일, 김일성종합대학 연구사 은종석과 노병들인 김윤식·이준기에게 「생일상」 전달	중방(3/11)
3월 12일	김정일, 조선인민군 협주단 공연 관람 및 「감사」 전달	중방(3/12)
3월 13일	김정일, 사리원시 3중3대혁명 붉은기 미국협동농장 현지지도	중통(3/13)
3월 14일		
3월 15일	김영남, 駐北 인도 신임 대사 「프라타프 싱」 신임장 접수	중통(3/15)
3월 16일	김영일, 駐北 중 대사 「류홍차이」와 만수대의사당에서 담화	평방(3/16)
3월 17일	김정일, 러시아 대통령 등에게 생일 축전에 대한 답전 발송	중방(3/17)
3월 18일	김양건, 駐北 중국 신임 대사 「류홍차이」와 담화	중통(3/18)
3월 19일	김영일, 튜니지 공화국 국경절 54돌 즈음 동국 수상에게 축전	평방(3/19)
3월 20일	김정일, 김일 생일 100돌 즈음 3/20 대성산혁명열사능 김일 반신상에 화환 전달	중방(3/20)
3월 21일	김정일,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 총서기에게 군 당간 55돌 관련 축전	중통(3/21)
3월 22일	김영남, 「파키스탄의 날」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	중통(3/22)
3월 23일	김정일, 평양산원에 산꼴, 고려약재, 의료기구와 설비 등 전달	중방(3/23)
3월 24일	김정일, “원군사업과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에서 모범을 보인” 인민봉사총국 윤전기자재공급소 일꾼·종업원 등에게 「감사」 전달	중방(3/24)
3월 25일	김정일, 평안북도 천마전기기계공장과 대흥산기계공장 현지지도	중통(3/25)

일 시	내 용	보도일자
3월 26일	김정일, 인민대학습당에 지난해와 올해에 총2,300여종 4,100여부의 도서와 자료 전달	중방(3/26)
3월 27일		
3월 28일	김정일, 국립교향악단 공연 관람 김영남, 3/28 아프리카 가봉·김비아·세네갈 공식 순방차 평양 출발	중방(3/28) 중통(3/27)
3월 29일	김정일, 駐北 中 신임대사 「류홍재」와 담화 및 만찬	중통(3/29)
3월 30일	김영남, 러시아 철도테러 관련 同國 대통령에게 위문 전달	중통(3/30)
3월 31일	김영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된 선군시대 전국 과학자·기술자 대회 참석	중통(3/31)

〈4월 일지〉

일 시	내 용	보도일자
4월 01일	김영일, 인도 글로벌 강철주식회사 대표단(프라모트 미탈 회장)과 담화	중통(4/1)
4월 02일	김영남, 김비아 대통령과 회담	중통(4/3)
4월 03일	김정일, 만수대예술단 공연 관람 김정일, 당 중앙위·국방위 주최 「류홍재」 駐北 中 신임대사 환영연회 참석	중방(4/3) 중통(4/3)
4월 04일	김영남, 세네갈 대통령과 회담	중통(4/5)
4월 05일	김영남, 세네갈 대통령에게 감사 전문 및 다카르 출발	중통(4/6)
4월 06일		
4월 07일	김영남, 가봉·김비아·세네갈 방문 후 귀국	중통(4/7)
4월 08일	김기남, 「4.25문화회관」에서 진행된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17돌 경축 종양보고대회에서 사회	중방(4/8)
4월 09일	김정일, 희천발전소 건설지원과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에서 모범을 보인 김금희(경공업성 부원) 등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 김영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2차 회의에서 보고	중방(4/9) 중통(4/9)
4월 10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희천발전소 건설장 방문 및 지원	중통(4/10)
4월 11일	김기남,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된 제2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개막식 참석	중통(4/11)
4월 12일	김정일, 김일성종합대학에 새로 건설된 전자도서관 현지지도	중통(4/12)
4월 13일	김정일, 태양절 즈음 진행된 조선인민군 제567대연합부대 종합훈련 참관	중통(4/13)
4월 14일	김정일, 태양절 즈음 일본돈 1억 8,402만 7,390₩총련 자녀들 교육 원조비 및 장학금 전달	중통(4/14)
4월 15일	김정일, 태양절 음악회 관람	중통(4/15)

일 시	내 용	보도일자
4월 16일	김정일, 시리아 독립 64돐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	중통(4/16)
4월 17일	김정일, 자강도 희천발전소 건설장 현지지도	중방(4/17)
	김정일, 조선인민내무군 협주단 소품공연 관람	중방(4/17)
4월 18일	김정일, 조선인민군 제10215군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	중통(4/18)
	김정일, 제2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군중예술부문 종합공연 관람	중통(4/18)
4월 19일	김정일, 평양시 농촌경리위 고문 「이신자」에게 70번째 생일상 전달	중통(4/19)
4월 20일	김영남, 駐北 모로코 신임대사 「자아파르 알즈 하킴」 신임장 접수	중통(4/20)
4월 21일	김영일, 진행된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 참석	민주조선(4/21)
4월 22일	김정일, 4/25(軍 창건일) 즈음 새롭게 개건된 「개선청년공원」 시찰	중통(4/22)
4월 23일	김정일, 4/23 軍 지휘성원들에게 승진 명령 제0046호 하달	중통(4/23)
4월 24일	김정일, 軍 창건 78돐 즈음 조선인민군 제115군부대 군인들의 훈련 참관	중통(4/24)
4월 25일	김정일, 軍 창건 78돐 즈음 조선인민군 제586군부대 지휘부 방문	중통(4/25)
	김정일, 軍 창건 78돐 즈음 공훈국가합창단의 건군절 경축음악회 관람	중통(4/25)
4월 26일	김정일, 국립연극단에서 새로 창조한 경희극 '산울림' 관람	중통(4/26)
4월 27일		
4월 28일	김정일, 러시아 21세기 관현악단 공연 관람	중통(4/28)
4월 29일	김정일, 古 김중린(黨 비서)빈소에 화환 전달	중통(4/29)
4월 30일	김정일,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전체 종업원들에게 '선물' 전달	중방(5/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